

ISBN 979-11-85663-21-0

연구-기본-16-0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업종별 분석

이현미



발 간 사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 민간분야 일자리의 주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일자리 초창기부터 노인일자리의 역사를 같이 해 온 중요한 사업유형이다. 최근 정책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그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시장형사업단은 단순한 사회활동 이상의 일터로서 참여노인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형사업단에 대해 그간 업종별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경험은 전무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시장형사업의 개요와 그간 제기되어 왔던 주요 이슈, 현황들을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노인일자리 내에서의 업종과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본 보고서의 주된 분석결과인 4장과 5장에서는 새누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형사업단의 업종별 운영실적 분석과 함께 우수한 운영성과를 보인 5개 기관의 업종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장형사업단의 업종별 운영실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미약하나마 시장형사업단의 현 위치를 업종별로 파악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바쁜 가운데 검독을 맡아 귀한 의견을 준 한신대 이인재 교수, 부산복지개발원 박경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대한 자문의견을 준 신안산대 이문국 교수 및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조사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창렬 과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또한 사례분석을 위해 시장형사업단을 운영해 오면서 우수한 운영성과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공해 준 5개 수행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0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최성재

목 차

요약	i
1. 시장형 사업 현황과 이슈	1
1) 시장형 사업 개요	1
2) 시장형 사업의 주요 이슈	2
3) 시장형 사업 현황	7
4) 보고서의 구성	9
2. 노인 종사업종 특성과 시장형 업종별 현황	10
1) 노인 종사업종의 특성	10
2) 시장형 업종 재분류 방법 및 업종별 현황	11
3. 시장형 참여자 특성	24
1) 성별, 연령별 현황	24
2) 건강상태, 경제상태, 학력, 참여동기별 현황	25
4. 시장형사업단 운영실적 분석	26
1) 고용창출 효과 : 일자리 수 및 참여자 수 현황	27
2) 소득 I : 사업단 측면(실수익)	33
3) 소득 II : 참여노인 측면(보수)	47
4) 안정성 I : 사업단 측면	50
5) 안정성 II : 참여노인 측면	63
6) 기타	71
7) 소결	73

5. 시장형 업종별 인터뷰 결과	76
1) 운수업(아파트택배)	76
2) 한식음식점업(반찬제조판매)	78
3) 비알콜 음료점업(실버카페)	79
4) 정보서비스업	83
5) 공동작업장	85
6) 소결	87
6. 맺음말	91
1) 맺음말	91
2) 연구의 한계	98
참고문헌	99
부록. 주요실적 그래프	100

요 약

1. 시장형 사업 현황과 이슈

○ 시장형 사업 개요

- 시장형 사업은 2004년부터 운영된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전문서비스형이 신설되어 CCTV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기존 공익활동 중 일부가 시장형으로 전환.

○ 시장형 사업의 주요 이슈

- 시장형 사업은 소득보전 측면에서, 또한 연중 운영 일자리라는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그러나 초기자본과 정부지원금 부족으로 자립여건 자체가 조성될 수 없고, 다른 유형에 비해 설비나 재료비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지원금을 규모화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임. 업종에 따라, 또는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운영경비가 많이 들거나, 수익확보가 어려울 경우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보수수준이 감소하는 반비례관계에 있으며,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수익성이 낮은 경우도 다수 존재함.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사업단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위험률이 높으며, 참여자 선발에 있어서도 경력자 우선선발 비율이 높지 않은 편임.

- 노동강도 측면에서는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장시간 근로하고 있으나 시간당 급여수준은 낮은 편임.

- 시장형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수준도 보통이며, 특히 사업기초 인프라, 유통경로 및 판로확보나 생산량, 재정적 기반 등 인프라나 유통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임.

- 대부분 제조업, 서비스업, 영농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필요함.

- 세부유형별로, 공동작업형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는 제도적으로 소홀해 왔음. 제조판매형은 생산된 제품(서비스)의 판매가 중요한 이슈이며, 실무자들은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큰 문제로 꼽고 있음. 전문서비스형은 사업아이템의 사회적 의미에도 초점을 맞추면서도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쟁점이 있음.

○ 시장형 사업 현황

- 분석에 활용된 시장형 2015년 시장형사업단은 총 1,023개, 누적참여자 22,907명이며, 수행기관 유형별로 기관당 평균 2.9개의 시장형사업단을 운영하였고, 참여자수는 기관당 평균 65.4명으로 나타남. 시니어클럽이 기관당 5.4개의 사업단, 119.9명의 참여노인을 보유하여 가장 비중이 높음.

2. 노인 종사업종 특성과 시장형 업종별 현황

○ 노인 종사업종의 특성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6년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4.9%로 가장 높고, 이어서 ‘도소매·음식숙박업(20.1%)’, ‘농림어업(15.1%)’ 순으로 나타나며, 65세~79세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농림어업의 비중이 28.9%로 매우 높은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6.0%로 매우 낮음.

-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지도사업은 고령자 다수고용업종에는 보다 높은 기준비율을, 고령자가 고용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는 다소 낮은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그 외 산업은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3%의 비율을 적용함.

- 노인 적합업종에 대한 논의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앙대와 함께 IT서비스업, 경영기술컨설팅업 등 20개의 시니어 창업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의 시장트렌드와 세부 업종별 업종현황 및 수익 전망, 성장성 및 안정성 전망 등을 분석하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것이 거의 유일함.

○ 시장형 업종 재분류 방법 및 업종별 현황

- 업종별 특성 분석을 위해 2015년 각 사업단이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재분류함.

- 분류결과, 2015년 1,023개의 시장형사업단 중 제조업이 333개로 전체 사업단의

32.6%를 차지,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5개로 전체 사업단의 27.9%를 차지함. 농어촌은 농림어업 비중이 23.0%로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운수업(19.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1.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중소도시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31.4%), 도소매업(7.0%)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 운영되고 있음. 기관유형별로는 대한노인회는 농림어업 23.4%, 제조업 44.7%이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높았고,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48.5%로 높은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신규로 운영된 시장형사업단은 총 220개, 21.5%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75개 사업단, 제조업의 56개 사업단이 신규로 운영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세부업종별로, 제조업 중에서는 공동작업장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이 2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누, 세제 등을 제조하는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이 9.9%,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 실제 공동작업장에서는 반제품을 납품해주는 수요처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여 다양한 수주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제조업내 비중은 해석상 주의를 요함.

- 도소매업 중에서는 실버카페가 속한 '비알콜 음료점업'사업단이 144개로 가장 다수 운영되고 있음. 그밖에도 다양한 음식점, 제과점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에서는 단순포장 등의 공동작업장 및 청소사업단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 중에서는 이용업이 43.3%,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이 36.7%로 가장 다수 운영되고 있음.

- 시장형 업종 중 10개 이상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세부 업종은 총 25개 세부사업, 총 861개 사업단으로, 전체 시장형사업단의 84.2%를 차지, 누적참여자 기준으로 19,671명이 참여하여, 전체 참여노인의 85.9%가 25개 세부사업 내에 포함. 최다 운영 업종은 비알콜음료점업으로 총 144개 사업단, 1,792명이 참여함. 한식음식점업은 96개 사업단, 1,618명이 참여하였으며,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등의 배달업이 94개 사업단, 2,74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은 74개 사업단이 운영되었으나 참여자수 기준으로는 3,517명으로 가장 다수의 노인이 참여하여, 1개 사업단당 참여노인수가 다른 세부업종에 비해서는 많음.

3. 시장형 참여자 특성

○ 성별, 연령별 현황

- 시장형사업단의 여성노인 비율은 약 72.4%로,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성별 분포와 크게 차이가 없음. 숙박 및 음식점업(93.9%) 고령노인이 다수 참여하는 공동작업장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제조업(77.3%)과 판매점 중심의 도소매업(78.1%) 등에서 여성노인 비율이 높았고, 운수업(17.7%), 폐기물, 환경복원업(45.0%)에서는 여성노인 비중이 낮음.

○ 건강상태, 경제상태, 학력, 참여동기별 현황

-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5점 만점)는 평균 3.8점 가량으로, 폐기물, 환경복원업 참여자가 3.6점으로 다소 낮았음. 주관적 경제상태(5점 만점)는 2.7점으로 다소 낮았음.

- 초졸이하 저학력 참여자의 비율은 농림어업(67.7%), 폐기물, 환경복원업(63.4%)에서 다소 높았고, 운수업(15.8%), 숙박 및 음식점업(34.7%)에서 다소 낮았음.

- 참여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70.1%로, 특히 폐기물, 환경복원업 참여자의 대부분(91.1%)이 경제적 이유로 참여.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 참여자는 59.1% 가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4. 시장형사업단 운영실적 분석

- 시장형사업단의 업종별 분석을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분석을 실시함.

<표 1> 시장형사업단의 업종별 분석기준

	(1) 사업단	(2) 참여노인
고용창출효과	일자리 수, 참여자 수	-
소득	실수익	보수
안정성	연도별 실수익 변화 월별 매출액 변화	고용유지기간 월별 참여자수 변화 연도별, 월별 보수 변화
기타	전문인력 활용유무	산재보험료 지출액

○ 고용창출 효과

- 시장형사업단의 평균 배정일자리수는 18.9명이며, 업종별로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1.3명,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6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적었고, 폐기물, 환경복원업이 26.3명, 운수업이 23.5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편임.

- 누적참여자수는 평균 22.4명으로, 목표로 한 배정일자리수 18.9명에 비해 2.5명 가량 높음. 업종별로는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3.1명,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2명으로 적은 편이며, 폐기물, 환경복원업이 32.5명, 운수업이 29.0명으로 많은 편임.

- 10인 미만의 사업단은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0.0%, 숙박 및 음식점업 31.0%, 도소매업 30.6% 이 10인 미만 사업단 비중이 높음.

- 배정일자리수 대비 누적참여자수 비율은 118%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기관유형별로는 대한노인회, 업종별로는 폐기물 및 환경복원업과 운수업 등이 배정일자리수 대비 누적 참여자수 비율이 높음. 월평균 참여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준비기간이나 참여자 선발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신규사업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90% 가량의 목표가 달성됨.

○ 소득 I : 사업단 측면(실수익)

- 매출액 : 2015년 연간 매출액은 약 52.5백만원으로, 지역규모별로 대도시가 약 61백만원, 농어촌의 약 38.2백만원에 비해 1.6배 매출액이 높음. 기관유형별로 시니어클럽의 매출액이 62.6백만원으로 가장 높음. 업종별로 운수업(79.5백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62.7백만원) 등이 높았으며 농림어업 22.4백만원,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4.2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사업연차별로 신규사업은 24.2백만원, 5년차 이상은 69.6백만원으로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도 증가함. 10인 미만은 연 29.3백만원, 50인 이상 사업단은 연 99.3백만원으로 참여자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이 증가함. 2015년 월평균 매출액도 연간 매출액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평균 약 4.6백만원으로 나타남.

- 원자재비 : 시장형사업단의 평균 원자재비는 연간 15.7백만원으로, 매출액이 52.5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약 29.8%로 적지 않은 수준임. 시니어클럽의 원자재비 규모가 19백만원 가량으로 가장 높음. 노인일자리 업종 중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29.8백

만원), 도소매업(29.7백만원)이 연간 지출되는 원자재비 규모가 컸으며, 택배사업이 주를 이루는 운수업(3.9백만원)이나 폐기물, 환경복원업(4.8백만원),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2백만원),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5.1백만원) 등의 원자재비는 훨씬 적게 소요됨. 연차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한 것처럼 원자재비도 증가함.

- 주요세부업종별 원자재비 : 참기름 제조 등 식물성 유지 제조업, 한식음식점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은 1인당 300만원 이상의 원자재비 사용, 제과점업(2.5백만원)이나 두부제조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1.8백만원) 역시 다소 높은 경향. 포장 및 충전업(12.7만원),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15.2만원), 자동차부품 제조업(13.9만원) 등 공동작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들은 원자재비가 매우 낮은 수준.

- 사업운영경비 : 홍보와 교육, 전문인력 활용 등에 소요되는 사업운영경비는 연간 평균 12.6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시니어클럽의 사업운영경비가 연평균 15.9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농림어업,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7.3백만원, 7백만원으로 적게 소요됨. 참여자규모가 클수록 사업운영경비도 증가하여 누적참여자 기준, 10인미만의 사업단은 약 8백만원, 50인 이상의 경우 22.2백만원이 소요됨.

- 주요세부업종별 사업운영경비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1인당 사업운영경비가 30만원에 불과하였고, 포장 및 충전업,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 등도 매우 적은 운영경비가 소요. 식물성 유지 제조업은 2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식음식점업 198만원,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79만원, 제과점업 176만원,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수익 : 실수익은 투입된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고, 매출액에서 원자재비와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임. 2015년 연평균 실수익은 94.5백만원으로 광역시는 119.5백만원, 중소도시는 80.3백만원으로 차이가 존재함. 업종별로 운수업이 148.5백만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높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의 과다 지출로 실수익액은 67.8백만원 수준으로 다소 낮음. 매출액이 낮았던 농림어업의 경우,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의 적은 지출로 실수익은 88.4백만원 수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실수익액이 128.6백만원으로 높았는데, 원자재비의 적은 지출이 영향을 미침. 운영연차가 길수록 실수익액도 증가함.

- 1인당 실수익 : 참여자 1인당 평균 5.7백만원의 실수익을 창출함. 1인당 국비,

지방비 등 정부지원금인 180~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투입된 예산 대비 2배 가량의 이윤을 창출함. 시니어클럽의 1인당 수익이 6.1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업 7.7백만원, 폐기물, 환경복원업 6.1백만원으로 나타남. 1인당 실수익이 다소 낮은 업종은 농림어업(4백만원), 도소매업(5백만원), 제조업(5.1백만원) 등임. 10인 미만 사업단이 5.8백만원으로 높은 반면 50인 이상은 5.3백만원으로 가장 낮음. 사업운영 연차에 따라서는 신규사업단의 경우 5백만원 수준이었으며, 2년차 이상 사업단의 실수익액은 5.7백만원~6백만원 가량으로 나타남.

- 주요세부업종별 1인당 실수익 : 1인당 월간 실수익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평균 72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배달업이 약 70만원, 한식음식점업이 59만원으로 다음으로 높음. 반대로 가장 1인당 월간 실수익이 낮은 업종은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으로 약 41만원의 실수익을 창출. 치약, 비누 및 세제 제조업이 41.7만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42.1만원으로 낮음.

○ 소득Ⅱ : 참여노인 측면(보수)

- 총보수 : 연간 56.5백만원 수준, 월간 5백만원 수준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기관유형별로는 대한노인회가, 업종별로는 운수업, 폐기물, 환경복원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참여자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운영 연차가 오래될수록 참여자의 연보수 및 월보수 수준이 높음.

- 1인당 보수 : 시니어클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자수가 적어질수록 참여자 1인이 받는 보수수준이 높아짐. 사업연차별 보수는 약간씩 나아지는 경향을 보임.

- 주요세부업종별 1인당 보수 : 건축물 일반 청소업이 약 4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달업이 44만원으로 다음으로 나타남. 채소작물재배업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은 보수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안정성Ⅰ: 사업단 측면

- 연도별 매출액 변화 : 2011년 55백만원 수준에서 2015년 56백만원 수준으로 매출액 차이는 약 85만원 가량에 불과함. 업종별로는 건축물 일반청소업이 2011년 중간 정도의 매출액 수준에서 2015년에는 가장 높은 매출액을 달성함. 한식음식점업은 매출액 상위 수준에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유지, 택배업종이 속해 있는 배달업과 식물성 유지 제조업도 매출액이 비교적 상승.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중간 정도의 매출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 포장 및 충전업이나 곡

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비누 등의 제조업의 경우 낮은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

- 연도별 원자재비 변화 : 업종별 원자재비는 연도별 평균인 약 15~16백만원 선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양분. 식물성 유지 제조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자재비가 대폭 상승, 한식음식점업은 높은 수준의 원자재비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지출, 비알콜 음료점업의 경우 2011~2012년에는 원자재비 지출이 많았으나 그 이후 대폭 감소. 과실 및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비누 제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채소 재배업,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배달업, 포장 및 충전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은 낮은 원자재비 수준이 연도별로 대부분 유지

- 연도별 사업운영경비 변화 : 한식음식점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제과점업 등은 1개 사업단당 참여노인 수가 적은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업운영경비를 지출. 특히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의 경우 사업운영경비 지출액이 연도별로 크게 상승.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도 사업운영경비가 연도별로 상승 추세. 채소작물 재배업이나 비알콜 음료점업의 경우 사업운영경비가 연도별로 감소 추세.

- 연도별 실수익 변화 : 대체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상승하였고, 상승추세가 이후 유지되는 사업단과 지속상승되는 사업단, 소폭 감소하는 사업단 등의 경향을 보임. 건축물 일반 청소업은 지속 상승 추세이며, 택배업, 한식음식점업, 제과점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의 실수익은 상승한 상태가 유지. 비알콜 음료점업의 경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나 지속 상승 추세임. 채소작물 재배업의 경우 연도별로 점차 실수익이 감소 추세이며 수준 자체도 낮음.

- 월별 매출액 변화 : 업종의 계절변동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월별 편차가 적을수록 사업단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015년 신규사업을 제외한 분석결과, 곡물 및 기타작물 재배업이나 채소작물 재배업이 경우 계절제한적인 재배작물 선정보다는 연중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안정적 고객층 확보가 어려운 식물성유지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그 외의 많은 사업단들이 월별로 대체로 안정적인 매출액 수준을 보임.

- 월별 참여자수 대비 매출액 변화 : 고정수요처의 확보가 어려운 식물성 유지 제조업의 매출액 변동폭이 매우 심하며, 농작물 재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매출액이 상승

○ 안정성Ⅱ : 참여노인 측면

- 참여기간 : 2015년 평균 참여개월수는 약 7.9개월¹⁾이며, 지역규모별로는 군단위, 기관유형별로는 대한노인회, 업종별로는 운수업 등의 참여자 평균 참여개월수가 다소 낮게 나타남. 신규사업을 제외한 평균 참여개월수는 약 8.4개월로 나타남.

- 월별 참여자수 변화 : 계속사업의 참여자수 월별 변화 분석 결과, 1월부터 2월까지는 참여자수가 다소 적다가 3월 가량부터 참여자수의 안정화 경향을 보이며, 자동차부품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두부 제조업, 한식음식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등이 참여자수의 계절변동성이 매우 적음.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이나 곡물 및 기타작물 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참여자수에 있어 계절변동성이 심함. 한편, 이러한 월별 참여자수의 업종별 차이는 제도적 특성에 의한 차이일 수 있음.

- 연도별 보수 변화 : 업종별 보수는 연도별로 대체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 2백만원 수준에서, 2015년 268만원 수준으로 약 68만원 증가하였는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정부지원금이 연 50만원가량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대폭 보수가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 중에서도 건축물 일반청소업, 한식음식점업은 지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택배가 속한 배달업은 상승 후 안정적인 보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채소작물 재배업은 실수익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보수수준이 하락

- 월별 보수 변화 : 택배업의 경우 참여자보수가 높은 수준으로 월별로 안정적으로 지급. 한식음식점업도 택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월별로 안정적으로 지급.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두부 제조업, 비알콜 음료점업 등의 경우 평균적 보수수준에서 월별로 안정적.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의 경우 보수가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월별로 안정적. 식물성유지 제조업의 경우 보수수준이 높지 않으면서도 월별 변동성도 심한 편. 기타작물 재배업과 채소작물 재배업 역시 월별 변동폭이 큼.

1) 사업단별 참여자의 평균참여개월수를 평균한 값이므로 시장형 전체 참여자의 평균참여개월수와는 차이가 있음

○ 기타

- 전체 사업단 중 6.2% 가량이 전문인력을 활용.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1.2%로 전문인력을 다수 활용.

-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단이 그렇지 않은 사업단에 비해 1인당 연간 실수익 및 보수 측면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냄.

- 일자리 1개당 평균 28,782원의 산재보험료를 지출. 도소매업(17,500원), 숙박 및 음식점업(18,036원)은 다소 적은 산재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으며, 운수업(45,533원), 폐기물, 환경복원업(36,830원), 농림어업(34,642원),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33,336원) 이 비교적 높은 산재보험료를 지출.

5. 시장형 업종별 인터뷰 결과

- 새누리DB만으로는 시장형사업단의 사업운영상의 질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어려워,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업종별로 사업운영과 관련된 질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함.

〈표 2〉 시장형사업단 사례분석 기관 개요

	기관유형	지역유형	우수업종	기타 사업
A기관	기타	대도시	운수업(아파트택배)	공동작업장, 실버카페
B기관	대한노인회	대도시	운수업(아파트택배)	공동작업장
C기관	시니어클럽	중소도시	출판, 영상, 정보	-
D기관	시니어클럽	중소도시	한식음식점업(반찬제조판매)	공동작업장
E기관	시니어클럽	중소도시	비알콜 음료점업(실버카페)	-

- 운수업(아파트택배) : 사업량 확대가능성이 높음. A, B기관 모두 전 택배사의 전물량을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임.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수익이 높게 창출. 초기 거점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밀개 등 물품, 작업복 등에 대한 초기비용 위주로 재원이 필요하며, 특히 거점 마련 비용은 아파트측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거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경우 원자재비가 거의 불필요. 택배물량이 확대 추세에 있고 사업연차에 따라 참여자 숙련도가 향상되어 물량소화능력이 향상됨. 월별 계절변동성도 적어 안정적인 수익과 보수 창출. 단, 노동강도가 강해 남성 연소노인에게 적합함. 노동강도에 따른 다수 중도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참여자 복리후생 강화, 안전수칙 마련,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택

배사와의 협의 등의 대비가 필요.

- 한식음식점업(반찬제조판매) : 고용창출효과는 보통 수준이지만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동 급식,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급식 등 공공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수요를 예측하고 달성함으로써 실수익과 보수를 높임. 한식음식점업은 1인당 원자재비가 매우 높은 편으로, 농작물 재배 사업단과의 연계, 식재료 경매, 전문인력 조리장 기용 등으로 원자재비를 절감하고 있음.

- 비알콜음료점업(실버카페) : 고용창출효과는 보통 수준이지만 사업단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량 확대 가능. 실버카페는 매장 인테리어, 장비구입 등 초기투자비용과 함께 지속적으로 재료구입비 등이 발생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재원마련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면접기관은 공통적으로 민간기업 또는 지자체를 통하여 초기투자비 재원을 마련함. 면접기관은 주요 관공서와 후원기업 내, 대학내에 위치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입지조건을 갖춤.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가격을 낮추어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음. E기관이 카페업 중 전문 대규모 운영으로 원재료, 유통, 참여자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드러냄. 연도별 매출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비록 월별 매출액의 차이가 있어 계절변동성은 존재하나 성수기의 추가매출을 적립하여 비수기에 활용. E기관에서는 상시 직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규모 확산을 지원함.

- 정보서비스업 : 안정적인 고용창출효과와 향후 사업량 확대가능성, 안정적인 실수익과 보수 등의 측면에서 좋은 사례임. 매출액이나 보수가 월별로 안정적이고 노동강도가 높지 않으며 능력을 갖춘 연소노인이 참여하기에 적당한 업종으로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과 맞물려 확대가능성이 높음. 사업량 확대는 수요처인 민간기업 확보와 직결됨.

- 공동작업장 :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높음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가 많이 들지는 않으나 단가 자체가 낮아 실수익이나 보수가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단가가 높은 제품을 제조, 포장할 경우, 또한 숙련도에 따라 높은 수익과 보수가 창출가능. 월별로 계절변동성이 없는 생산품을 확보한다면 고령노인의 소득보전에 적합한 업종의 하나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참여자의 거주지와 인접하면서 고령노인이 근로하기 적합한 작업장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D기관의 사례처럼 전문인력을 활용한 작업물량 배분 및 수급, 비노인 취약계층 활용 등의 다양한 전략이 수반될 수 있음.

6. 맺음말

〈표 3〉 시장형 업종별 운영실적 분석결과 요약

업종	고용창출 효과	연매출액	연간 원자재비	1인당 사업운영 경비	1인당 월실수익	1인당 연보수	연도별 연간 원자재비
(단위)	(개)	(천원)	(천원)	(원)	(원)	(원)	(천 원)
농림어업	○	× ×	○	◎	×	×	×
제조업	○	×	○	○	×	×	×
폐기물, 환경복원	○	○	◎	○	○	○	○
도소매업	×	○	×	×	×	×	×
운수업	○	○	◎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출판, 영상, 정보 등	○	◎	◎	× ×	◎	◎	○
부동산, 임대	×	× ×	◎	◎	×	×	○
사업시설, 사업지원	○	○	◎	○	○	○	×
교육서비스	○	○	◎	×	○	○	○
예술, 스포츠, 여가	○	×	× ×	×	× ×	×	×
협회, 수리, 개인	×	× ×	◎	○	○	×	×
평균	18.9	52,535	15,657	952,170	519,253	3,352,076	'11: 15,188 '15: 15,657
업종	연도별 연간사업 운영경비	연도별 1인당 실수익	월별 1인당 매출액	연도별 1인당 연보수	월별 1인당 보수	산재 보험료	
(단위)	(천 원)	(천 원)	(원)	(천 원)	(원)	(원)	
농림어업	○	×	×	×	×	×	
제조업	×	×	○	×	○	×	
폐기물, 환경복원	×	×	○	×	○	×	
도소매업	× ×	○	×	○	○	○	
운수업	○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출판, 영상, 정보 등	×	○	○	○	×	×	
부동산, 임대	×	○	○	○	×	○	
사업시설, 사업지원	×	○	○	○	○	×	
교육서비스	× ×	○	×	○	×	×	
예술, 스포츠, 여가	○	×	×	○	○	×	
협회, 수리, 개인	×	○	○	○	○	×	
평균	'11: 6,045 '15: 12,623	'11: 2,058 '15: 2,794	360,584	'11: 1,939 '15: 2,629	310,424	28,782	

주1) ◎ : 평균2배이상, ○ : 평균이상, × : 평균미만, ×× : 평균2배미만

주2) 원자재비와 사업운영경비, 산재보험료에 한하여 ◎ : 평균2배미만, ○ : 평균미만, × : 평균이상, ×× : 평균2배이상 으로 표기

주3) 연도별 자료는 해당 업종의 2011년 자료와 2015년 자료를 대조하여 산출함(단, 출판, 영상, 정보 등 업종은 2014년 최초 실시로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대조하여 산출함)

주4) 연도별 1인당 실수익 및 보수는 정부보조금 증가로 인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11년도 지원액인 130만원과 2015년도 지원액인 180~200만원(평균 190만원)을 적용하여 차액인 60만원을 제외한 후의 증감액으로 산출

주5) 월별 1인당 매출액 및 보수는 월별평균과 매월중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차이가 10만원이상인 경우 ×, 10만원 미만인 경우 ○로 표기

〈표 4〉 시장형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세부 업종별 운영실적 분석결과 요약

업종	고용창출 효과	연매출액	연간 원자재비	1인당 사업운영 경비	1인당 월실수익	1인당 연보수	연도별 연간 원자재비
(단위)	(개)	(천원)	(천원)	(원)	(원)	(원)	(천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	◎	◎	×	×	×
채소작물 재배업	×	××	◎	○	×	×	○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	×	×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	××	××	×	×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	×	○	○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	◎	◎	×	×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	×	×	×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	◎	◎	×	○	×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	○	◎	○	○	○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	×	×	×	×	○
늘찬 배달업	○	○	◎	○	○	○	××
한식음식점업	×	○	××	××	○	○	○
제과점업	×	○	×	×	×	×	○
비알콜 음료점업	×	×	×	○	×	×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	◎	×	○	○	×
포장 및 충전업	○	×	◎	◎	×	×	×
평균	19.9	56,015	16,234	957,719	526,149	3,443,117	'11: 16,004 '15: 16,234
업종	연도별 연간사업 운영경비	연도별 1인당 실수익	월별 1인당 매출액	연도별 1인당 연보수	월별 1인당 보수	산재 보험료	
(단위)	(천원)	(천원)	(원)	(천원)	(원)	(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	×	×	×	×	
채소작물 재배업	○	×	×	×	×	×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	○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	×	○	×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	○	○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	○	×	○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	○	×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	○	×	○	×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	×	○	×	○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	×	○	○	○	
늘찬 배달업	○	○	○	○	○	×	
한식음식점업	×	○	×	○	○	○	
제과점업	○	○	×	○	○	○	
비알콜 음료점업	×	○	○	○	○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	×	○	○	×	
포장 및 충전업	×	×	○	×	○	○	
평균	'11: 10,363 '15: 13,016	'11: 2,121 '15: 2,868	367,413	'11: 2,009 '15: 2,682	318,102	28,068	

주) 지면관계상 <표 3>의 주1)~주5)와 주석내용 동일하여 생략함.

- 노인적합 업종 개발 필요 : 아파트택배 등 실적이 우수하게 드러난 업종의 확대 전략과 함께, 사례분석 대상이었던 정보서비스업과 같이 시장형 내 소수업종 중 실적이 우수하게 드러난 업종들에 대한 분석 및 확대 필요. 특히, 농어촌 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개발 필요.

- 사업단당 참여노인 1인기준 180~200만원의 예산 지원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탈피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 1)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의 경우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예산을 축소하여 자립하는 방식, 2) 노인적합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환경개선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방식, 3) 매년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해주는 방식, 4)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전환 등의 자립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을 인정해 주는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임. 이 때,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접근 필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기금마련이 필요하며, 전담인력 지원책 마련 필요

- 시장형사업단의 로드맵 마련 필요 : 전문서비스형은 일부는 공익활동으로 재편하거나,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전문직종으로서의 공익서비스 성격을 강화하고, 일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수익 창출, 일부는 기존 시장형 세부업종과 통합, 일부는 업종 지속 추가개발 필요. 시장형사업단의 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고령자친화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설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일선 기관들이 사업단 ‘유지’ 보다는 ‘발전’ 과 ‘순환’ 을 택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전체 사업량 중 일부(약 10% 내외)에 한하여 수행주체 다양화 시범사업 추진 필요. 또한 그 외 사업단은 인건비, 사업비 지원을 통해 일정 정도 수익이 안정적인 사업단은 유지, 확대하고 최대 5년 이상 성과가 미미한 업종은 수행 제한조치 필요. 단, 지역별 산업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 필요

- ‘사회적 프랜차이즈’ 등 규모화전략 수립 필요 : 시장형사업의 영세성을 줄여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표준화된 품질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단, 이러한 규모화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기관특성 및 지역특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실적이 우수하게 드러나고 있는 아파트택배 등의 업종은 매뉴얼화하고 수행기관이 신규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단,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회적 프랜차이즈 노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필요

-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필요. 기존 시장형사업단 중 고정적으로 공공구매 실적이 있는 사업단들을 추적하여 주요한 공공구매 유형을 분석, 이를 공식적으로 중앙단위의 협의 및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대할 필요.

- 참여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비노인 인력 활용전략 수립 등 시장형사업단 인력관리 전략 수립 필요하되, 행정적 칸막이 사전 해소 필요

1. 시장형 사업 현황과 이슈

1) 시장형 사업 개요

시장형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가 시작된 해인 2004년부터 지속되어 온 유형이다. 시장형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16).

시장형 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된 이후 2008년 ‘민간분야 강화 및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라는 노인일자리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인큐베이터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중 시장Ⅰ형은 사업을 연간 계속 운영하면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여 정부지원금 외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이며, 시장Ⅱ형은 사업초기에는 초기투자비 등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나 일정 기간 이후 사업단의 자체수익만으로도 사업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자립이 예측되는 일자리이다. 점차 시장Ⅰ형의 비율을 축소시키고 시장Ⅱ형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되었다. 2009년에는 시장Ⅱ형을 창업모델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초기투자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구매력 있는 노인세대의 등장에 대비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창업모델형은 뚜렷한 성과 및 출구전략을 도출하지 못하고 곧 폐지되었다. 2012년에는 시장형을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으로 구분하고, 제조판매형의 1인당 지원금액을 150만원으로 증액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1인당 지원금액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 2016년에는 기존의 학교 CCTV 모니터링, 거리환경 개선 등 공익활동 8개 프로그램을 시장형 내 전문서비스형을 신설하여 시장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에 따라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현재 시장형사업단은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세부사업들의 예시는 다음 <표 1-1>과 같다.

시장형사업단은 전체의 65% 가량을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 체계 상에서 시니어클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노인복지관(13.0%), 대한노인회(9.1%) 등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6년 전문서비스형 신설로 기존 공익활동의 많은 사업단이 시장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비중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2016년도 시장형사업단 유형 및 세부사업

종류	세부사업
공동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지역농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제조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전문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모니터링, 주정차질서 계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

2) 시장형 사업의 주요 이슈

시장형 사업은 첫째로 고용의 질의 주요 요소인 ‘소득’과 ‘고용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유형이다(박경하, 2012). 즉, 시장형은 생계비 욕구가 강한 노인에게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보전 측면에서, 또한 연중 운영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지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시장형의 목표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지은(2006)은 높은 노동강도 대비 초기자본 및 정부지원금 부족으로 사업의 목표인 자립여건 자체가 조성될 수 없고 연중운영을 목표로 함에도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지원금의 규모가 다른 유형과 차등없는 수준으로까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지만(2008년부터 2015년까지 1인당 지원금이 약 68.1% 증가), 시장형 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시장형 사업은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을 전개하므로 매출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지원예산이 적은 것은 수행기관에게는 부담이다(남기철, 2010). 특히 예산 중에서도 인건비 지원 부족에 대한 부담보다는 초기투자비, 사업비 부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하세윤·이현미, 2013). 시장형사업이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유형에 비해 설비나 재료비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공익활동처럼 1개 사업단당 참여자수를 대규모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을 규모화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표 1-2〉 연도별 시장형사업단 지원금액 및 참여자수 변화

(단위 : 만원,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 금액	공익활동	140(+11~15)					180(+12~16)		180(+14)	
	시장형	119	130	130	130	130~150	180~200		180~200	194~200
시장형 사업량		11,530	17,757	15,984	15,486	16,190	17,685	19,764	22,889	60,460 (목표)

주 1) 공익활동은 9개월 사업 기준(12개월 연중일자리사업은 2013년부터 시범 실시, 부대경비 16만원)

2) 공익활동의 괄호안 금액은 부대경비를 의미

시장형 사업은 수익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된 수익이 창출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참여자의 보수가 타 유형의 고정활동비에 비해 적을 가능성을 우려한 주장도 있다(박경하, 2013). 그 이유는 타 유형은 지침에 따라 활동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을 위한 경비는 부대경비에서 사용하도록 활동비와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만, 시장형은 사업단의 운영경비와 보수가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함께 지원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또는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운영경비가 많이 들거나, 수익확보가 어려울 경우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보수수준이 감소하는 반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시장형사업단의 수익성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가격산정 수준과도 직결된다. 원가 미만이거나 원가 수준으로 가격이 산정된다면 결국 수익성은 0 또는 (-)가 되어 결국 참여노인들의 보수 감소와 연결될 수 있다. 실제 원가 이하로 판매가격이 설정되는 경우가 35% 가량 존재하고 있다(하세윤·이현미, 2013).

〈표 1-3〉 시장형의 생산 제품(서비스) 가격산정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투입원가 미만	11	5.9
투입원가 수준	55	29.4
(투입원가+일반관리비) 수준	77	41.2
(투입원가+일반관리비+마진) 수준	44	23.5
전체	187	100.0

주) 무응답 8케이스 제외

자료 : 하세윤·이현미(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노인일자리 내 많은 유형이 저소득층 우선 선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형은 관련 유사자격증 소지시, 또는 관련분야 종사경험시 더욱

유리한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6), 고용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형사업단은 인력파견형과 함께 공익, 교육, 복지형에 비해 생존율이 떨어지고 위험률이 높았다(박경하, 2012). 즉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있을 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 선발 측면에서의 고용 지속성을 보더라도 기존 참여자, 즉 경력자를 우선선발한다는 비율은 7.1%에 불과하였고, 소득수준에 의거하여 참여자를 선발한다는 비중이 33.1%로 높게 나타나(하세운·이현미, 2013) 지속 고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2016년부터는 전문서비스형의 신설로 참여자의 고용 지속성 정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표 1-4〉 사업유형별 참여자 주요 선발기준

(단위 : 개, %)

구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전체
경제(소득수준)	빈도	694	379	431	258	83	1,845
	비율	33.3	32.8	33.7	33.1	35.3	33.4
자격증유무, 경력 및 전문성	빈도	551	322	344	214	54	1,485
	비율	26.5	27.9	26.9	27.5	23.0	26.9
가구형태(독거노인 우선)	빈도	90	48	36	28	9	211
	비율	4.3	4.2	2.8	3.6	3.8	3.8
기존 참여자 우선	빈도	178	109	117	55	18	477
	비율	8.6	9.4	9.2	7.1	7.7	8.6
신규 참여자 우선	빈도	150	71	108	75	17	421
	비율	7.2	6.1	8.5	9.6	7.2	7.6
자원봉사 경력	빈도	36	21	32	11	2	102
	비율	1.7	1.8	2.5	1.4	.9	1.8
활동장소 접근성(교통편의)	빈도	277	152	156	103	36	724
	비율	13.3	13.1	12.2	13.2	15.3	13.1
기타	빈도	105	54	54	35	16	264
	비율	5.0	4.7	4.2	4.5	6.8	4.8
전체	빈도	2,081	1,156	1,278	779	235	5,52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사업단기준 무응답 176케이스 제외

자료 : 하세운·이현미(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둘째로 노동강도 문제이다. 시장형 참여자들은 주당 근로일수가 3.5일로 공익활동 참여자에 비해 길고, 일일 근로시간 역시 평균 4.6시간으로 공익활동 참여자에 비해 길다. 이를 주당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5.9시간으로, 공익형 9.8시간, 교육형 8.3시간, 복지형 9.6시간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편이다(하세운·이현미, 2013).

〈표 1-5〉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주당 근로시간 현황

(단위 : %, 시간)

구분	범주별 비율					평균 주당근로시간	
	4시간 이하	4-8 시간	8-12 시간	12-40 시간	40시간 초과	평균	표준 편차
공익형	1.3	6.8	86.0	5.8	.1	9.8	3.2
교육형	9.0	31.6	56.6	2.8	.0	8.3	3.2
복지형	1.5	10.7	82.0	5.8	.0	9.6	2.8
시장형	3.8	11.0	45.2	37.1	2.9	15.9	11.0
인력파견형	2.0	3.1	12.4	57.1	25.5	33.1	18.5
전체	2.4	10.6	78.7	7.8	.6	10.2	5.4

주 1) 인력파견형은 일회성파견형을 제외한 지속파견형만 포함하였음

자료 : 하세윤·이현미(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러나 장시간 근로는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남기철, 2009; 박경하 외, 2013). 시간당 급여수준을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공익형 5,388원, 교육형 7,306원, 복지형 5,812원에 비해 시장형은 4,994원으로 모든 유형 중 시간당 급여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세윤·이현미, 2013). 시장형 참여노인에게 높은 노동력 수준이 요구되고, 장시간 및 장기간 근로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수준은 낮고, 이에 따라 생계형 욕구가 있는 노인이 시장형보다는 공익형 사업 참여를 선호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표 1-6〉 사업유형별 근로시간당 급여수준 평균비교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F
공익형	5387.7	2389.7	2>3>4 5>1	1369.0***
교육형	7305.9	5963.9		
복지형	5811.8	6264.6		
시장형	4993.7	4250.0		
인력파견형	5484.3	4100.0		
전체	5671.8	4108.1		

주) 1개월을 4주로 간주하여 산출함

***p<.001

자료 : 하세윤·이현미(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셋째로, 시장형사업단의 역량 문제이다. 이는 이미 시장 내 포화상태인 업종 자체의 한계와 동종 업종내에서도 전문성, 기술력이 부족한 문제, 노인에 대한 편견 등으

로 판로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이지은, 2006). 다른 유형에 비해 실무자의 업무투입이 많고, 실무자 및 참여자의 경영학적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나 복지관련 기관 중사자임에 따라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수준도 보통이며, 특히 사업기초 인프라, 유통경로 및 판로확보나 생산량, 재정적 기반 등 인프라나 유통 측면에서 시장형사업단의 취약점에 대해 종사자들 역시 인식하고 있다(하세윤·이현미, 2013). 따라서 실무자 교육 및 경영자문 강화, 다양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통해 시장형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왔다(이지은, 2006).

〈표 1-7〉 시장형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수준

구분	(단위 : 점)	
	평균	표준편차
1) 사업기초 인프라	2.7	0.8
2) 서비스·제품 품질	3.5	0.9
3) 가격경쟁력	3.4	1.0
4) 유통경로/판로확보	2.8	0.9
5) 생산량(규모)	2.8	0.8
6) 재정적 기반	2.6	0.8
7) 서비스·제품 고객 만족도	3.7	0.8
8) 생산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인지도	3.5	0.8
9) 전반적 경쟁력	3.1	0.8

주) 무응답 8케이스 제외

자료 : 하세윤·이현미(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넷째로, 아이템 개발, 즉 업종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장형의 업종은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식품제조업이나 공동작업장, 아파트택배 및 지하철택배 비율이 높고 농어촌의 경우 지역영농사업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어 대체로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하고는 있으나 업종이 단조로운 편임을 지적하였다(김경휘, 2011). 즉 대부분 제조업, 서비스업, 영농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자의 인적배경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사업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아이টে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단을 구성, 또는 설립한 후 참여자를 모으는 실정으로, 사업의 다양화보다는 단순한 참여자 수 채우기, 성과중심으로 치우치기 쉬운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김경휘, 2011). 한편, 기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던 업종으로 시장경쟁에 뛰어들 경우에는 시장경쟁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경쟁에서 성공하더라도 타 저임금 사업단,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한 우

려도 있다(김경휘, 2011).

세부 사업유형별로는 다음의 이슈들이 존재한다.

공동작업형은 노동능력이 높지 않고 고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후기 고령자에게 적합한 아이템이며, 전국적 작업장 근무여건이나 수익현황을 파악하여 산업체를 연결하거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건비 지원보다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이지은, 2006). 현재는 타 시장형 유형의 예산지원방식과 마찬가지로 1인당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환경 개선에는 제도적으로 소홀해 왔다. 또한 지역별 산업특성과 관련 있는 일감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노하우 전수가 중요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 기관의 역량에 맡겨온 것이 사실이다.

제조판매형에 대해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시장형 운영시 애로점으로 초기투자비용 및 사업비 지원의 부족과 더불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판로개척의 어려움’이다(하세운·이현미, 2013). 제조판매형에서는 업종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판매의 확실성이 예측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서비스형의 경우 기존 공익활동에서 수행하던 모니터링, 주차차질서 제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등의 사업아이템으로 그 자체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면서도 시장형으로서의 가치, 즉 수익을 발생시켜 보조금 외의 부가적 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쟁점이 대두될 수 있다.

3) 시장형 사업 현황

분석에 활용된 2015년 시장형사업단은 총 1,023개, 누적참여자 22,907명이다. 사업단 수 기준 경기도가 186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전체의 18.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서울(109개), 강원(98개) 순으로 많은 사업단을 운영하였다. 참여자 수 기준으로 역시 경기도가 3,793명으로 전체의 16.6%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14.0%, 부산 1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2015년 시도별 시장형사업단 및 참여노인 수

(단위 : 개, 명, %)

시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시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109	10.7	3,201	14.0	울산	14	1.4	265	1.2
강원	98	9.6	2,048	8.9	인천	37	3.6	1,365	6.0
경기	186	18.2	3,793	16.6	전남	60	5.9	1,082	4.7
경남	54	5.3	972	4.2	전북	69	6.7	1,044	4.6
경북	75	7.3	1,512	6.6	제주	13	1.3	235	1.0
광주	37	3.6	763	3.3	충남	55	5.4	1,088	4.7
대구	53	5.2	984	4.3	충북	52	5.1	1,019	4.4
대전	34	3.3	916	4.0	세종	2	0.2	22	0.1
부산	75	7.3	2,598	11.3	계	1,023	100.0	22,907	100.0

대도시(광역시), 중소도시(일반시단위), 농어촌(군단위)별로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 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1개 시군구당 약 113.8명의 노인이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대도시(광역시)가 134.9명, 중소도시(일반시)가 132.1명으로 참여자수가 많은 편이었으며, 농어촌 지역(군단위)에서는 1개 도시 내 시장형 참여자수가 60.3명으로 다소 적게 나타났다. 전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중 시장형 참여자 비중은 11~14%로 지역규모별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2015년 지역규모별 시장형 참여노인 수 및 비중

(단위 : 명, %)

구분		시장형 참여자수		전체 중 시장형 참여자 비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시	132.1	99.5	12.9	6.3
	군	60.3	49.8	11.4	8.6
규모	구	134.9	58.2	13.9	6.9
계		113.8	83.6	12.8	7.2

수행기관 유형별로는 기관당 평균 2.9개의 시장형사업단을 운영하였고, 참여자수는 기관당 평균 65.4명으로 나타났다.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의 주된 주체로서, 1개 시니어클럽 당 5.4개의 시장형사업단을 운영하였으며, 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등은 1.5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수 기준으로 보아도 시니어클럽이 119.9명으로 기관당 참여자수가 가장 많았다. 대한노인회는 46.5명 수준이었으며, 노인복지관은 25.5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 2015년 수행기관 유형별 시장형사업단 수 및 참여노인 수

(단위 : 개, 명)

구분		시장형사업단수		시장형 참여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관 유형	지자체	2.0	1.0	26.3	12.1
	시니어클럽	5.4	2.3	119.9	55.4
	대한노인회	1.5	0.8	46.5	36.2
	노인복지관	1.5	0.9	25.5	25.8
	종합사회복지관	1.5	0.7	24.0	17.7
	노인복지센터	1.5	0.6	27.1	24.8
	지역문화원	2.0	-	26.0	-
	기타	1.9	1.3	53.5	59.9
계		2.9	2.4	65.4	59.8

4) 보고서의 구성

시장형사업단의 업종별 분석을 위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에서 간략히 시장형사업의 개요와 그간 제기되었던 주요 이슈, 시장형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노인일자리에서의 ‘업종’과 관련된 현황을 소개하고, 기존 시장형사업단의 업종을 재분류 하는 과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시장형사업단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인 새누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형사업단을 사업단과 참여노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용창출효과, 소득, 안정성, 기타사항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며 2015년 시장형사업단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별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양적분석 결과로는 설명이 부족한 질적 요소들을 업종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우수 사업단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6장에서는 간략한 제언을 덧붙였다.

2. 노인 종사업종 특성과 시장형 업종별 현황

1) 노인 종사업종의 특성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4.9%, ‘도소매·음식숙박업(20.1%)’, ‘농림어업(15.1%)’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65세에서 79세로 연령대를 한정할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농림어업의 비중이 28.9%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의 비중은 6.0%로 매우 낮았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의 분포, 즉 농림어업 종사자는 5.4%에 불과하고 제조업 17.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비중이 11.6%로 나타나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표 2-1〉 취업중인 고령자의 산업분포

(단위: 천명, %)

	2016. 5						
	55~79세		55~64세		65~79세		전체 ¹⁾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 전 체 >	6,660	100.0	4,591	100.0	2,069	100.0	100.0
○ 농림어업	1,008	15.1	411	9.0	597	28.9	5.4
○ 광업·제조업	743	11.2	619	13.5	124	6.0	17.1
- 제조업	737	11.1	613	13.4	123	6.0	17.1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908	73.7	3,561	77.6	1,348	65.1	77.4
- 건설업	539	8.1	467	10.2	71	3.5	7.0
- 도소매 · 음식숙박업	1,341	20.1	1,017	22.2	324	15.6	22.5
-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	2,325	34.9	1,522	33.2	803	38.8	36.3
-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703	10.6	554	12.1	149	7.2	11.6

1) 15세 이상 취업자 전체의 산업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2016).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중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지도사업은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도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때 기준은 업종별로 편차가 있는데, 고령자 다수고용업종에는 보다 높은 기준비율을, 고령자가 고용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는 다소 낮은 기준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그 외 산업은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3%의 비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노인의 종사업종과 관계된 유일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적합업종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앙대와 함께 IT서비스업, 경영기술컨설팅업 등 20개의 시니어 창업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의 시장트렌드와 세부 업종별 업종현황 및 수익 전망, 성장성 및 안정성 전망 등을 분석하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중앙대·중소기업연구원, 2011). 기존 연구나 정책적 제안들은 모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종 중심의 접근이 대부분으로, 고용노동부나 서울시 등에서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200; 서울시복지재단, 2013).

2) 시장형 업종 재분류 방법 및 업종별 현황

(1) 업종 재분류 방법

분석단위가 되는 2015년 운영된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세부유형이 분류되고는 있으나 명확한 업종분류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분석해보기 위해, 2015년 각 사업단이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재분류하였다. 분류 과정에서 여러 업종을 동시 수행하는 경우, 즉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등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단이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되,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였다.

업종별 재분류 결과는 다음 <표 2-2>와 같다. 먼저, 농업으로 분류된 사업단은 크게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으로 분류된다.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등을 재배하는 산업으로, 시장형사업단에서는 주로 감자, 고구마, 벼, 콩, 깨 등의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 채소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된 사업단에서는 양파, 나물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많지는 않으나 분재 재배 등의 화훼작물 재배와 묘목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추, 매실, 무화과 등의 과실작물과 고추 등의 향신용 작물 재배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작물재배로는 콩나물 재배가 대표적이다. 축산업으로는 양봉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시장형사업단 내에서도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고 있다. 먼저, 식료품 제조업에는 공동작업장 형태로 운영하면

서 간단한 건어물 제조와 김 등 수산식물을 말려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일 및 채소를 쥘이나 청, 절임 등으로 가공, 저장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기름을 함유한 식물성 물질로부터 참기름 등의 유지를 제조하는 활동이나 쌀 도정, 쌀과자 제조, 된장 등 각종 장류나 꿀 등 식품 첨가물 제조, 잎차 등 차류 가공업이나 두부 제조 등이 식료품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다. 섬유의 염색이나 이불, 베개커버 제작 및 의류 제조업 등도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목재생활용품이나 짚풀공예품 등의 제작도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작업장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활동 중 하나인 쇼핑백 제작 및 자동차부품 조립도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다. 전기기기 제조업은 각 전자제품의 다양한 공정 중 간단한 조립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대부분 파지, 의류, 공병 등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운반하는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소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형사업단에서는 도매업은 주로 농산물 유통을, 소매업으로는 음식료품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나 노인일자리 생산품 등을 일정한 공간에서 판매하는 소규모 종합소매업이나 곡물, 수산물, 과일 및 채소 등으로 품목을 한정하여 일정한 공간에서 판매하는 품목별 소매업, 재활용 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기증받은 중고의류나 물품 등을 재판매하는 중고상품 소매업, 점포 없이 장터 등의 행사에서 임시매장을 개설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의 활동이 있다.

운수업에는 소화물을 근거리에서 집하, 배달하는 아파트택배업이나 도시지역내 지하철을 이용하여 소화물을 배달하는 지하철택배, 주차장운영업 등이 존재한다.

숙박업에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업이 있다.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이 없더라도 음식물을 조리하여 주문자에게 배달하는 활동,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활동 등이 포함되는데, 공공시설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반찬가게 등을 운영하는 사업, 만두나 김밥 등의 분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전문점과 빵이나 케익, 생과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제과점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장형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실버카페가 비알콜 음료점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이는 북카페, 베이커리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서비스업에는 온라인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업에는 자전거를 임대하는 사업단이 있다.

사업시설 관리업에는 사업시설의 경비, 청소, 우편물관리, 시설점검 및 유지수리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건물의 내외부 청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독이나 구충 등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인력과견업 형태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단이나 공동작업장에서 물품을 단순 포장하는 활동 등이 있다.

키즈카페나 체험학습장,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자동차 세차 및 자전거 수리 등의 활동이 수리업으로 분류되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두발미용업과 세탁소 운영업 등이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시장형사업단을 재분류함을 통하여, 사업지침의 유형 대분류로는 명확하게 활동내용을 판단하기 힘든 아이템이나 개별 기관에서 사업단별로 명명한 사업단명만으로는 활동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아이템, 여러 활동을 동시 수행함으로써 산업분류가 어려웠던 아이템 등을 업종별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표 2-2〉 시장형 업종 재분류 결과

대	중	소	세	세세
농림 어업	농업	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과실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축산업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재배업
기타 축산업	그외 기타 축산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곡물 도정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차류 가공업		

대	중	소	세	세세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직물포대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편조제품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표면광택제 및 실내방향제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 선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사용 모형 제조업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폐기물, 환경 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도 소	도매 및 상품중개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비가공 식품 도매업	과실 및 채소 도매업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대	중	소	세	세세
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식료품 소매업	곡물 소매업 수산물 소매업 과실 및 채소 소매업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문구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그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중고상품 소매업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늘칸 배달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 점업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관구내식당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출판, 영상, 정보등	정보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임대업: 부동산 제외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사업 시설 관리 ,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인력 공급업	인력 공급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교육기관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예술 스포츠 여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현회 수리및 개인 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세차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미용 및 미용업	두발미용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가정용 세탁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2) 업종별 현황

분석대상인 2015년 1,023개의 시장형사업단 중 제조업이 333개로 전체 사업단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5개로 전체 사업단의 27.9%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었는데, 군단위 농어촌 지역은 농림어업이 34개 사업단으로, 전체 148개 사업단 중 23.0%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은 대신 운수업(19.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1.8%)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소도시 단위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31.4%)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도소매업(7.0%)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2-3〉 2015년 지역규모별 시장형 업종분포

(단위 : 개, %)

		지역규모			계
		시	군	구	
업종	농림어업	36 6.8%	34 23.0%	9 2.6%	79 7.7%
	제조업	170 32.1%	53 35.8%	110 31.8%	333 32.6%
	폐기물, 환경복원	25 4.7%	4 2.7%	7 2.0%	36 3.5%
	도소매업	37 7.0%	8 5.4%	17 4.9%	62 6.1%
	운수업	25 4.7%	2 1.4%	69 19.9%	96 9.4%
	숙박 및 음식점업	166 31.4%	40 27.0%	79 22.8%	285 27.9%
	출판, 영상, 정보 등	1 .2%	0 .0%	0 .0%	1 .1%
	부동산, 임대	1 .2%	0 .0%	0 .0%	1 .1%
	사업시설, 사업지원	45 8.5%	5 3.4%	41 11.8%	91 8.9%
	교육서비스	0 .0%	0 .0%	1 .3%	1 .1%
	예술, 스포츠, 여가	4 .8%	2 1.4%	2 .6%	8 .8%
	협회, 수리, 개인	19 3.6%	0 .0%	11 3.2%	30 2.9%
	계	529 100.0%	148 100.0%	346 100.0%	1,023 100.0%

시도별로는 충남(20.0%), 강원(19.4%), 경북(18.7%), 전남(16.7%) 등이 타시도에 비해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경우 인천(48.6%), 경남(42.6%), 충남(40.0%) 등

의 시도에서 다소 비중이 높았다. 대전, 부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운수업의 비중이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46.2%), 충북(42.3%), 경기(39.2%) 등의 시도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2-4〉 2015년 시도별 시장형 업종분포

(단위 : 개, %)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서울	1 .9%	35 32.1%	4 3.7%	8 7.3%	21 19.3%	26 23.9%	0 .0%	0 .0%	9 8.3%	1 .9%	0 .0%	4 3.7%	109 100.0%
강원	19 19.4%	22 22.4%	2 2.0%	11 11.2%	1 1.0%	33 33.7%	0 .0%	1 1.0%	2 2.0%	0 .0%	2 2.0%	5 5.1%	98 100.0%
경기	1 .5%	73 39.2%	6 3.2%	5 2.7%	10 5.4%	73 39.2%	1 .5%	0 .0%	10 5.4%	0 .0%	1 .5%	6 3.2%	186 100.0%
경남	3 5.6%	23 42.6%	1 1.9%	2 3.7%	5 9.3%	11 20.4%	0 .0%	0 .0%	5 9.3%	0 .0%	1 1.9%	3 5.6%	54 100.0%
경북	14 18.7%	17 22.7%	10 13.3%	6 8.0%	4 5.3%	15 20.0%	0 .0%	0 .0%	7 9.3%	0 .0%	0 .0%	2 2.7%	75 100.0%
광주	4 10.8%	11 29.7%	0 .0%	4 10.8%	6 16.2%	9 24.3%	0 .0%	0 .0%	3 8.1%	0 .0%	0 .0%	0 .0%	37 100.0%
대구	0 .0%	19 35.8%	2 3.8%	3 5.7%	8 15.1%	11 20.8%	0 .0%	0 .0%	8 15.1%	0 .0%	0 .0%	2 3.8%	53 100.0%
대전	1 2.9%	12 35.3%	0 .0%	1 2.9%	9 26.5%	3 8.8%	0 .0%	0 .0%	8 23.5%	0 .0%	0 .0%	0 .0%	34 100.0%
부산	3 4.0%	17 22.7%	1 1.3%	3 4.0%	20 26.7%	16 21.3%	0 .0%	0 .0%	8 10.7%	0 .0%	3 4.0%	4 5.3%	75 100.0%
울산	0 .0%	4 28.6%	1 7.1%	0 .0%	1 7.1%	5 35.7%	0 .0%	0 .0%	3 21.4%	0 .0%	0 .0%	0 .0%	14 100.0%
인천	0 .0%	18 48.6%	0 .0%	0 .0%	5 13.5%	10 27.0%	0 .0%	0 .0%	3 8.1%	0 .0%	0 .0%	1 2.7%	37 100.0%
전남	10 16.7%	21 35.0%	0 .0%	5 8.3%	2 3.3%	16 26.7%	0 .0%	0 .0%	6 10.0%	0 .0%	0 .0%	0 .0%	60 100.0%
전북	6 8.7%	23 33.3%	3 4.3%	7 10.1%	1 1.4%	17 24.6%	0 .0%	0 .0%	10 14.5%	0 .0%	1 1.4%	1 1.4%	69 100.0%
제주	1 7.7%	3 23.1%	0 .0%	2 15.4%	0 .0%	6 46.2%	0 .0%	0 .0%	1 7.7%	0 .0%	0 .0%	0 .0%	13 100.0%
충남	11 20.0%	22 40.0%	3 5.5%	2 3.6%	3 5.5%	11 20.0%	0 .0%	0 .0%	3 5.5%	0 .0%	0 .0%	0 .0%	55 100.0%
충북	5 9.6%	12 23.1%	3 5.8%	3 5.8%	0 .0%	22 42.3%	0 .0%	0 .0%	5 9.6%	0 .0%	0 .0%	2 3.8%	52 100.0%
세종	0 .0%	1 50.0%	0 .0%	0 .0%	0 .0%	1 50.0%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0%
계	79 7.7%	333 32.6%	36 3.5%	62 6.1%	96 9.4%	285 27.9%	1 .1%	1 .1%	91 8.9%	1 .1%	8 .8%	30 2.9%	1023 100.0%

1: 농림어업, 2: 제조업, 3: 폐기물, 환경복원, 4: 도소매업, 5: 운수업, 6: 숙박 및 음식점업, 7: 출판, 영상, 정보 등, 8: 부동산, 임대, 9: 사업시설, 사업지원, 10: 교육서비스, 11: 예술, 스포츠, 여가, 12: 협회, 수리, 개인

수행기관 유형별로도 운영하고 있는 업종은 약간의 편차가 있다. 시장형사업단의 65%를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는 전체 업종별 분포와 유사한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노인회는 농림어업이 23.4%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높았고, 제조업 역시 44.7%로 높은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5.3%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은 제조

업의 비중이 24.9%, 농림어업의 비중이 4.1%로 다소 낮은 대신, 숙박 및 음식점업이 48.5%로 높은 비중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타 유형의 기관들은 제조업 비중이 41.8%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 2015년 기관유형별 시장형 업종분포

(단위 : 개, %)

		기관유형				계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업종	농림어업	45 6.7%	22 23.4%	7 4.1%	5 5.5%	79 7.7%
	제조업	211 31.5%	42 44.7%	42 24.9%	38 41.8%	333 32.6%
	폐기물, 환경복원	30 4.5%	3 3.2%	0 .0%	3 3.3%	36 3.5%
	도소매업	44 6.6%	2 2.1%	9 5.3%	7 7.7%	62 6.1%
	운수업	65 9.7%	9 9.6%	16 9.5%	6 6.6%	96 9.4%
	숙박 및 음식점업	176 26.3%	5 5.3%	82 48.5%	22 24.2%	285 27.9%
	출판, 영상, 정보 등	1 .1%	0 .0%	0 .0%	0 .0%	1 .1%
	부동산, 임대	1 .1%	0 .0%	0 .0%	0 .0%	1 .1%
	사업시설, 사업지원	64 9.6%	10 10.6%	10 5.9%	7 7.7%	91 8.9%
	교육서비스	1 .1%	0 .0%	0 .0%	0 .0%	1 .1%
	예술, 스포츠, 여가	8 1.2%	0 .0%	0 .0%	0 .0%	8 .8%
	협회, 수리, 개인	23 3.4%	1 1.1%	3 1.8%	3 3.3%	30 2.9%
	계	669 100.0%	94 100.0%	169 100.0%	91 100.0%	1023 100.0%

사업단의 운영년수는 사업단의 질적 성과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2015년에 신규로 운영된 시장형사업단은 총 220개로, 전체의 약 21.5%에 달한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75개 사업단, 제조업의 56개 사업단이 신규로 운영되었다. 운수업도 25개 사업단이 신규로 운영되었다.

〈표 2-6〉 업종별 신규/계속사업 분포

(단위 : 개, %)

		신규사업		계속사업		계	
		빈도	%	빈도	%	빈도	%
업종	농림어업	22	10.0	57	7.1	79	7.7
	제조업	56	25.5	277	34.5	333	32.6
	폐기물, 환경복원	5	2.3	31	3.9	36	3.5
	도소매업	9	4.1	53	6.6	62	6.1
	운수업	25	11.4	71	8.8	96	9.4
	숙박 및 음식점업	75	34.1	210	26.2	285	27.9
	출판, 영상, 정보 등	0	0.0	1	0.1	1	0.1
	부동산, 임대	0	0.0	1	0.1	1	0.1
	사업시설, 사업지원	18	8.2	73	9.1	91	8.9
	교육서비스	0	0.0	1	0.1	1	0.1
	예술, 스포츠, 여가	3	1.4	5	0.6	8	0.8
	협회, 수리, 개인	7	3.2	23	2.9	30	2.9
계		220	100.0	803	100.0	1,023	100.0

(3) 세부업종별 현황

2015년 운영된 시장형사업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분류시 12개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 그 중 운영빈도가 매우 적은 사업단, 또한 운영빈도는 적지 않으나 유형내 업종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5개 대분류에 대해 세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세부 유형별 분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아래 <표 2-7>에서는 시장형사업에서 가장 다수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의 세부 업종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종이상자 접지 등 공동작업장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이 22.2%로 제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누, 세제 등을 제조하는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이 9.9%로 나타났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8.7%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밖에도 식품 제조, 수산동물 및 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등 식품과 관계된 다양한 제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공동작업장에서는 반제품을 납품해주는 수요처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수주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제조업내 비중은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표 2-7〉 2015년 시장형 제조업 세부업종 분포

(단위 : 개, %)

세부업종	빈도	%	세부업종	빈도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	.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5	1.5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	4.5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74	22.2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	3.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33	9.9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5	7.5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1	.3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1	6.3	일반도자기 제조업	1	.3
곡물가공품 제조업	16	4.8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1	.3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	3.0	금속파이버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1	.3
기타 식료품 제조업	26	7.8	기타 전자제품 제조업	3	.9
식물제품 제조업	7	2.1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	.3
편조제품 제조업	5	1.5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6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	.3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9	8.7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	.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	.3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6	4.8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	.9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	.3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4	1.2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2	.6	가발, 장식용품 및 교사용 모형 제조업	1	.3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5	1.5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6	1.8
			계	333	100.0

도소매업은 주로 음식료 위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생산품이나 타상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점과 식료품 소매업, 재활용가게 등 중고상품 소매업 등이 비교적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인 실버카페가 속한 '비알콜 음료점업'사업단이 144개로 가장 다수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음식점, 제과점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8〉 2015년 시장형 도소매업 세부업종 분포

(단위 : 개, %)

세부업종	빈도	%	세부업종	빈도	%
비가공 식품 도매업	3	4.8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2	3.2
가공식품 도매업	1	1.6	의약품, 의료용 가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2	3.2
음식료 위주 종합 소매업	27	43.5	그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	4.8
식료품 소매업	8	12.9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2	3.2
(곡물 소매업)	4	6.5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1	1.6
(과실 및 채소 소매업)	2	3.2	중고상품 소매업	13	21.0
(수산물 소매업)	2	3.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3	4.8
			계	62	100.0

〈표 2-9〉 2015년 시장형 숙박 및 음식점업 세부업종 분포

(단위 : 개, %)

세부업종	빈도	%	세부업종	빈도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	.4	일반 음식점업	96	33.7
기타 음식점업	38	13.3	기관구내식당업	5	1.8
(제과점업)	23	8.1	주점업	1	.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15	5.3	비알콜 음료점업	144	50.5
			계	285	100.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는 제조업처럼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아닌 단순포장 등의 공동작업장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청소사업단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 중에서는 이용업이 43.3%,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이 36.7%로 가장 다수 운영되고 있다.

〈표 2-10〉 2015년 시장형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세부업종 분포

(단위 : 개, %)

세부업종	빈도	%	세부업종	빈도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	2.2	인력 공급업	2	2.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27.5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53	58.2
(건축물 일반청소업)	22	22.0	(포장 및 충전업)	49	49.0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3	3.0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4	4.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9	9.9	계	91	100.0

〈표 2-11〉 2015년 시장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부업종 분포

(단위 : 개, %)

세부업종	빈도	%	세부업종	빈도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11	36.7	세탁업	4	13.3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1	3.3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개인 서비스업	1	3.3
이용 및 미용업	13	43.3	계	30	100.0

시장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 중 10개 이상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세부 유형별 분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1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은 총 25개 세부사업, 총 861개 사업단이며, 전체 시장형사업단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누적참여자 기준으로 19,671명이

참여하여, 전체 참여노인의 85.9%가 25개 세부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단 및 참여노인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25개 세부사업 내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표준산업분류로 보았을 때 가장 다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실버카페 등의 비알콜 음료점업으로, 총 144개 사업단, 1,79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음식점업은 96개 사업단, 1,618명이 참여하였으며,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등의 배달업이 94개 사업단, 2,74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은 74개 사업단이 운영되어 네 번째로 다수 운영되었지만, 참여자수 기준으로는 3,517명으로 가장 다수의 노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개 사업단당 참여노인수가 다른 세부업종에 비해서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2〉 2015년 10개 이상 운영된 시장형사업단 세부업종 현황(사업단수 내림차순)

(단위 : 개, %, 명)

대분류	세세분류	사업단수		참여자수	
		빈도	%	빈도	%
숙박 및 음식점업	1. 비알콜 음료점업	144	14.1	1,792	7.8
	2. 한식음식점업	96	9.4	1,618	7.1
운수업	3. 늘찬 배달업	94	9.2	2,745	12.0
제조업	4.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74	7.2	3,517	15.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포장 및 충전업	49	4.8	1,524	6.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6	3.5	1,171	5.1
제조업	7.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32	3.1	449	2.0
	8.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30	2.9	896	3.9
	9.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9	2.8	993	4.3
도소매업	10.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7	2.6	408	1.8
제조업	11.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4	2.3	589	2.6
숙박 및 음식점업	12. 제과점업	23	2.2	353	1.5
농림어업	13. 채소작물 재배업	22	2.2	395	1.7
제조업	13.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22	2.2	401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건축물 일반 청소업	22	2.2	583	2.5
제조업	16. 식물성 유지 제조업	21	2.1	284	1.2
	17.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	1.5	411	1.8
	17.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5	1.5	195	.9
숙박 및 음식점업	17. 분식 및 김밥 전문점	15	1.5	179	.8
제조업	20.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3	1.3	159	.7
도소매업	20.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13	1.3	203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두발미용업	13	1.3	157	.7
	23. 자동차 세차업	11	1.1	140	.6
제조업	23.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	1.1	150	.7
농림어업	25. 과일작물 재배업	10	1.0	359	1.6
계		861	84.2	19,671	85.9
전체 계		1,023	100.0	22,907	100.0

표준산업분류로 보았을 때 시장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 중 10개 이상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세부 업종의 사업단당 참여자수는 다음 <표 2-13>과 같다. 공동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종이포대 및 가방제조업’이 1개 사업단 내 47.5명으로 가장 많은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과실작물 재배업(35.9명), 자동차부품 제조업(34.2명) 등이 1개 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수집운반업(32.5명), 포장 및 충전업(31.1명)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9.9명, 택배업이 포함되어 있는 배달업도 29.2명으로 대체로 1개 사업단당 참여자수가 많은 편이다. 평균에 비해 다소 적은 참여자로 운영되는 사업단은 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세차 등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3> 2015년 10개 이상 운영된 시장형사업단 1개당 참여자수(사업단수 내림차순)

(단위 : 명)

대분류	세세분류	사업단당 참여자수
숙박 및 음식점업	1. 비알콜 음료점업	12.4
	2. 한식음식점업	16.9
운수업	3. 늘찬 배달업	29.2
제조업	4.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4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포장 및 충전업	31.1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2.5
제조업	7.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4.0
	8.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9.9
	9.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4.2
도소매업	10.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5.1
제조업	11.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4.5
숙박 및 음식점업	12. 제과점업	15.3
농림어업	13. 채소작물 재배업	18.0
제조업	13.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8.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건축물 일반 청소업	26.5
제조업	16. 식물성 유지 제조업	13.5
	17.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27.4
	17.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3.0
숙박 및 음식점업	17. 분식 및 김밥 전문점	11.9
제조업	20.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복 제조업	12.2
도소매업	20.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1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두발미용업	12.1
	23. 자동차 세차업	12.7
제조업	23.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3.6
농림어업	25. 과실작물 재배업	35.9
계		22.8
전체 계		22.4

3. 시장형 참여자 특성

1) 성별, 연령별 현황

시장형사업단의 여성노인 비율은 약 72.4%로,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성별 분포²⁾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특히 대도시의 여성비율이 64.6%로 다소 낮았으며,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은 여성노인 비율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 제조와 판매업이 다수 분포한 숙박 및 음식점업(93.9%) 고령노인이 다수 참여하는 공동작업장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제조업(77.3%)과 판매점 중심의 도소매업(78.1%) 등에서 여성노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적은 업종은 택배 등의 운수업(17.7%), 폐기물, 환경복원업(45.0%)으로, 업종별 참여노인의 성별분포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여성노인 비율 및 평균연령

(단위 : %, 세)

구분		여성 비율		평균연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시	76.4	28.1	72.9	3.2
	군	76.7	26.7	73.9	3.0
	구	64.6	34.3	72.7	3.1
기관 유형	시니어클럽	70.9	31.0	72.6	2.9
	대한노인회	70.0	24.9	75.5	2.9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78.2	32.0	73.1	3.4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75.9	29.9	73.2	3.4
업종	농림어업	59.7	25.6	75.0	2.3
	제조업	77.3	23.1	74.1	2.8
	폐기물, 환경복원	45.0	19.1	75.6	2.0
	도소매업	78.1	26.1	72.6	2.8
	운수업	17.7	17.6	73.3	2.1
	숙박 및 음식점업	93.9	9.8	70.5	2.5
	출판, 영상, 정보 등	45.8	-	66.8	-
	부동산, 임대	0.0	-	76.8	-
	사업시설, 사업지원	72.4	26.9	73.6	3.8
	교육서비스	100.0	-	67.9	-
	예술, 스포츠, 여가	58.1	34.8	73.7	2.9
	협회, 수리, 개인	54.3	43.1	73.0	2.8
	계	72.4	30.7	73.0	3.2

2) 2014년 기준 여성노인 67.7%, 남성노인 32.3%(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5)

사업단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폐기물, 환경복원업(75.6세), 농림어업(75세) 등의 업종에서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가 많지는 않으나 출판, 영상, 정보 업종과 교육서비스업종에서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이 60대로 나타났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연령이 70.5세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대한노인회의 참여노인의 연령이 75.5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건강상태, 경제상태, 학력, 참여동기별 현황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5점 만점)는 평균 3.8점 가량으로, 폐기물, 환경복원업 참여자가 3.6점으로 다소 낮았다. 주관적 경제상태(5점 만점)는 2.7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폐기물, 환경복원업 참여자가 2.4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초졸이하 참여자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67.7%), 폐기물, 환경복원업(63.4%)에서 다소 저학력 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운수업(15.8%), 협회, 수리, 개인서비스업(33.3%), 숙박 및 음식점업(34.7%)에서 저학력 노인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의 참여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70.1%로 나타났으며, 특히 폐기물, 환경복원업 참여자의 대부분(91.1%)이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 참여자들의 경우 경제적 동기로 참여하는 경우가 59.1% 가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2〉 업종별 참여노인 건강상태, 경제상태, 학력 및 참여동기

(단위 : 점, %)

구분		건강상태 (5점만점)		경제상태 (5점만점)		학력 (초졸이하 %)		경제적 참여동기 (%)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업 종	농림어업	3.7	0.6	2.9	0.4	67.7	23.5	76.6	30.5
	제조업	3.7	0.5	2.7	0.5	53.0	25.5	73.2	24.6
	폐기물, 환경복원	3.6	0.6	2.4	0.6	63.4	18.1	91.1	9.3
	도소매업	3.9	0.4	2.8	0.4	42.7	27.1	71.2	21.9
	운수업	3.9	0.4	2.6	0.6	15.8	16.2	72.1	17.1
	숙박 및 음식점업	3.9	0.4	2.9	0.5	34.7	28.5	59.1	25.1
	출판, 영상, 정보 등	4.0	-	3.0	-	4.2	-	12.5	-
	부동산, 임대	3.0	-	3.0	-	60.0	-	100.0	-
	사업시설, 사업지원	3.7	0.6	2.6	0.6	52.7	22.7	76.7	20.3
	교육서비스	4.0	-	3.0	-	0.0	-	50.0	-
	예술, 스포츠, 여가	3.9	0.4	2.5	0.5	46.3	25.6	79.7	11.5
	협회, 수리, 개인	3.9	0.3	2.6	0.5	33.3	15.4	66.5	21.0
	계	3.8	0.5	2.7	0.5	44.6	28.4	70.1	24.8

주) 건강상태, 경제상태, 학력 및 경제적 참여동기는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시 주관적으로 응답한 내용임

4. 시장형사업단 운영실적 분석

시장형사업단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요소들과 시장형이라는 사업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요소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다음 <표 4-1>과 같이 주요한 요소들을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초점이 시장형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고용창출 효과로 사업단의 일자리수와 참여자수 등을 살펴보았고, 소득 측면에서는 사업단의 실수익과 참여노인의 보수를 살펴보았다. 실수익은 실제 업종별로 원자재비나 소요되는 사업운영 경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화(서비스)의 생산을 통한 매출액에서 이러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비교해야 실제 사업단이 창출해내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성 측면 역시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업단 측면에서는 업종별 실수익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업단의 지속적 유지, 또는 확대 가능성을 판별해 볼 수 있다. 또한 월별로 매출액 변동폭을 업종별로 살펴보고 각 업종의 계절변동성을 추측해 보고자 한다. 노인 측면에서는 고용유지 기간과 월별 참여자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참여자의 보수가 연도별,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업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높은 수익과 높은 임금을 담보한다 하더라도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고,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면 시장형사업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할 수 있으므로, 아이템의 전문성이나 산재보험료 지출액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새누리 시스템 DB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다.

<표 4-1> 시장형사업단의 업종별 분석기준

	(1) 사업단	(2) 참여노인
고용창출효과	일자리 수, 참여자 수	-
소득	실수익	보수
안정성	연도별 실수익 변화 월별 매출액 변화	고용유지기간 월별 참여자수 변화 연도별, 월별 보수 변화
기타	전문인력 활용유무	산재보험료 지출액

1) 고용창출 효과 : 일자리 수 및 참여자 수 현황

시장형사업단의 평균 배정일자리수는 18.9자리이다. 즉, 1개 사업단에서 창출하는 일자리수의 목표치가 18.9자리라는 말과 같다. 업종별로는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1.3자리,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6자리로 다른 업종에 비해 1개 사업단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수가 적은 편이며, 폐기물, 환경복원업이 26.3자리, 운수업이 23.5자리로 다른 업종에 비해 배정일자리수가 많은 편이다.

〈표 4-2〉 업종별 배정일자리수 현황

(단위: 개, %)

		배정일자리수					계	평균
		1-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인 이상		
업종	농림어업	12	26	18	19	4	79	23.1
		15.2%	32.9%	22.8%	24.1%	5.1%	100.0%	
	제조업	56	147	59	42	29	333	21.4
		16.8%	44.1%	17.7%	12.6%	8.7%	100.0%	
	폐기물, 환경복원	0	17	4	11	4	36	26.3
		.0%	47.2%	11.1%	30.6%	11.1%	100.0%	
	도소매업	25	27	4	4	2	62	13.7
		40.3%	43.5%	6.5%	6.5%	3.2%	100.0%	
	운수업	16	34	24	11	11	96	23.5
		16.7%	35.4%	25.0%	11.5%	11.5%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06	133	32	13	1	285	12.6
		37.2%	46.7%	11.2%	4.6%	.4%	100.0%	
	출판, 영상, 정보 등	0	0	1	0	0	1	24.0
		.0%	.0%	100.0%	.0%	.0%	100.0%	
	부동산, 임대	0	1	0	0	0	1	10.0
		.0%	100.0%	.0%	.0%	.0%	100.0%	
	사업시설, 사업지원	10	35	19	18	9	99	23.4
		11.0%	38.5%	20.9%	19.8%	9.9%	100.0%	
	교육서비스	0	0	1	0	0	1	20.0
		.0%	.0%	100.0%	.0%	.0%	100.0%	
	예술, 스포츠, 여가	2	2	0	2	2	8	32.0
		25.0%	25.0%	.0%	25.0%	25.0%	100.0%	
	협회, 수리, 개인	13	14	2	1	0	30	11.3
		43.3%	46.7%	6.7%	3.3%	.0%	100.0%	
	계	240	436	164	121	62	1,023	18.9
		23.5%	42.6%	16.0%	11.8%	6.1%	100.0%	

시장형사업단 중 20개 이상 운영되는 세부 업종³⁾들은 총 745개 사업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배정일자리수를 분석해 보면,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35.9자리, 자동차부품 제조업 29.3자리, 포장 및 충전업 27.4자리 등 공동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업종별 배정일자리수가 다소 많았으며, 그 외에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7.4자리,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26.3자리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정일자리수가 적은

3) 다수 운영되는 시장형 세부업종에 대한 대분류는, <표 2-12> 참조

업종은 비알콜 음료점업 11.2자리, 식물성 유지 제조업 11.9자리,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3.0자리, 제과점업 13.4자리,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3.9자리 등으로 나타났다.

〈표 4-3〉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배정일자리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배정일자리수	
		평균	표준편차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7.4	27.2
	채소작물 재배업	16.4	9.5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6	16.6
	식물성 유지 제조업	11.9	6.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0	7.5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35.9	26.0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3.0	10.1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9.3	19.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26.3	15.6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3.9	10.7
	늘찬 배달업	23.6	19.7
	한식음식점업	14.3	8.5
	제과점업	13.4	9.0
	비알콜 음료점업	11.2	7.1
	건축물 일반 청소업	20.9	14.0
	포장 및 충전업	27.4	18.2
	계	19.9	17.4

시장형사업단의 업종별로 누적참여자수는 평균 22.4명으로, 목표로 한 배정일자리수 18.9명에 비해 2.5명 가량 높은 수치이다. 업종별로는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3.1명,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2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참여자수가 적은 편이며, 폐기물, 환경복원업이 32.5명, 운수업이 29.0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참여자수가 많은 편이다. 모든 업종에서 목표로 한 배정일자리수 대비 실제 참여자수는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인 미만의 사업단은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10인 미만 사업단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0.0%, 숙박 및 음식점업 31.0%, 도소매업 30.6% 등으로 나타났다.

〈표 4-4〉 업종별 누적참여자수 현황

(단위: 개, 명, %)

		참여자수					계	평균
		1-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인이상		
업종	농림어업	10	26	19	18	6	79	25.3
		12.7%	32.9%	24.1%	22.8%	7.6%	100.0%	
	제조업	49	134	57	45	46	331	26.1
		14.8%	40.5%	17.2%	13.6%	13.9%	100.0%	
	폐기물, 환경복원	1	10	7	11	7	36	32.5
		2.8%	27.8%	19.4%	30.6%	19.4%	100.0%	
	도소매업	19	32	5	3	3	62	15.5
		30.6%	51.6%	8.1%	4.8%	4.8%	100.0%	
	운수업	15	29	18	20	14	96	29.0
		15.6%	30.2%	18.8%	20.8%	14.6%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87	136	40	15	3	281	14.2
		31.0%	48.4%	14.2%	5.3%	1.1%	100.0%	
	출판, 영상, 정보 등	0	0	1	0	0	1	24.0
		.0%	.0%	100.0%	.0%	.0%	100.0%	
	부동산, 임대	0	1	0	0	0	1	15.0
		.0%	100.0%	.0%	.0%	.0%	100.0%	
	사업시설, 사업지원	7	31	23	17	12	90	27.5
		7.8%	34.4%	25.6%	18.9%	13.3%	100.0%	
	교육서비스	0	0	1	0	0	1	24.0
		.0%	.0%	100.0%	.0%	.0%	100.0%	
	예술, 스포츠, 여가	2	1	1	1	3	8	34.6
		25.0%	12.5%	12.5%	12.5%	37.5%	100.0%	
	협회, 수리, 개인	12	12	4	2	0	30	13.1
		40.0%	40.0%	13.3%	6.7%	.0%	100.0%	
계		202	412	176	132	94	1,016	22.4
		19.9%	40.6%	17.3%	13.0%	9.3%	100.0%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수 집계방식을 누적식이 아닌, 월평균으로 조정하여 참여자수를 재산출해 보았는데, 이는 시장형사업이 연중운영되는 일자리임을 감안한 것이다. 월평균참여자수는 월별 참여자수를 합한 값에서 1명이라도 급여를 받은 개월수로 나눈 값이며, 누적적으로 집계되는 누적참여자수에 비해 값이 줄어들텐 것으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⁴⁾.

〈표 4-5〉를 통해 볼 때, 업종별로 월평균참여자수는 평균 16.8명으로 나타난다. 특히 업종별로는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이 11.2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참여자수가 적은 편이며, 폐기물, 환경복원업이 23.8명, 농림어업이 21.7명 등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참여자수가 많은 편이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단은 전체의 35.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10인 미만 사업단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0.0%, 숙박 및 음식점업

4) 예를 들어, 3개월동안 3명이 동일하게 참여한다면 월평균 참여자수 역시 3명이지만, 첫달은 1명, 두 번째달 2명, 세 번째달 3명이 참여한다면 누적참여자수는 3명, 월평균참여자수는 2명으로 줄어든다.

49.8%, 도소매업 46.8%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들은 실제 1개 사업단을 운영시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업종별 누적참여자수와 비교해 볼 때 약 5.6명가량 감소한 수치인데, 특히 운수업의 경우 월 평균참여자수로 환산시 10.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업종별 월평균참여자수 현황

(단위: 개, 명, %)

		월평균 참여자수					계	평균
		1-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인이상		
업종	농림어업	17	30	17	12	3	79	21.7
		21.5%	38.0%	21.5%	15.2%	3.8%	100.0%	
	제조업	954	129	54	32	21	331	19.5
		28.7%	39.0%	16.3%	9.7%	6.3%	100.0%	
	폐기물, 환경복원	4	14	8	7	3	36	23.8
		11.1%	38.9%	22.2%	19.4%	8.3%	100.0%	
	도소매업	29	27	3	2	1	62	12.4
		46.8%	43.5%	4.8%	3.2%	1.6%	100.0%	
	운수업	30	33	20	7	6	96	18.4
		31.3%	34.4%	20.8%	7.3%	6.3%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40	111	25	5	0	281	11.2
		49.8%	39.5%	8.9%	1.8%	.0%	100.0%	
	출판, 영상, 정보 등	0	0	1	0	0	1	24.0
		.0%	.0%	100.0%	.0%	.0%	100.0%	
	부동산, 임대	0	1	0	0	0	1	10.2
		.0%	100.0%	.0%	.0%	.0%	100.0%	
	사업시설, 사업지원	21	36	16	10	7	90	20.3
		23.3%	40.0%	17.8%	11.1%	7.8%	100.0%	
	교육서비스	0	1	0	0	0	1	17.1
		.0%	100.0%	.0%	.0%	.0%	100.0%	
	예술, 스포츠, 여가	3	2	0	1	2	8	24.4
		37.5%	25.0%	.0%	12.5%	25.0%	100.0%	
	협회, 수리, 개인	21	8	1	0	0	30	10.0
		70.0%	26.7%	3.3%	.0%	.0%	100.0%	
계	360	392	145	76	43	1,016	16.8	
	35.4%	38.6%	14.3%	7.5%	4.2%	100.0%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배정일자리수 23.1명, 누적참여자수 28.2명으로 1개 사업단당 창출되는 일자리수가 가장 많았으며, 기관유형별로는 대한노인회가 배정일자리수 25.8명, 누적참여자수 3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4-6〉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배정일자리수 및 누적/월평균 참여자수 현황

(단위 : 자리, 명)

구분		배정일자리수		누적참여자수		월평균참여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시	16.1	12.8	19.0	16.7	14.4	11.6
	군	19.4	19.0	21.1	20.9	17.4	18.4
	구	23.1	18.8	28.2	24.0	20.2	16.4
기관 유형	시니어클럽	19.0	15.5	22.4	19.1	16.4	13.3
	대한노인회	25.8	22.4	31.7	28.1	24.6	22.2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14.6	12.8	16.4	17.0	13.3	12.4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19.3	18.2	23.9	23.4	17.9	16.0
계		18.9	16.3	22.4	20.5	16.8	14.7

일자리수 목표달성도는 배정일자리수 대비 참여자수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누적참여자 기준 전체적으로 118%의 목표달성도를 보였다. 특히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기관유형별로는 대한노인회, 업종별로는 폐기물 및 환경복원업과 운수업 등이 배정일자리수 대비 누적참여자수 비율이 높았다. 단, 시장형 참여자수는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노인수로 측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된 일자리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월평균 참여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준비 기간이나 참여자 선발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신규사업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90% 가량의 목표달성도가 도출된 것은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표 4-7〉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일자리수 목표달성도

(단위 : %)

구분		누적참여자수 기준		월평균참여자수 기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시	117.7	30.3	92.3	17.8
	군	108.7	28.6	88.7	19.9
	구	123.7	44.3	89.7	17.7
기관 유형	시니어클럽	118.5	31.1	89.1	17.5
	대한노인회	122.4	48.4	94.9	14.2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111.2	33.1	92.6	19.7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127.1	52.0	96.9	20.9
업종	농림어업	109.5	15.3	93.3	12.6
	제조업	119.0	34.2	92.0	17.1
	폐기물, 환경복원	131.5	65.8	92.7	20.0
	도소매업	115.9	24.8	93.8	15.7
	운수업	130.6	52.5	83.1	19.4
	숙박 및 음식점업	114.7	29.1	91.9	19.1
	출판, 영상, 정보 등	100.0	-	100.0	.
	부동산, 임대	150.0	-	101.7	.
	사업시설, 사업지원	121.3	41.2	88.5	21.0
	교육서비스	120.0	-	85.4	.
	예술, 스포츠, 여가	108.3	8.6	83.0	22.3
	협회, 수리, 개인	115.4	27.7	89.7	12.0
	계	118.4	35.8	90.9	18.1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중도포기자수는 아래 〈표 4-8〉과 같다. 2015년 운영된 시장형사업단 1개당 평균 중도포기자수는 약 4.7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6.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이 2.6명으로 비교적 적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2명), 농림어업(2.7명) 및 숙박 및 음식점업(2.7명)에서 중도포기자수가 적었으며, 택배 등이 속해 있는 운수업에서 8.4명으로 가장 중도포기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일자리수 대비 중도포기자수의 비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목표량 대비 23.3% 가량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중도포기자수 및 비율

(단위 : 명, %)

구분		중도포기자수		중도포기자 비율 (배정일자리수 대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시	3.6	5.1	21.5	23.9
	군	3.8	5.0	20.3	22.9
	구	6.6	8.3	27.3	25.6
기관 유형	시니어클럽	4.9	6.6	24.3	23.6
	대한노인회	5.7	7.5	22.5	27.7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2.6	3.6	18.8	25.4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5.4	8.4	24.6	25.4
업종	농림어업	2.7	3.2	13.4	17.7
	제조업	5.7	8.0	23.3	22.3
	폐기물, 환경복원	7.2	7.2	27.6	21.9
	도소매업	2.2	2.7	18.8	24.1
	운수업	8.4	8.8	38.2	32.0
	숙박 및 음식점업	2.7	3.8	20.7	24.5
	출판, 영상, 정보 등	0.0	-	0.0	-
	부동산, 임대	4.0	-	40.0	-
	사업시설, 사업지원	5.7	5.9	24.7	21.6
	교육서비스	4.0	-	20.0	-
	예술, 스포츠, 여가	7.4	8.0	20.8	18.4
	협회, 수리, 개인	3.0	3.7	26.7	30.0
	계	4.7	6.5	23.3	24.5

2) 소득 1 : 사업단 측면(실수익)

시장형이 공익활동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일정기간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업비나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원 없이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5년 운영된 시장형사업단에 대해 재정지원 없이 운영가능한 수준을 결정짓는 매출액, 원자재비 및 사업운영경비, 실수익 등의 여러 각도에서 업종별로 살펴보았다.

(1) 매출액

시장형사업단의 2015년 연간 매출액은 약 52.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지역규모별로, 기관유형별로, 업종별로, 사업연차별로, 사업단 내 참여자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지역규모별로는 광역시 단위의 매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61백만원 가량이었다. 군단위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38.2백만원 수준의 매출 규모를 보여, 대도시지역이 약 1.6배 매출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시니어클럽의 매출액이 62.6백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79.5백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62.7백만원)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2015년 매출액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은 22.4백만원,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24.2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었다. 사업연차별로는 신규사업은 24.2백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매출액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5년차 이상의 사업단은 69.6백만원의 매출액을 보여, 신규사업에 비해 약 2.9배의 매출 향상을 보였다.

〈표 4-9〉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사업연차별 2015년 연매출액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시	51,014,885	58,219,942
	군	38,234,234	57,092,712
	구	60,974,824	74,762,791
기관유형	시니어클럽	62,617,715	70,172,256
	대한노인회	34,280,125	40,517,380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29,617,438	41,537,828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39,823,074	59,505,369
업종	농림어업	22,386,857	32,102,955
	제조업	41,756,069	47,383,820
	폐기물, 환경복원	60,515,408	51,978,092
	도소매업	55,707,901	53,908,217
	운수업	79,530,285	93,168,920
	숙박 및 음식점업	62,742,117	72,627,605
	출판, 영상, 정보 등	302,234,406	-
	부동산, 임대	5,781,033	-
	사업시설, 사업지원	60,154,243	74,396,428
	교육서비스	87,649,500	-
	예술, 스포츠, 여가	40,497,870	43,432,296
	협회, 수리, 개인	24,231,926	20,674,498
사업연차	1년차	24,181,598	31,891,360
	2년차	47,616,716	53,759,656
	3년차	49,393,273	58,216,112
	4년차	54,622,956	65,533,722
	5년차이상	69,638,179	75,924,431
계		52,534,535	64,511,951

또한 참여자 규모가 큰 사업단일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누적참여자 기준, 10인 미만의 사업단의 경우 연 29.3백만원,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단의 경우 연 41.8백만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50인 이상 사업단의 경우 연 매출액이 99.3백만원에 달하였다.

〈표 4-10〉 참여자 규모별 2015년 연매출액

(단위 : 원)

구분	누적참여자 기준		월평균참여자 기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9인	29,313,677	31,688,190	33,104,338	37,628,944
10~19인	41,752,799	43,159,491	48,555,556	49,792,593
20~29인	57,983,880	67,681,210	73,468,964	84,872,040
30~49인	83,941,030	89,110,497	92,672,502	97,108,678
50인 이상	99,297,179	99,836,362	118,497,214	108,734,666
계	52,896,486	64,585,827	52,896,486	64,585,827

주) 연간 1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는 1,016개 사업단 대상 분석결과임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연매출액은 〈표 4-11〉과 같다. 건축물 일반 청소업이 104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한식음식점업 92.8백만원, 식물성 유지 제조업 82.5백만원, 늘찬 배달업 및 제과점업 78.8백만원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채소작물 재배업 15.6백만원,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7백만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7.1백만원 등의 업종은 연간 매출액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11〉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2015년 연매출액

(단위 : 원)

구분		배정일자리수	
		평균	표준편차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7,139,955	37,438,317
	채소작물 재배업	15,590,421	31,205,577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5,556,946	49,101,643
	식물성 유지 제조업	82,522,166	41,793,087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67,721,085	65,224,313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40,171,891	58,372,315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738,057	17,569,849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56,573,886	49,487,502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60,515,408	51,978,092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1,134,976	45,844,984
	늘찬 배달업	78,827,069	93,940,949
	한식음식점업	92,848,383	89,452,616
	제과점업	78,800,075	89,103,113
	비알콜 음료점업	39,069,220	43,547,765
	건축물 일반 청소업	104,419,066	96,757,186
	포장 및 충전업	32,712,372	30,966,396
	계	56,015,098	68,051,120

연매출액을 1명이라도 참여한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월평균 매출액은 약 4.6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역규모별로는 광역시 단위의 매출액이 월평균 5.2백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한편, 군단위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3.6백만원 수준의 매출규모를 보여, 대도시지역이 약 1.5배 매출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시니어클럽의 매출액이 월 5.4백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액의 분석결과와 같이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2015년 매출액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과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었다. 사업연차별로는 신규사업은 2.5백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2~3년차에는 유사한 월매출규모를 보이다가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매출액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4-12〉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사업연차별 2015년 월평균매출액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시	4,406,685	4,851,151
	군	3,564,311	4,947,352
	구	5,244,609	6,282,657
기관유형	시니어클럽	5,395,568	5,875,477
	대한노인회	3,210,387	3,694,810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2,639,723	3,480,590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3,452,692	4,949,462
업종	농림어업	2,288,673	3,340,901
	제조업	3,592,821	3,936,978
	폐기물, 환경복원	5,150,324	4,379,370
	도소매업	4,935,080	4,704,568
	운수업	6,813,404	7,863,324
	숙박 및 음식점업	5,464,517	6,004,627
	출판, 영상, 정보 등	25,186,201	-
	부동산, 임대	481,753	-
	사업시설, 사업지원	5,208,785	6,254,357
	교육서비스	7,304,125	-
	예술, 스포츠, 여가	3,547,022	3,849,907
	협회, 수리, 개인	2,126,779	1,693,473
사업연차	1년차	2,492,134	2,974,720
	2년차	4,078,000	4,462,081
	3년차	4,172,327	4,830,694
	4년차	4,650,303	5,616,777
	5년차이상	5,907,602	6,348,241
계		4,571,825	5,416,069

주) 연간 1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는 1,016개 사업단 대상 분석결과임

또한 참여자 규모가 큰 사업단일수록 월평균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누

적참여자 기준, 10인 미만의 사업단의 경우 월 2.6백만원,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단의 경우 월 3.6백만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50인 이상 사업단의 경우 월 매출액이 8.6백만원에 달하였다.

〈표 4-13〉 참여자 규모별 2015년 월평균매출액

(단위 : 원)

구분	누적참여자 기준		월평균참여자 기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9인	2,574,633	2,671,140	2,894,706	3,159,035
10~19인	3,613,995	3,595,250	4,200,544	4,152,956
20~29인	5,022,735	5,630,398	6,270,133	7,032,920
30~49인	7,147,369	7,397,537	7,966,750	8,228,972
50인 이상	8,600,828	8,481,248	10,270,331	9,114,671
계	4,571,825	5,416,069	4,571,825	5,416,069

주) 연간 1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는 1,016개 사업단 대상 분석결과임

(2) 원자재비 및 사업운영경비

매출액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재료구입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등의 원자재비가 크다면 그 사업은 수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형사업단의 재료구입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등 원자재비에 지출되는 규모를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사업연차별로 나누어 본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시장형사업단의 평균 원자재비는 연간 15.7백만원으로, 매출액이 52.5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약 29.8%로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지역에서 운영한 사업단이 17.4백만원으로 원자재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매출액 규모가 가장 컸던 기관유형인 시니어클럽의 원자재비 규모가 19백만원 가량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비의 규모는 특히 업종과 관련성이 높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업종 중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29.8백만원), 도소매업(29.7백만원)이 연간 지출되는 원자재비 규모가 컸으며, 택배사업이 주를 이루는 운수업(3.9백만원)이나 폐기물, 환경복원업(4.8백만원),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2백만원),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5.1백만원) 등의 원자재비는 훨씬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한 것처럼 원자재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투자 성격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면 1~2년차의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원자재비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야 하나, 실제 분석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사업연차별 2015년 원자재비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시	17,408,937	26,232,661
	군	14,436,738	29,055,904
	구	13,499,345	25,626,307
기관유형	시니어클럽	19,019,876	30,371,975
	대한노인회	5,945,513	11,246,595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10,577,230	16,586,642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10,395,726	14,896,913
업종	농림어업	8,251,244	13,691,793
	제조업	11,265,035	19,466,170
	폐기물, 환경복원	4,783,934	10,815,646
	도소매업	29,685,704	31,750,340
	운수업	3,880,022	8,914,252
	숙박 및 음식점업	29,836,330	36,274,264
	출판, 영상, 정보 등	732,000	-
	부동산, 임대	610,000	-
	사업시설, 사업지원	3,209,986	5,863,191
	교육서비스	0	-
	예술, 스포츠, 여가	34,731,740	31,715,715
	협회, 수리, 개인	5,125,245	6,471,595
사업연차	1년차	12,539,706	18,538,735
	2년차	15,465,570	27,265,838
	3년차	16,553,938	26,806,488
	4년차	16,170,167	24,087,292
	5년차이상	17,001,393	30,225,666
계		15,656,636	26,495,718

원자재비는 참여자규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4-15〉를 통해 보면, 10인 미만의 사업단과 50인 이상의 사업단에서 원자재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50인 이상의 사업단은 공동작업장이나 택배 등의 운수업 등의 비중이 높아, 원자재비 규모와 업종과의 관련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 4-15〉 참여자 규모별 2015년 원자재비

(단위 : 원)

구분	누적참여자 기준		월평균참여자 기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9인	12,636,311	18,637,499	14,550,454	23,049,933
10~19인	17,112,861	24,958,561	16,813,816	24,064,892
20~29인	16,315,750	26,678,762	18,609,576	36,742,761
30~49인	18,228,955	41,467,665	13,407,442	34,161,718
50인 이상	11,898,022	19,492,407	10,528,108	17,691,137
계	15,747,285	26,559,442	15,747,285	26,559,442

주) 연간 1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는 1,016개 사업단 대상 분석결과임

시장형사업단 중 20개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총 16개 세부사업(전체 사업단의 73% 차지)을 대상으로 원자재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인당 원자재비를 기준으로 볼 때 참기름 제조 등 식물성 유지 제조업, 한식음식점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1인당 300만원 이상의 원자재비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제과점업(2.5백만원)이나 두부제조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1.8백만원) 역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다수 운영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도 포장 및 충전업(12.7만원),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15.2만원), 자동차부품 제조업(13.9만원) 등 공동작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들은 원자재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축물 일반 청소업 등도 원자재비가 경미한 수준이었다.

〈표 4-16〉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원자재비

(단위 : 원)

구분		원자재비		1인당 원자재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6,869,213	14,235,000	445,892	1,152,018
	채소작물 재배업	7,619,083	9,475,627	623,421	754,734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8,649,479	10,995,738	842,046	1,364,264
	식물성 유지 제조업	49,448,032	33,239,952	5,593,791	4,560,996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23,984,853	24,202,080	1,841,566	1,696,882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618,008	4,855,425	151,679	647,276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9,338,054	8,859,036	818,172	718,989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4,801,340	14,363,503	138,703	272,640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4,783,934	10,815,646	285,458	650,882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31,592,562	31,835,605	3,308,464	4,236,160
	늘찬 배달업	3,718,214	8,797,790	251,455	773,243
	한식음식점업	45,135,136	47,697,480	3,691,230	3,014,070
	제과점업	31,561,089	39,716,369	2,464,371	3,487,364
	비알콜 음료점업	18,535,521	19,596,696	1,758,419	1,265,933
	건축물 일반 청소업	4,106,130	5,756,111	363,228	734,261
	포장 및 충전업	2,491,884	5,143,668	127,383	270,526
	계	16,233,975	27,777,171	1,408,370	2,336,255

주) 월평균참여자수 기준

원자재비 외에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운영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사업단에 따라 60세 미만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원자재비를 제외한 이러한 사업운영경비를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사업연차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4-17〉과 같으며, 연간 평균 12.6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특히 군단위에서는 8.2백만원으로 적었으며, 매출액이 컸던 시니어클럽의 사업운영경비가 연평균 15.9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농림어업,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7.3백만원, 7백만원으로 적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경비가 참여자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참여자규모가 클수록 사업운영경비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누적참여자 기준, 10인 미만의 사업단의 경우 사업운영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8백만원에 불과했지만, 50인 이상의 경우 22.2백만원으로 약 35.9% 많이 소요되고 있었다.

〈표 4-17〉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사업연차별 2015년 사업운영경비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시	13,209,070	21,789,390
	군	8,230,767	11,189,783
	구	13,604,401	18,439,921
기관유형	시니어클럽	15,872,727	22,119,971
	대한노인회	6,146,835	7,341,112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6,349,336	12,642,784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7,067,910	10,846,940
업종	농림어업	7,330,684	9,058,047
	제조업	10,309,815	19,359,554
	폐기물, 환경복원	13,460,945	14,290,972
	도소매업	17,374,797	27,368,450
	운수업	15,219,435	20,582,308
	숙박 및 음식점업	15,742,416	21,476,923
	출판, 영상, 정보 등	80,941,265	-
	부동산, 임대	1,597,320	-
	사업시설, 사업지원	10,652,293	13,858,522
	교육서비스	20,662,830	-
	예술, 스포츠, 여가	13,441,086	10,094,077
	협회, 수리, 개인	7,033,580	8,027,568
사업연차	1년차	7,016,837	9,033,983
	2년차	11,401,013	16,774,487
	3년차	10,752,388	13,060,015
	4년차	13,776,963	20,815,826
	5년차이상	16,164,604	24,214,158
계		12,622,556	19,528,926

〈표 4-18〉 참여자 규모별 2015년 사업운영경비

(단위 : 원)

구분	누적참여자 기준		월평균참여자 기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9인	7,956,822	14,420,058	8,724,363	13,614,623
10~19인	10,008,012	13,943,734	12,091,514	16,308,973
20~29인	14,561,243	19,479,317	16,878,006	23,517,227
30~49인	18,949,410	23,907,425	18,712,778	22,433,659
50인 이상	22,162,682	33,441,665	26,228,974	44,128,711
계	12,675,169	19,569,270	12,675,169	19,569,270

주) 연간 1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는 1,016개 사업단 대상 분석결과임

업종별 1인당 사업운영경비는 다음 <표 4-19>와 같다. 연간 1인당 평균 95만원 가

량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소매업 164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 142만원 등 업종의 경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어업과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각각 39.6만원, 59.5만원 등으로 1인당 연간 소요되는 사업운영경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업종별 2015년 1인당 사업운영경비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업종	농림어업	395,992	490,674
	제조업	736,538	1,229,349
	폐기물, 환경복원	607,412	654,717
	도소매업	1,641,491	2,824,622
	운수업	857,006	1,215,523
	숙박 및 음식점업	1,416,691	1,566,033
	출판, 영상, 정보 등	3,372,553	-
	부동산, 임대	157,113	-
	사업시설, 사업지원	595,388	693,336
	교육서비스	1,209,532	-
	예술, 스포츠, 여가	1,056,814	1,754,173
	협회, 수리, 개인	718,220	684,194
	계	952,170	1,431,167

교육, 홍보 등 사업운영경비 역시 20개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간 편차가 있다. 1인당 사업운영경비 기준으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1인당 사업운영경비가 30만원에 불과하였고, 포장 및 충전업,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 등도 매우 적은 운영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물성 유지 제조업이 2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식음식점업 198만원,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79만원, 제과점업 176만원,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사업운영경비

(단위 : 원)

구분		사업운영경비		1인당 사업운영경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6,495,317	6,443,564	302,049	365,508
	채소작물 재배업	6,081,430	9,417,126	490,074	695,603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7,197,813	8,653,170	475,967	475,466
	식물성 유지 제조업	19,298,894	11,743,599	2,500,101	2,237,63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21,732,404	24,365,924	1,534,465	1,261,424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1,114,499	33,764,515	319,870	576,16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4,570,836	4,181,554	376,351	330,616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8,728,196	6,844,073	392,064	339,577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13,460,945	14,290,972	607,412	654,717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4,714,357	28,858,001	1,785,311	3,825,449
	늘찬 배달업	14,200,460	17,590,420	757,914	672,985
	한식음식점업	23,535,286	25,222,049	1,981,362	1,714,637
	제과점업	20,714,634	24,096,802	1,760,189	1,865,563
	비알콜 음료점업	9,537,255	15,616,914	954,257	1,247,777
	건축물 일반 청소업	19,052,083	22,057,229	1,048,028	995,192
	포장 및 충전업	7,049,976	7,556,842	311,708	237,496
	계	13,016,314	20,377,206	957,719	1,429,969

주) 월평균참여자수 기준

(3) 실수익

시장형사업단은 참여자 1인당 2015년 기준 연간 180~200만원의 국비, 지방비 지원이 있으며 이는 참여자의 인건비나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의 실제 운영성과는 투입된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고, 매출액에서 원자재비와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실수익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형사업단을 2015년 1년동안 운영한 결과, 평균 94.5백만원이라는 실수익금이 발생되었다. 특히 광역시는 119.5백만원, 중소도시는 80.3백만원의 실수익금이 창출되어 차이를 보였다. 매출액이 높았던 업종인 운수업은 실수익에서도 148.5백만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높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의 과다 지출로 실수익액은 67.8백만원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오히려 매출액이 낮았던 농림어업의 경우,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의 적은 지출로 실수익은 88.4백만원 수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실수익액이 128.6백만원으로 높았는데, 원자재비의 적은 지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의 참여규모가 클수록 실수익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의

사업단은 40.7백만원에 불과했는데 비해, 50인이상 사업단은 351백만원, 30인이상 50인 미만 사업단은 209.8백만원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업단의 운영연차가 길수록 실수익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규사업은 59.1백만원에 불과한 실수익액이 5년차 이상 사업단의 경우 119.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21〉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참여자규모별, 사업연차별 2015년 실수익

(단위 : 원)

구분		연간 실수익액		월간 실수익액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시	80,327,834	63,532,085	7,225,426	5,458,393
	군	86,905,980	94,812,787	8,473,551	9,690,537
	구	119,450,014	109,491,912	10,438,935	9,251,751
기관 유형	시니어클럽	99,477,507	89,567,427	8,803,035	7,571,196
	대한노인회	111,122,992	101,000,051	10,919,038	10,805,783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65,753,147	53,580,239	5,985,141	4,783,483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93,545,469	101,643,457	8,271,033	8,371,330
업종	농림어업	88,396,858	89,901,885	9,585,336	10,636,075
	제조업	97,248,088	81,651,019	8,562,109	6,880,762
	폐기물, 환경복원	144,143,255	93,980,350	12,470,940	8,024,638
	도소매업	62,804,550	56,681,691	5,550,093	4,724,043
	운수업	148,490,584	145,002,751	12,952,197	12,146,310
	숙박 및 음식점업	67,830,712	46,287,501	6,079,783	4,003,717
	출판, 영상, 정보 등	306,956,681	.	25,579,723	.
	부동산, 임대	43,573,713	.	3,631,143	.
	사업시설, 사업지원	128,565,354	103,738,884	11,372,686	8,781,547
	교육서비스	146,986,670	.	12,248,889	.
	예술, 스포츠, 여가	97,826,143	126,735,166	8,871,680	11,415,376
	협회, 수리, 개인	55,567,145	31,784,141	5,241,972	2,715,850
참여 자수 ¹⁾	1~9인	40,682,268	18,667,612	3,792,791	1,802,124
	10~19인	77,488,580	38,012,921	6,955,974	3,174,714
	20~29인	138,730,921	57,902,794	12,334,219	4,546,367
	30~49인	209,760,278	93,393,473	18,464,310	7,812,855
	50인 이상	351,009,649	134,492,497	31,291,339	13,012,821
사업 연차	1년차	59,108,821	49,258,457	6,566,967	5,286,682
	2년차	88,391,515	69,010,863	7,800,058	5,845,942
	3년차	80,333,291	67,987,048	6,886,072	5,627,862
	4년차	93,212,224	86,149,993	8,050,385	7,462,899
	5년차이상	119,321,724	106,027,486	10,299,593	9,413,443
계		94,523,299	87,995,471	8,493,527	7,733,120

주) 월평균참여자수 기준

사업단 내 참여자 1인당 실수익액 분석 결과는 〈표 4-22〉와 같으며, 참여자 1인당 평균 5.7백만원의 실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익 내에 1인당 국비, 지방비 등 정부지원금인 180~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투입된 예산 대비 2배 가량

의 이윤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니어클럽의 1인당 수익이 6.1백만원으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업 7.7백만원, 폐기물, 환경복원업 6.1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실수익이 다소 낮은 업종은 농림어업(4백만원), 도소매업(5백만원), 제조업(5.1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국비, 지방비의 지원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참여자수 증가에 따라 실수익액이 증가한 앞선 <표 4-21>의 결과와는 달리, 1인당 실수익액은 오히려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10인 미만 사업단이 5.8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실수익액을 보인 한편, 50인 이상은 5.3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실수익액을 보였다. 사업운영 연차에 따라서는 신규사업단의 경우 5백만원 수준이었으며, 2년차 이상 사업단의 실수익액은 5.7백만원~6백만원 가량으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참여자규모별, 사업연차별 2015년 참여자 1인당 실수익

(단위 : 원)

구분		1인당 연간 실수익액		1인당 월간 실수익액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시	5,727,590	2,148,256	522,488	213,498
	군	4,902,634	1,792,311	476,599	185,506
	구	6,001,615	2,573,115	532,115	211,648
기관 유형	시니어클럽	6,124,009	2,361,347	551,688	216,066
	대한노인회	4,567,939	1,886,190	449,643	170,989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5,064,870	1,722,651	465,946	193,437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4,959,307	2,122,781	450,434	172,372
업종	농림어업	4,042,368	1,008,375	433,751	124,628
	제조업	5,131,084	1,424,937	458,568	114,363
	폐기물, 환경복원	6,103,993	1,859,152	533,763	159,403
	도소매업	5,046,315	1,247,880	450,689	116,941
	운수업	7,715,169	2,753,605	694,346	269,615
	숙박 및 음식점업	6,085,282	2,053,406	552,160	221,343
	출판, 영상, 정보 등	12,789,862	-	1,065,822	-
	부동산, 임대	4,285,939	-	357,162	-
	사업시설, 사업지원	6,460,822	3,368,359	582,229	271,471
	교육서비스	8,604,098	-	717,008	-
	예술, 스포츠, 여가	2,531,732	7,145,635	237,899	605,224
	협회, 수리, 개인	5,553,242	1,580,733	536,424	178,787
참여 자수 ¹⁾	1~9인	5,840,288	2,395,747	547,862	249,130
	10~19인	5,663,387	2,246,521	509,713	188,601
	20~29인	5,679,862	2,204,661	506,755	174,803
	30~49인	5,524,543	2,302,617	485,499	187,024
	50인 이상	5,325,113	1,827,952	468,516	143,735
사업 연차	1년차	5,030,341	2,710,780	562,388	317,679
	2년차	5,772,820	2,423,778	509,011	190,187
	3년차	5,872,759	1,960,642	507,624	156,984
	4년차	5,746,407	2,270,177	496,756	180,437
	5년차이상	5,970,479	1,987,391	511,070	158,548
계		5,703,717	2,282,464	519,253	209,694

주) 월평균참여자수 기준

시장형사업단 중 20개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총 16개 세부사업별로 매출액에서 국비, 지방비 등 지원금을 포함하여 원자재비,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참여자 1인당 실수익을 비교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1인당 월간 실수익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평균 72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아파트택배 및 지하철택배 등이 분포한 배달업이 약 70만원, 한식음식점업이 59만원으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1인당 월간 실수익이 낮은 업종은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으로 약 41만원의 실수익을 창출하였고, 치약, 비누 및 세제 제조업이

41.7만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42.1만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4-23〉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참여자 1인당 실수익

(단위 : 원)

구분		1인당 연간 실수익액		1인당 월간 실수익액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4,080,576	779,826	421,345	87,231
	채소작물 재배업	4,040,783	1,291,244	460,481	198,160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4,984,415	1,511,976	472,717	149,218
	식물성 유지 제조업	6,063,500	1,763,512	508,481	143,768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6,009,121	1,704,221	534,802	131,312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4,577,970	1,118,845	410,118	84,40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4,621,100	1,009,692	417,261	89,015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5,929,065	1,866,989	494,852	154,359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6,103,993	1,859,152	533,763	159,403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151,968	1,338,353	472,500	142,332
	늘찬 배달업	7,719,213	2,782,833	695,777	272,311
	한식음식점업	6,759,772	1,893,326	592,330	147,563
	제과점업	5,891,348	2,224,199	520,401	157,513
	비알콜 음료점업	5,463,441	1,756,761	505,680	206,827
	건축물 일반 청소업	8,327,777	2,782,396	721,052	229,901
	포장 및 충전업	5,009,601	1,814,231	454,958	147,585
	계	5,820,253	2,175,927	526,149	198,229

주) 월평균참여자수 기준

3) 소득Ⅱ : 참여노인 측면(보수)

시장형사업단의 중요한 운영실적 중 앞서 실수익액을 살펴보았다면, 나머지 한 축은 실제 참여노인들이 확보한 보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높은 실수익액이 실제 높은 참여자 보수로 이어지는지 경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단당 참여자가 지급받은 총보수는 연간 56.5백만원 수준, 월간 5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참여자규모별, 사업연차별로 매출액 규모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기관유형별로는 대한노인회가, 업종별로는 운수업, 폐기물, 환경복원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참여자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운영 연차가 오래될수록 참여자의 연보수 및 월보수 수준은 향상되었다.

〈표 4-24〉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참여자규모별, 사업연차별 2015년 참여자 보수

(단위 : 원)

구분		연보수		월보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시	47,863,396	42,134,097	4,206,567	3,527,208
규모	군	48,983,334	59,414,349	4,661,510	5,871,100
	구	72,861,468	75,143,666	6,317,351	6,316,035
기관	시니어클럽	60,084,183	61,155,066	5,215,365	5,129,674
유형	대한노인회	65,338,215	62,466,562	6,350,643	6,437,574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37,481,415	31,858,119	3,344,355	2,729,075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55,742,025	69,023,553	4,894,422	5,689,573
업종	농림어업	46,112,682	52,823,257	4,921,184	6,222,040
	제조업	56,121,284	50,982,824	4,896,225	4,261,800
	폐기물, 환경복원	91,105,809	68,651,630	7,833,392	5,820,383
	도소매업	34,548,393	33,258,804	3,020,315	2,751,817
	운수업	99,266,189	103,277,395	8,535,229	8,635,921
	숙박 및 음식점업	39,158,518	29,393,920	3,420,270	2,386,674
	출판, 영상, 정보 등	200,248,320	-	16,687,360	-
	부동산, 임대	24,080,000	-	2,006,667	-
	사업시설, 사업지원	82,195,814	72,906,928	7,171,708	6,125,352
	교육서비스	104,858,500	-	8,738,208	-
	예술, 스포츠, 여가	68,296,233	61,251,002	6,046,719	5,431,027
	협회, 수리, 개인	32,256,075	22,421,943	2,906,037	1,810,179
참여 자수 ¹⁾	1~9인	23,268,365	12,720,560	2,090,640	1,005,130
	10~19인	45,787,077	28,407,845	4,038,705	2,278,881
	20~29인	83,456,697	47,164,458	7,312,720	3,750,050
	30~49인	131,086,619	74,760,534	11,465,189	6,237,581
	50인 이상	209,903,873	100,599,573	18,607,041	9,107,315
사업 연차	1년차	30,138,204	29,161,197	3,158,402	2,841,159
	2년차	50,384,861	43,316,913	4,417,618	3,660,367
	3년차	48,247,259	48,708,917	4,116,773	4,027,178
	4년차	55,985,968	57,022,044	4,825,826	4,925,149
	5년차이상	74,703,007	71,181,631	6,420,022	6,203,631
계		56,510,646	58,896,411	4,987,799	5,075,105

주) 월평균참여자수 기준

이러한 결과를 참여자 1인당 보수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 〈표 4-25〉와 같은데, 사업단의 연보수 및 월보수를 기준으로 한 앞선 결과와는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 기관유형별로는 시니어클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자수가 적어질수록 참여자 1인이 받는 보수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연차별 보수는 약간정도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25〉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참여자규모별, 사업연차별 2015년 참여자 1인당 보수

(단위 : 원)

구분		1인당 연보수		1인당 월보수			
				월평균인원 기준		누적참여인원 기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시	3,367,330	1,549,369	297,459	119,950	239,088	102,973
규모	군	2,703,923	1,283,512	256,842	102,643	210,528	76,569
	구	3,599,310	2,049,584	315,458	166,440	236,532	126,378
기관 유형	시니어클럽	3,623,242	1,793,279	317,483	143,394	243,929	112,489
	대한노인회	2,687,371	1,522,902	260,975	113,882	212,022	95,967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2,906,533	1,274,992	261,440	98,678	222,325	83,207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2,861,976	1,696,729	257,876	138,572	207,126	124,684
업종	농림어업	2,046,847	724,612	214,188	60,823	186,581	67,907
	제조업	2,902,807	1,135,331	256,008	87,580	204,437	75,502
	폐기물, 환경복원	3,781,402	1,650,597	325,913	133,023	245,301	112,149
	도소매업	2,785,795	939,081	245,345	74,560	203,452	70,892
	운수업	5,021,618	2,294,333	438,699	176,835	305,881	165,064
	숙박 및 음식점업	3,483,806	1,479,844	307,518	115,382	249,522	97,170
	출판, 영상, 정보 등	8,343,680	.	695,307	.	695,307	.
	부동산, 임대	2,368,525	.	197,377	.	133,778	.
	사업시설, 사업지원	4,106,298	2,593,695	362,027	211,765	272,113	148,255
	교육서비스	6,138,059	.	511,505	.	364,092	.
	예술, 스포츠, 여가	2,768,447	753,582	244,081	55,416	179,802	43,216
	협회, 수리, 개인	3,170,407	1,417,134	288,684	97,465	230,745	81,748
참여 자수 ¹⁾	1~9인	3,334,053	1,582,637	300,812	123,380	241,808	105,981
	10~19인	3,340,446	1,779,498	295,333	140,788	232,050	106,735
	20~29인	3,413,684	1,850,610	299,883	147,017	230,679	121,963
	30~49인	3,467,862	1,984,429	302,731	162,971	226,518	115,587
	50인 이상	3,196,602	1,515,049	279,674	120,706	214,901	88,574
사업 연차	1년차	2,527,904	1,554,653	263,453	127,279	199,006	97,254
	2년차	3,296,162	1,727,794	288,345	139,858	223,092	120,344
	3년차	3,470,329	1,693,121	298,677	137,959	237,740	106,857
	4년차	3,467,830	1,753,428	299,821	142,147	232,183	93,920
	5년차이상	3,732,079	1,670,153	318,267	134,700	256,286	109,967
	계	3,352,076	1,726,366	297,814	136,651	234,172	108,755

주) 월평균참여자수 기준

시장형사업단 중 20개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총 16개 세부사업(전체 사업단의 73% 차지)별로 참여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를 참여자수 1인당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4-26〉과 같다. 1인당 월보수를 월평균인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참여자 1인당 월보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약 47만원의 보수수준을 보였다. 배달업이 44만원으로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소작물재배업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은 보수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여 참여

자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표 4-26〉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2015년 참여자 1인당 보수

(단위 : 원)

구분		1인당 연보수		1인당 월보수			
				월평균인원 기준		누적참여인원 기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업 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207,682	660,890	227,248	69,162	204,942	76,187
	채소작물 재배업	1,818,259	709,985	198,438	50,141	167,614	48,261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733,939	1,513,071	247,004	116,636	193,195	77,305
	식물성 유지 제조업	3,220,036	855,249	269,901	69,203	213,263	60,94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3,632,479	1,466,975	317,209	111,254	245,587	91,052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623,226	875,698	232,985	67,086	169,986	58,247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534,014	829,103	226,217	62,952	205,639	55,578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684,283	1,449,145	307,358	120,200	236,337	102,965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3,781,402	1,650,597	325,913	133,023	245,301	112,14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682,842	953,702	241,994	80,962	200,284	81,320
	늘찬 배달업	5,018,520	2,318,757	438,871	178,721	305,584	166,583
	한식음식점업	4,146,855	1,622,549	359,390	125,881	273,361	112,251
	제과점업	3,292,855	1,407,337	293,110	107,276	244,170	97,326
	비알콜 음료점업	3,020,305	1,196,260	269,495	85,904	232,771	81,020
	건축물 일반 청소업	5,482,400	2,491,074	469,044	203,368	338,365	152,571
	포장 및 충전업	3,095,608	1,529,354	277,266	126,116	221,485	118,870
	계		3,443,117	1,741,619	304,451	137,107	237,692

주) 월평균참여자수 기준

4) 안정성 I : 사업단 측면

(1) 매출액

업종별로 매출액을 2011~2015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4-27〉과 같다. 농림어업과 폐기물, 환경복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수리, 개인서비스업은 2011년에 비해 2015년도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업종은 2011년에 비해 2015년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업종별 연매출액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농림어업	30,125,451	25,988,940	22,934,904	27,164,386	22,386,857
	제조업	39,212,569	36,407,647	41,371,405	42,707,350	41,756,069
	폐기물, 환경복원	83,524,622	60,765,348	64,219,632	62,398,438	60,515,408
	도소매업	37,033,362	40,019,484	36,662,955	41,504,115	55,707,901
	운수업	61,185,521	57,593,188	70,604,270	81,774,840	79,530,285
	숙박 및 음식점업	70,166,074	75,578,176	64,060,700	66,842,611	62,742,117
	출판, 영상, 정보 등	-	-	-	274,204,660	302,234,406
	부동산, 임대	1,157,000	3,913,621	4,646,823	7,471,753	5,781,033
	사업시설, 사업지원	52,516,866	51,109,310	60,916,506	61,033,589	60,154,243
	교육서비스	34,436,500	60,866,620	83,536,130	85,084,760	87,649,500
	예술, 스포츠, 여가	53,518,656	39,258,064	49,881,205	47,823,992	40,497,870
	협회, 수리, 개인	24,819,779	20,885,641	21,751,037	26,120,202	24,231,926
계		50,794,260	49,736,622	50,681,138	53,570,903	52,534,535

시장형사업단 중 20개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총 16개 세부사업(전체 사업단의 73% 차지)을 대상으로, 매출액을 2011~2015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4-28〉과 같다(〈그림1〉 참조). 평균적으로 보면 2011년 55백만원 수준에서 2015년 56백만원 수준으로 약 85만원 가량의 매출액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연도별로 가파른 매출액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는 건축물 일반청소업이 도드라지며 2011년 중간 정도의 매출액 수준에서 2015년에는 가장 높은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음식점업은 매출액 상위 수준에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택배업종이 속해 있는 배달업과 식물성 유지 제조업도 매출액이 비교적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경우 중간 정도의 매출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포장 및 충전업이나 곡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비누 등의 제조업의 경우 낮은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표 4-28〉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연매출액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31,341,605	28,893,105	21,181,235	32,703,493	27,139,955
	채소작물 재배업	51,217,942	24,628,015	27,260,175	23,090,511	15,590,421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6,216,412	23,475,016	33,442,709	34,166,560	35,556,946
	식물성 유지 제조업	52,327,699	52,521,443	63,492,792	72,335,647	82,522,166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54,944,885	49,739,727	60,887,654	66,647,946	67,721,085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39,224,333	34,060,953	46,197,619	40,016,766	40,171,89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4,308,307	13,029,119	13,448,751	16,500,664	20,738,057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52,529,813	54,693,391	59,773,674	59,650,509	56,573,886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83,524,622	60,765,348	64,219,632	62,398,438	60,515,408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1,755,030	41,399,756	35,550,138	39,428,211	51,134,976
	늘찬 배달업	61,557,363	57,436,863	69,466,347	81,352,431	78,827,069
	한식음식점업	86,072,288	86,069,724	93,397,311	95,876,642	92,848,383
	제과점업	82,965,546	74,751,090	61,144,091	67,128,557	78,800,075
	비알콜 음료점업	59,001,064	70,945,083	41,535,192	41,317,558	39,069,220
	건축물 일반 청소업	54,336,031	61,208,268	84,080,802	93,479,159	104,419,066
	포장 및 충전업	38,502,746	36,523,773	35,310,616	35,868,453	32,712,372
계		55,167,649	54,249,320	54,191,803	56,705,579	56,015,098

(2) 원자재비 및 사업운영경비

업종별로 연간 원자재비 총액을 2011~2015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4-29〉와 같다. 농림어업, 도소매업이나 운수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수리, 개인서비스업은 2011년에 비해 2015년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폐기물, 환경복원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원자재비가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9〉 업종별 원자재비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농림어업	7,810,629	5,991,677	5,996,372	7,877,479	8,251,244
	제조업	10,522,030	9,720,802	12,700,207	12,342,359	11,265,035
	폐기물, 환경복원	5,752,412	2,805,699	5,125,603	4,765,742	4,783,934
	도소매업	21,995,470	16,452,082	17,847,346	21,835,384	29,685,704
	운수업	1,504,094	1,637,005	3,419,031	2,680,697	3,880,022
	숙박 및 음식점업	37,186,375	37,658,051	29,969,289	32,097,555	29,836,330
	출판, 영상, 정보 등	-	-	-	1,735,880	732,000
	부동산, 임대	10,802,000	0	1,195,000	1,765,000	610,000
	사업시설, 사업지원	2,169,238	2,284,594	4,357,558	4,056,316	3,209,986
	교육서비스	1,551,240	2,502,100	4,275,010	925,450	0
	예술, 스포츠, 여가	28,643,426	23,750,032	27,769,664	23,652,896	34,731,740
	협회, 수리, 개인	4,109,945	5,057,551	6,444,643	4,911,989	5,125,245
계		15,187,653	15,076,006	15,031,477	15,735,313	15,656,636

시장형사업단 중 20개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총 16개 세부사업(전체 사업단의 73% 차지)을 대상으로, 연간 원자재비 총액을 2011~2015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4-30〉과 같다(〈그림2〉 참조). 식물성 유지 제조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자재비가 대폭 상승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식음식점업은 높은 수준의 원자재비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원자재비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버카페가 주를 이루는 비알콜 음료점업의 경우 2011~2012년에는 원자재비 지출이 많았으나 그 이후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 원자재비는 연도별 평균인 약 15~16백만원 선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양분된다. 그 중 원자재비 지출이 적은 그룹인 과실 및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비누 제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채소 재배업,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배달업, 포장 및 충전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은 낮은 원자재비 수준이 연도별로 대부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중 소폭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원자재비가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비누제조업이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으로 나타났다.

〈표 4-30〉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원자재비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4,461,217	3,545,232	4,201,288	5,515,374	6,869,213
	채소작물 재배업	13,788,140	7,142,039	8,117,644	8,988,571	7,619,083
	기타 파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4,997,367	10,079,655	11,904,973	8,845,499	8,649,479
	식물성 유지 제조업	29,620,381	32,702,440	43,191,044	45,186,142	49,448,03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22,319,002	19,583,150	29,392,772	23,920,270	23,984,853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918,115	1,330,683	2,805,076	4,411,406	2,618,008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6,405,956	7,698,021	8,386,075	9,079,767	9,338,054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464,298	3,272,001	5,379,901	4,370,399	4,801,340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5,752,412	2,805,699	5,125,603	4,765,742	4,783,934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5,174,356	24,883,500	17,936,372	19,737,711	31,592,562
	늘찬 배달업	1,349,405	1,450,490	3,206,256	2,389,195	3,718,214
	한식음식점업	45,943,860	44,357,907	43,053,793	47,403,090	45,135,136
	제과점업	37,829,709	31,470,578	26,454,738	28,193,284	31,561,089
	비알콜 음료점업	31,923,193	35,210,508	19,993,645	19,168,126	18,535,521
	건축물 일반 청소업	3,162,043	2,697,977	3,772,177	4,356,795	4,106,130
	포장 및 충전업	1,756,697	1,689,687	3,011,907	3,086,382	2,491,884
계		16,004,444	16,623,910	15,491,928	16,081,763	16,233,975

연간 사업운영경비의 연도별 변화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많은 업종에서 사업운영경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도별 사업운영경비가 유사한 수준이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업종은 농림어업, 운수업 등이다. 상승폭이 높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2015년 사업운영경비가 2011년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업종별 사업운영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농림어업	7,825,472	6,299,373	8,075,226	6,867,431	7,330,684
	제조업	7,569,395	8,450,770	11,194,652	10,890,736	10,309,815
	폐기물, 환경복원	7,592,110	12,031,774	12,758,032	15,683,745	13,460,945
	도소매업	6,423,888	12,712,100	13,313,369	13,841,382	17,374,797
	운수업	15,535,905	13,060,442	18,133,194	17,355,605	15,219,435
	숙박 및 음식점업	13,337,536	18,464,405	18,195,405	17,633,091	15,742,416
	출판, 영상, 정보 등	-	-	-	45,818,010	80,941,265
	부동산, 임대	948,000	2,463,000	1,337,500	1,475,250	1,597,320
	사업시설, 사업지원	8,586,520	9,523,332	12,670,305	10,893,012	10,652,293
	교육서비스	7,150,640	11,982,350	15,335,190	17,954,620	20,662,830
	예술, 스포츠, 여가	13,750,267	15,635,492	16,853,738	12,715,745	13,441,086
	협회, 수리, 개인	6,045,285	6,328,181	6,732,893	7,533,304	7,033,580
계		9,753,427	11,763,029	13,708,346	13,275,774	12,622,556

시장형사업단 중 20개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총 16개 세부사업의 연간 사업 운영경비 총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그림3〕 참조), 사업운영경비는 곧 참여자 인원수와 직결되기는 하나 〈표 4-32〉에서 보듯이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제과점업 등은 1개 사업단당 참여노인 수가 적은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업운영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의 경우 사업운영경비 지출액이 연도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도 사업운영경비가 연도별로 상승 추세에 있다. 채소작물 재배업이나 비알콜 음료점업의 경우 사업운영경비가 연도별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2〉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사업운영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3,840,733	3,290,550	4,916,911	4,692,144	6,495,317
	채소작물 재배업	22,512,961	11,550,399	13,629,618	9,111,447	6,081,430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5,037,134	5,364,527	10,015,627	10,304,576	7,197,813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285,876	12,002,293	15,824,664	15,739,135	19,298,8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4,667,899	12,943,572	19,141,486	21,488,848	21,732,404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7,004,918	8,382,860	12,006,371	11,072,529	11,114,499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3,974,566	3,563,625	4,690,557	3,485,878	4,570,836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5,141,200	6,564,147	11,028,370	8,989,885	8,728,196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7,592,110	12,031,774	12,758,032	15,683,745	13,460,945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373,198	11,748,251	14,409,227	13,691,053	14,714,357
	늘찬 배달업	15,689,847	12,309,013	16,863,008	16,258,928	14,200,460
	한식음식점업	22,225,686	21,722,475	26,232,149	25,205,089	23,535,286
	제과점업	25,460,434	25,640,607	21,370,659	19,063,650	20,714,634
	비알콜 음료점업	5,277,932	15,354,522	11,233,252	10,594,439	9,537,255
	건축물 일반 청소업	11,930,600	13,062,451	19,247,784	19,449,659	19,052,083
	포장 및 충전업	6,660,228	6,431,036	8,240,042	7,305,411	7,049,976
계		10,363,210	12,215,288	14,313,063	13,751,070	13,016,314

(3) 실수익

업종별 참여자 1인당 연도별 실수익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소매업과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약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11만원까지의 상승폭을 보였다. 농림어업은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업종별 실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농림어업	1,770,267	1,906,523	2,098,102	2,051,280	1,818,687
	제조업	1,870,650	1,867,222	2,218,816	2,424,200	2,470,631
	폐기물, 환경복원	2,646,019	2,456,273	3,052,318	2,868,027	2,941,024
	도소매업	1,462,768	1,823,223	1,992,423	2,210,118	2,362,783
	운수업	2,894,927	3,009,769	3,580,845	3,607,825	3,691,483
	숙박 및 음식점업	2,013,920	2,161,588	2,662,296	2,990,880	3,123,083
	출판, 영상, 정보 등	-	-	-	7,761,451	10,989,955
	부동산, 임대	916,355	1,645,062	2,211,432	2,202,864	1,571,581
	사업시설, 사업지원	2,344,340	2,526,234	3,027,435	3,160,873	3,326,547
	교육서비스	3,138,187	3,819,109	5,196,297	5,057,366	4,457,778
	예술, 스포츠, 여가	1,064,366	1,283,235	1,723,525	2,131,068	(544,193)
	협회, 수리, 개인	2,031,200	1,936,611	2,231,076	2,804,083	2,678,788
	계	2,057,725	2,137,423	2,547,137	2,738,735	2,793,515

주) 누적참여자수 기준

주요 세부업종별 참여자 1인당 연도별 실수익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4] 참조). 특히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상승하였고, 상승추세가 이후 유지되는 사업단과 지속상승되는 사업단, 소폭 감소하는 사업단 등의 경향을 보인다. 건축물 일반 청소업은 지속 상승 추세이며, 택배업, 한식음식점업, 제과점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의 실수익은 상승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비알콜 음료점업의 경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나 지속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초기 투자비 지출 과다, 비숙련에 의한 초기 낮은 생산성 등이 참여자의 숙련도 향상, 초기투자비 감소, 고객의 안정적 확보 등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시장형 참여자 1인당 정부지원금액이 대폭 상승(2012년 130~150만원 → 2013년 180~200만원) 하였는데, 실수익액 산출시 정부지원금액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요인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채소작물 재배업의 경우 연도별로 점차 실수익이 감소 추세이며 수준 자체도 낮아, 수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4〉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실수익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1,758,649	1,822,477	2,075,682	2,316,225	2,012,685
	채소작물 재배업	2,015,358	2,035,200	1,807,483	1,769,507	1,611,512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66,636	1,460,249	2,030,827	2,148,121	2,219,549
	식물성 유지 제조업	1,789,814	2,153,149	2,213,465	2,911,717	2,978,90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697,124	2,215,459	2,028,030	3,010,946	2,961,695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52,892	1,741,956	2,151,289	1,972,713	1,974,653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522,664	1,531,860	1,912,770	2,222,754	2,385,936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532,709	2,594,433	3,018,799	2,861,857	2,992,171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2,646,019	2,456,273	3,052,318	2,868,027	2,941,024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459,452	1,893,875	2,032,898	2,275,130	2,338,105
	늘칸 배달업	2,874,250	3,002,092	3,551,417	3,613,496	3,687,088
	한식음식점업	2,016,033	2,452,287	3,225,212	3,393,241	3,366,874
	제과점업	1,972,922	1,894,959	2,062,642	3,143,583	3,115,687
	비알콜 음료점업	2,011,872	1,988,667	2,372,051	2,647,143	2,913,335
	건축물 일반 청소업	2,426,676	2,784,426	3,625,356	4,056,279	4,426,180
	포장 및 충전업	2,154,230	2,294,134	2,651,239	2,502,067	2,499,137
	계	2,121,295	2,223,376	2,647,434	2,798,525	2,868,152

주) 누적참여자수 기준

(4) 월별 매출액 변화

사업단의 안정성을 업종별로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 사업단 운영실적 변화를 살펴 보았다면, 업종별로 계절변동성의 차이, 즉 연내 월별로 사업단 운영실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가능한 한 월별 편차가 적을수록 사업단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매출수준이 월별로 차이가 심할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신규로 운영이 시작된 신규사업의 경우, 계속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준비기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속사업에 한하여 업종별 매출액이 월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표 4-35〉를 통해 살펴보았다(그림5 참조). 대체로 매출액의 월별 변동성은 크지 않았으며, 월별 농작물 생산량의 차이가 있는 농림어업과, 방학 등의 기간과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의 월별 변동성이 다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5〉 업종별 월별 매출액 변화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농림어업	465,162	715,310	688,319	956,772	1,235,996	1,964,950
제조업	3,088,183	3,653,181	4,189,027	4,024,966	3,864,309	3,880,977
폐기물, 환경복원	4,578,834	4,202,504	4,937,358	5,052,123	5,018,356	5,473,513
도소매업	3,561,681	3,810,399	4,675,711	4,151,205	4,245,613	3,556,275
운수업	7,933,003	7,376,284	7,981,350	7,774,026	8,134,278	8,091,206
숙박 및 음식점업	5,428,901	5,965,643	5,661,147	6,110,786	5,834,564	6,012,525
출판, 영상, 정보 등	24,517,911	24,915,000	24,928,477	24,915,000	24,936,670	25,892,409
부동산, 임대	0	0	751,500	1,281,000	1,133,000	936,375
사업시설, 사업지원	4,525,640	5,015,485	6,084,777	6,169,469	5,554,807	6,061,137
교육서비스	7,782,000	6,538,000	7,862,000	7,998,500	6,498,500	7,449,000
예술, 스포츠, 여가	1,430,640	2,024,702	2,770,760	3,594,576	2,905,027	6,727,706
협회, 수리, 개인	1,913,534	2,053,898	2,477,333	2,410,820	2,419,498	2,149,041
평균	4,146,703	4,503,587	4,862,447	4,905,716	4,772,711	4,909,225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림어업	2,433,036	1,800,166	3,304,769	3,136,482	5,246,650	6,068,947
제조업	3,777,551	3,495,350	4,575,469	4,392,504	4,162,566	4,525,462
폐기물, 환경복원	5,791,908	5,579,962	5,390,772	5,688,014	5,573,014	6,311,284
도소매업	4,407,648	3,888,603	5,734,898	4,999,788	4,822,946	5,420,279
운수업	8,520,964	8,221,154	7,274,221	8,446,321	9,361,101	9,433,884
숙박 및 음식점업	6,030,421	6,224,886	6,658,501	7,105,141	6,035,564	7,110,980
출판, 영상, 정보 등	25,050,300	26,022,300	24,095,270	25,050,300	26,707,010	25,203,759
부동산, 임대	361,000	500,000	465,500	312,000	38,500	2,158
사업시설, 사업지원	5,639,881	4,855,355	5,410,773	6,102,089	6,280,974	6,323,428
교육서비스	7,373,000	6,528,000	7,209,500	7,133,500	7,007,000	8,270,500
예술, 스포츠, 여가	4,028,627	2,943,799	3,914,942	4,794,174	9,368,291	8,700,085
협회, 수리, 개인	2,125,673	1,998,897	2,469,813	2,440,462	2,067,932	2,391,071
평균	4,960,306	4,718,567	5,410,625	5,587,346	5,478,510	6,026,278

마찬가지로 시장형에서 다수 운영되고 있는 세부 16개 업종 중 2015년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계속사업에 한하여 월별 매출액의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36〉과 같다(〔그림6〕 참조). 농작물을 재배한 후 생산품이 발생하여 가을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곡물 및 기타작물 재배업이나 채소작물 재배업의 경우 계절제한적인 재배작물 선정보다는 연중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적 고객층 확보가 어려운 식물성유지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 외의 많은 사업단들은 월별로 대체로 안정적인 매출액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물량을 지속공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이나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의 공동작업장, 연중 물량차이가 심하지 않은 택배업, 고정적 수요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한식음식

점업, 비알콜음료점업 등이 월별로 안정적 매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식음식점업이나 비알콜음료점업 등의 음식 관련 판매업이 월별로 안정적인 매출액 수준을 보이는 것은 수요예측을 가능케 하여 원재료수급 등에 있어서의 낭비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표 4-36〉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월별 매출액 변화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475,531	539,806	542,956	409,011	608,927	1,970,810
채소작물 재배업	835,441	1,579,368	843,154	1,349,171	1,531,034	1,248,037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448,742	3,869,176	4,015,985	4,583,268	4,970,247	4,000,644
식물성 유지 제조업	3,741,585	11,995,318	6,154,599	4,585,200	5,216,973	5,454,830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6,151,427	5,006,322	5,514,417	6,092,494	5,249,697	5,924,817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3,223,750	3,354,494	4,114,761	4,204,516	4,012,372	3,919,205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936,831	1,092,036	1,131,504	1,410,184	2,663,583	1,592,592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5,140,229	4,508,797	4,869,123	5,084,916	5,149,145	4,557,343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4,578,834	4,202,504	4,937,358	5,052,123	5,018,356	5,473,513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257,279	3,110,441	3,293,846	4,077,966	3,995,693	2,837,109
늘찬 배달업	7,924,491	7,386,924	7,984,910	7,705,077	8,108,309	8,019,684
한식음식점업	7,069,583	9,396,447	7,222,630	8,159,035	7,849,330	8,953,055
제과점업	11,046,293	8,199,855	7,254,332	6,523,251	6,156,728	5,426,676
비알콜 음료점업	2,907,065	2,746,220	3,859,428	4,092,150	4,018,026	3,688,366
건축물 일반 청소업	6,249,212	9,498,942	9,601,305	10,507,370	10,446,734	11,800,942
포장 및 충전업	2,968,486	2,473,913	2,924,408	3,833,347	3,233,477	3,042,895
평균	4,520,814	4,976,948	4,911,168	5,165,059	5,161,013	5,190,49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3,047,952	2,090,328	2,486,768	3,149,399	7,136,714	6,720,325
채소작물 재배업	2,852,102	1,619,675	2,779,728	2,124,686	2,560,232	3,609,049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4,253,219	3,616,685	4,039,998	4,368,670	4,417,159	4,303,134
식물성 유지 제조업	5,230,134	4,855,781	16,731,760	9,801,088	6,147,979	7,567,729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6,942,442	6,419,547	5,987,685	5,953,640	6,114,338	6,130,318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4,321,190	3,705,417	3,771,506	4,079,115	4,252,621	4,366,749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235,812	975,511	1,901,964	1,933,054	1,774,348	2,068,098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5,210,264	5,075,055	4,255,936	4,976,258	5,801,535	5,581,411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5,791,908	5,579,962	5,390,772	5,688,014	5,573,014	6,311,284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3,794,820	4,023,111	5,019,504	4,011,923	4,563,854	3,116,186
늘찬 배달업	8,480,204	8,167,690	7,191,107	8,427,319	9,358,806	9,386,498
한식음식점업	8,438,047	8,523,939	9,083,687	10,158,762	8,746,542	10,827,719
제과점업	4,654,321	6,049,845	9,739,909	9,190,920	6,885,441	8,527,654
비알콜 음료점업	4,305,132	4,444,106	4,034,863	4,089,540	3,449,054	3,602,180
건축물 일반 청소업	9,749,290	7,557,865	9,892,222	12,075,144	11,836,714	12,428,718
포장 및 충전업	3,313,611	2,819,014	2,803,707	3,175,955	3,262,413	3,562,142
평균	5,433,708	5,174,445	5,723,691	5,936,680	5,806,701	6,252,630

월별 참여자수 1인당 매출액의 안정성을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4-37>과 같다([그림7] 참조). 인당 매출액 역시 업종별로 대체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의 월별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7> 업종별 월별 인당 매출액 변화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농림어업	500,879	149,385	45,240	66,547	62,614	131,919
제조업	257,457	359,413	295,706	273,722	257,256	247,810
폐기물, 환경복원	278,303	232,502	214,381	217,023	211,430	223,641
도소매업	475,298	504,216	465,365	371,387	360,325	306,827
운수업	465,101	388,498	377,527	387,277	376,601	388,883
숙박 및 음식점업	541,082	526,572	505,177	528,730	489,105	512,489
출판, 영상, 정보 등	1,021,580	1,038,125	1,038,687	1,038,125	1,039,028	1,078,850
부동산, 임대	0	0	75,150	128,100	113,300	93,638
사업시설, 사업지원	282,564	309,189	296,095	315,812	275,621	320,112
교육서비스	432,333	363,222	491,375	499,906	282,543	532,071
예술, 스포츠, 여가	227,628	593,051	66,169	83,550	67,181	124,825
협회, 수리, 개인	247,454	236,187	234,348	228,842	234,679	217,217
평균	387,268	402,631	347,623	342,790	320,701	330,872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림어업	107,546	99,806	186,818	150,960	201,308	270,053
제조업	229,272	223,032	341,183	318,205	281,091	320,529
폐기물, 환경복원	235,739	226,531	217,432	223,424	227,850	273,908
도소매업	394,707	322,913	538,298	452,411	456,063	463,207
운수업	391,091	381,244	350,739	387,854	424,315	417,343
숙박 및 음식점업	517,432	531,837	549,845	602,702	515,092	626,730
출판, 영상, 정보 등	1,043,763	1,084,263	1,003,970	1,043,763	1,112,792	1,050,157
부동산, 임대	36,100	45,455	46,550	31,200	3,500	216
사업시설, 사업지원	289,516	264,578	280,770	298,748	314,583	310,991
교육서비스	526,643	384,000	400,528	419,618	412,176	486,500
예술, 스포츠, 여가	81,984	60,111	81,159	104,281	203,883	236,315
협회, 수리, 개인	226,247	204,308	245,509	246,044	215,531	262,516
평균	327,400	319,567	384,940	388,052	361,374	413,787

주) 월별 누적참여자수 기준

월별 참여자수 대비 매출액의 안정성을 20개 이상 운영되는 세부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표 4-38>과 같으며([그림8] 참조), 매출액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정수요처의 확보가 어려운 식물성 유지 제조업의 매출액 변동폭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농작물 재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매출액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8〉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월별 인당 매출액 변화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1,507,401	185,802	40,485	39,573	41,835	135,988
채소작물 재배업	85,227	170,585	36,649	105,973	79,187	77,304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86,033	397,190	173,458	190,351	213,408	173,963
식물성 유지 제조업	405,585	1,583,120	671,879	570,385	672,444	586,449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610,241	483,893	442,266	453,167	383,957	425,505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60,389	144,017	124,621	131,271	122,566	125,244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19,256	134,666	97,721	117,140	247,371	134,056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23,940	187,946	201,452	208,919	215,859	193,118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278,303	232,502	214,381	217,023	211,430	223,641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368,430	540,369	327,418	397,295	387,917	258,017
늘찬 배달업	458,417	382,089	369,486	376,917	367,359	374,669
한식음식점업	721,561	749,202	625,468	673,060	628,278	713,906
제과점업	779,631	662,573	524,957	468,526	476,285	503,467
비알콜 음료점업	346,823	316,250	384,981	394,871	366,871	350,303
건축물 일반 청소업	373,757	601,220	440,339	479,407	470,742	568,072
포장 및 충전업	175,402	124,297	134,503	182,177	163,812	165,425
평균	398,065	417,920	327,914	340,954	334,331	338,48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104,466	81,493	164,432	113,606	227,861	276,764
채소작물 재배업	128,642	147,778	164,447	169,527	193,154	280,906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21,335	167,377	200,780	308,982	252,754	247,675
식물성 유지 제조업	580,533	522,377	1,974,617	1,151,608	621,442	826,781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458,558	444,943	416,340	442,500	460,156	443,117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36,820	129,174	121,851	138,177	132,320	148,590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08,809	80,802	170,441	170,418	167,644	191,446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23,134	203,556	175,603	198,980	252,692	236,887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235,739	226,531	217,432	223,424	227,850	273,908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344,113	356,029	481,708	381,975	444,530	304,975
늘찬 배달업	381,368	367,923	336,443	377,627	415,495	404,849
한식음식점업	677,376	676,148	715,359	833,312	707,922	920,049
제과점업	378,852	509,888	725,259	729,056	597,795	771,522
비알콜 음료점업	408,400	416,550	376,014	378,196	329,884	349,161
건축물 일반 청소업	435,561	354,659	424,726	506,631	505,118	521,490
포장 및 충전업	173,395	156,200	153,765	173,277	177,377	183,380
평균	343,875	336,950	397,310	396,567	364,807	411,780

주) 월별 누적참여자수 기준

5) 안정성Ⅱ : 참여노인 측면

(1) 참여기간

시장형사업단별 참여자의 2015년 평균 참여개월수⁵⁾는 약 7.9개월로 9개월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사업단 내 참여노인 개인별 기간을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중도포기자나 신규참여자 발생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이 연초부터 개시되지 못하고 연중에 개시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군단위, 기관유형별로는 대한노인회, 업종별로는 운수업 등의 참여자 평균 참여개월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준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참여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계속사업으로 한정하였을 때 2015년 평균 참여개월수는 약 8.4개월로 약 0.5개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경향은 신규사업을 포함했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39〉 지역규모별, 기관유형별, 업종별 평균 참여기간

구분		전체사업 기준		계속사업 기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시	8.2	2.1	8.6	1.7
	군	7.6	2.3	8.2	1.7
	구	7.7	2.2	8.3	1.7
기관유형	시니어클럽	7.9	2.1	8.4	1.7
	대한노인회	7.5	2.1	8.1	1.7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8.4	2.4	9.0	1.6
	기타(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등)	8.0	1.9	8.3	1.6
업종	농림어업	7.5	1.7	7.9	1.6
	제조업	8.1	1.9	8.4	1.5
	폐기물, 환경복원	7.8	1.9	8.2	1.4
	도소매업	8.5	1.9	8.8	1.7
	운수업	6.8	2.5	7.7	1.8
	숙박 및 음식점업	8.2	2.4	8.9	1.7
	출판, 영상, 정보 등	11.0	-	11.0	-
	부동산, 임대	7.1	-	7.1	-
	사업시설, 사업지원	7.6	2.3	8.1	1.8
	교육서비스	9.5	-	9.5	-
	예술, 스포츠, 여가	7.5	2.3	7.5	0.9
	협회, 수리, 개인	7.8	2.4	8.3	2.1
	계	7.9	2.2	8.4	1.7

5) 사업단별 참여자의 평균참여개월수를 평균한 값이므로 시장형 전체 참여자의 평균참여개월수와는 차이가 있음

(2) 월별 참여자수 변화

2015년 신규로 운영이 시작된 신규사업의 경우, 계속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준비기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속사업에 한하여 참여자수가 월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결과는 다음 <표 4-40>과 같다([그림9] 참조). 농림어업과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연중 유사한 참여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 1,2월에 참여자수가 다소 적은 업종이 있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표 4-40> 업종별 월별 참여자수 변화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농림어업	2.0	5.4	17.0	21.0	21.6	21.8
제조업	14.8	16.3	20.6	21.0	20.8	20.9
폐기물, 환경복원	17.9	17.9	25.6	26.0	25.8	26.0
도소매업	8.0	8.5	13.1	13.1	13.3	13.5
운수업	18.6	19.1	20.9	20.7	20.7	20.9
숙박 및 음식점업	10.0	10.9	12.1	12.3	12.3	12.2
출판, 영상, 정보 등	24.0	24.0	24.0	24.0	24.0	24.0
부동산, 임대	10.0	10.0	10.0	10.0	10.0	10.0
사업시설, 사업지원	17.6	18.8	22.5	22.6	22.3	22.4
교육서비스	18.0	18.0	16.0	16.0	23.0	14.0
예술, 스포츠, 여가	3.8	10.8	38.0	38.4	39.2	38.4
협회, 수리, 개인	7.3	8.9	10.2	10.4	10.0	9.8
평균	12.6	13.9	17.8	18.3	18.3	18.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림어업	22.1	22.0	21.7	21.6	20.8	16.8
제조업	20.9	20.5	20.7	21.0	20.8	20.6
폐기물, 환경복원	26.3	26.1	26.3	26.6	26.3	25.8
도소매업	13.5	13.5	13.7	13.6	13.1	11.9
운수업	21.3	20.9	21.1	21.3	21.3	21.6
숙박 및 음식점업	12.2	12.2	12.2	12.2	12.0	11.9
출판, 영상, 정보 등	24.0	24.0	24.0	24.0	24.0	24.0
부동산, 임대	10.0	11.0	10.0	10.0	11.0	10.0
사업시설, 사업지원	21.2	21.2	22.4	21.9	22.1	22.2
교육서비스	14.0	17.0	18.0	17.0	17.0	17.0
예술, 스포츠, 여가	38.0	37.8	36.6	35.8	32.8	29.0
협회, 수리, 개인	9.3	9.4	10.0	10.0	9.9	8.9
평균	18.2	18.1	18.3	18.3	18.1	17.6

또한 세부업종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41>과 같다([그림10] 참조).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1월부터 2월까지의 참여자수가 다소 적다가 3월 가량부터

참여자수의 안정화 경향을 보인다. 업종들 중 자동차부품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두부 제조업, 한식음식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등이 참여자수의 계절변동성이 매우 적은 업종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이나 곡물 및 기타작물 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참여자수에 있어 계절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농사업의 경우 농한기 참여자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반드시 선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월까지 참여자수가 적다가 3월부터 참여자수 안정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예산배정이 매년 연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배정시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업계획서 승인시기 역시 전년도 말 사전심사가 원칙이나 매년 정책 또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제도적 문제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업종의 계절변동적 특성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표 4-41〉 20개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월별 참여자수 변화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1.4	5.5	15.4	24.6	24.7	25.4
채소작물 재배업	3.3	6.6	14.6	14.2	14.5	14.5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7.3	19.4	25.1	24.7	24.6	24.3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2	10.1	10.9	11.0	11.0	11.1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1.5	11.5	13.8	13.8	13.6	13.8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3.9	28.8	35.1	35.9	35.6	35.8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6.6	8.2	12.9	13.0	13.1	13.0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5.3	25.2	25.7	26.2	25.7	25.5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17.9	17.9	25.6	26.0	25.8	26.0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7.1	6.5	12.9	12.9	12.9	13.5
늘찬 배달업	18.8	19.3	21.1	20.9	20.9	21.1
한식음식점업	11.1	11.8	13.3	13.6	13.6	13.7
제과점업	11.7	12.3	13.8	13.7	13.5	13.4
비알콜 음료점업	8.8	9.9	10.9	11.1	11.2	10.9
건축물 일반 청소업	18.8	19.5	21.9	22.0	21.8	22.1
포장 및 충전업	18.9	20.8	25.5	25.8	25.3	25.2
평균	13.9	15.3	18.8	19.3	19.3	19.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5.7	25.4	25.2	24.8	24.2	15.4
채소작물 재배업	14.1	13.9	13.2	13.6	11.5	9.8
기타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3.6	23.7	24.1	23.0	23.8	23.9
식물성 유지 제조업	11.3	11.3	11.2	11.3	11.2	11.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4.4	14.1	14.2	14.1	14.3	13.9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35.6	34.9	35.2	36.2	36.2	36.0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3.1	12.5	13.1	13.1	12.9	12.6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5.7	25.6	25.5	26.1	26.7	27.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26.3	26.1	26.3	26.6	26.3	25.8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3.4	13.7	13.8	13.8	13.8	11.4
늘찬 배달업	21.5	21.1	21.4	21.5	21.5	21.8
한식음식점업	13.7	13.5	13.4	13.2	12.8	12.9
제과점업	13.1	13.1	12.9	12.7	12.6	12.1
비알콜 음료점업	11.1	11.1	11.2	11.4	11.3	11.0
건축물 일반 청소업	22.1	22.1	22.8	23.1	23.0	22.9
포장 및 충전업	22.8	23.0	24.8	23.8	24.2	24.7
평균	19.2	19.1	19.3	19.4	19.3	18.7

(3) 연도별 보수 변화

업종별 참여자 1인당 연보수는 〈표 4-42〉를 통해 볼 때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1〕 참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정부지원금이 연 60만원가량 증가했

음을 고려할 때, 대폭 보수가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도별 보수 상승 폭이 특히 큰 업종으로는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협회, 수리,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이나 폐기물, 환경복원업은 1인당 보수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업종별 참여자 1인당 연보수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농림어업	1,692,248	1,909,989	1,999,121	2,026,677	1,772,346
	제조업	1,772,619	1,837,483	2,139,142	2,271,005	2,314,438
	폐기물, 환경복원	2,563,508	2,421,317	2,912,757	2,805,911	2,844,576
	도소매업	1,412,697	1,704,930	1,775,676	2,134,928	2,305,043
	운수업	2,718,479	2,935,713	3,500,426	3,524,804	3,517,625
	숙박 및 음식점업	1,837,320	1,999,587	2,301,497	2,699,570	2,827,069
	출판, 영상, 정보 등	-	-	-	5,111,320	8,343,680
	부동산, 임대	903,548	1,628,000	2,188,900	1,940,909	1,605,333
	사업시설, 사업지원	2,255,316	2,392,491	2,849,912	2,949,618	3,133,127
	교육서비스	3,131,179	3,813,331	5,086,807	4,980,227	4,369,104
	예술, 스포츠, 여가	1,068,656	1,433,779	1,975,986	2,129,847	2,023,620
	협회, 수리, 개인	1,893,097	1,919,909	2,109,205	2,568,223	2,517,946
계		1,939,346	2,059,449	2,373,976	2,563,613	2,629,466

주) 누적참여자수 기준

20개이상 운영되는 세부업종별 연보수는 〈표 4-43〉을 통해 볼 때 연도별로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12〉 참조). 2011년 2백만원 수준에서, 2015년 268만원 수준으로 약 68만원 증가하였는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정부지원금이 연 60만원가량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대폭 보수가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건축물 일반청소업, 한식음식점업은 지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택배가 속한 배달업은 상승 후 안정적인 보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채소작물 재배업은 실수익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보수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업종으로, 업종운영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표 4-43〉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참여자 1인당 연보수 연도별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1,666,285	1,728,133	2,016,462	2,332,740	1,979,487
	채소작물 재배업	1,992,195	2,152,297	1,724,492	1,743,305	1,539,965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459,950	1,412,061	1,890,131	2,008,995	2,116,606
	식물성 유지 제조업	1,622,432	1,791,331	2,199,039	2,448,359	2,543,200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675,981	2,123,255	2,088,609	2,779,453	2,801,570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14,321	1,689,834	2,093,192	1,900,171	1,916,050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455,026	1,702,001	1,800,745	2,053,080	2,303,051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453,711	2,510,192	2,905,362	2,764,876	2,834,477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2,563,508	2,421,317	2,912,757	2,805,911	2,844,576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324,002	1,739,971	1,761,135	2,101,884	2,205,988
	늘찬 배달업	2,709,736	2,930,106	3,487,360	3,522,734	3,510,812
	한식음식점업	1,964,061	2,280,134	2,629,357	2,998,267	3,151,295
	제과점업	1,830,983	1,906,109	1,953,274	2,625,853	2,723,631
	비알콜 음료점업	1,775,992	1,800,564	2,173,375	2,469,497	2,606,336
	건축물 일반 청소업	2,305,369	2,614,889	3,270,626	3,535,477	3,970,925
	포장 및 충전업	2,079,704	2,235,638	2,562,546	2,429,344	2,459,752
	계	2,008,566	2,124,387	2,466,631	2,611,128	2,682,088

주) 누적참여자수 기준

(4) 월별 보수 변화

업종별 월별 1인당 보수는 〈표 4-44〉를 통해 볼 때, 수준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그림13] 참조), 많은 시장형사업이 근로계약상 시급, 또는 월급의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화(서비스) 생산량을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보수를 월별로 유사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월별 변동성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업종별 월별 보수 변화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농림어업	142,461	101,530	161,435	176,780	183,128	232,715
제조업	247,426	251,616	260,837	262,124	260,340	248,947
폐기물, 환경복원	283,746	286,120	330,976	327,688	328,309	332,358
도소매업	233,720	240,259	240,789	248,557	245,228	220,581
운수업	536,283	466,226	466,042	475,949	473,313	480,886
숙박 및 음식점업	314,222	296,483	314,050	309,441	312,359	279,185
출판, 영상, 정보 등	670,030	657,875	657,875	657,875	658,158	659,333
부동산, 임대	200,000	73,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사업시설, 사업지원	336,951	377,122	356,982	382,828	372,028	383,083
교육서비스	432,333	446,556	588,875	602,406	362,935	632,071
예술, 스포츠, 여가	208,836	184,082	222,232	229,616	247,073	253,565
협회, 수리, 개인	337,528	302,494	318,944	303,189	315,434	281,948
평균	309,226	296,493	299,098	301,842	301,195	291,697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림어업	204,315	218,489	252,693	246,331	277,876	385,736
제조업	269,632	252,328	289,626	273,554	277,066	299,183
폐기물, 환경복원	337,306	323,454	337,294	339,540	335,716	337,429
도소매업	251,509	251,458	275,880	246,996	249,499	244,794
운수업	491,858	451,562	467,885	503,857	504,200	514,207
숙박 및 음식점업	320,991	308,722	334,070	326,018	329,951	350,583
출판, 영상, 정보 등	659,333	659,333	859,333	659,333	714,201	831,000
부동산, 임대	215,000	192,045	200,000	215,000	212,500	200,000
사업시설, 사업지원	384,537	358,569	382,749	401,572	396,575	418,733
교육서비스	619,500	466,353	496,083	517,265	505,118	580,618
예술, 스포츠, 여가	244,916	261,751	251,570	242,931	220,463	163,276
협회, 수리, 개인	303,581	286,880	335,981	330,598	342,400	321,425
평균	311,518	296,484	325,811	320,246	324,901	346,575

주) 월별 누적참여자수 기준

세부업종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4-45〉와 같다(그림14 참조). 택배업의 경우 참여자보수가 높은 수준으로 월별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식음식점업도 택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월별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두부 제조업, 비알콜 음료점업 등의 경우 평균적 보수수준에서 월별로 안정적인 보수수준을 보인다.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의 경우 보수가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월별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식물성유지 제조업의 경우 보수수준이 높지 않으면서도 월별 변동성도 심한 편으로 나타나 참여자 보수 측면에서의 안정적 업종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곡물 및 기타작물 재배업과 채소작물 재배업의 경우 앞선 월별 매출액 현황과 마찬가지로

지로 보수수준도 변동폭이 커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4-45〉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월별 보수 변화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137,451	83,847	160,264	177,060	172,635	215,855
채소작물 재배업	159,667	107,007	181,590	199,319	193,207	207,645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7,075	230,023	251,483	266,837	285,040	263,245
식물성 유지 제조업	240,881	311,006	244,663	253,285	252,287	237,86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336,159	337,798	350,959	320,909	326,266	298,097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18,355	228,441	248,983	244,736	237,339	231,945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91,191	206,898	202,572	209,034	232,607	178,343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98,268	287,322	325,979	344,883	326,343	309,255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283,746	286,120	330,976	327,688	328,309	332,358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16,566	255,914	215,723	235,700	228,691	189,254
늘찬 배달업	539,914	466,750	467,729	477,663	474,771	481,943
한식음식점업	371,301	347,701	365,705	355,513	350,224	346,381
제과점업	285,841	320,158	266,976	280,282	340,030	336,360
비알콜 음료점업	272,381	245,571	279,716	277,293	276,523	216,937
건축물 일반 청소업	382,366	576,768	458,393	475,037	461,171	488,607
포장 및 충전업	262,532	238,176	273,125	308,125	291,674	300,223
평균	317,521	305,709	307,580	311,352	310,197	296,61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06,368	204,986	292,801	205,829	317,488	409,138
채소작물 재배업	181,119	231,039	233,510	260,851	324,746	234,474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75,347	264,304	285,638	288,175	263,516	297,111
식물성 유지 제조업	252,156	258,125	422,809	271,450	282,984	318,12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329,942	319,160	342,285	318,182	330,277	336,387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42,928	243,466	248,952	252,105	257,160	258,588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1,591	201,289	224,758	233,886	233,733	291,473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13,562	306,388	307,547	331,118	338,892	322,406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37,306	323,454	337,294	339,540	335,716	337,4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29,671	218,216	273,558	237,280	242,673	224,045
늘찬 배달업	494,047	452,342	467,449	505,697	506,206	517,223
한식음식점업	363,385	353,921	376,081	376,270	400,646	434,158
제과점업	292,419	277,422	360,370	311,221	298,208	306,683
비알콜 음료점업	295,624	280,565	295,931	287,813	280,058	292,464
건축물 일반 청소업	466,928	408,435	489,446	519,442	506,658	552,621
포장 및 충전업	304,129	290,918	289,628	314,888	313,999	301,346
평균	316,927	304,471	331,715	327,849	336,106	351,178

주) 월별 누적참여자수 기준

6) 기타

시장형사업단은 다른 사업유형과는 달리 전체 참여노인의 동의하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비노인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업종별로 전문인력 활용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4-46>과 같다. 전체 사업단 중 6.2% 가량이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1.2%로 전문인력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업종별 전문인력 유무

(단위 : 개, %)

구분		전문인력 없음		전문인력 있음		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업종	농림어업	77	97.5	2	2.5	79	100.0
	제조업	320	96.1	13	4.0	333	100.0
	폐기물, 환경복원	34	94.4	2	5.6	36	100.0
	도소매업	58	93.5	4	6.5	62	100.0
	운수업	93	96.9	3	3.1	96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253	88.8	32	11.2	285	100.0
	출판, 영상, 정보 등	1	100.0	0	0.0	1	100.0
	부동산, 임대	1	100.0	0	0.0	1	100.0
	사업시설, 사업지원	87	95.6	4	4.4	91	100.0
	교육서비스	1	100.0	0	0.0	1	100.0
	예술, 스포츠, 여가	7	87.5	1	12.5	8	100.0
	협회, 수리, 개인	28	93.3	2	6.7	30	100.0
	계	960	93.8	63	6.2	1,023	100.0

전문인력 유무에 따라 1인당 실수익 및 보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47>과 같다. 실제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사업단이 전체의 6.2% 가량에 불과하여 해석상 주의할 필요는 있으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단이 그렇지 않은 사업단에 비해 1인당 연간 실수익 및 보수 측면에서 보다 나은 운영실적을 나타내었다. 전문인력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사업운영경비의 하나로, 지출액 증가에 따라 실제 수익이나 보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4-47〉 전문인력 유무에 따른 실수익 및 연보수 차이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실수익	전문인력 있음	3,383,348	2,035,400	2.896**
	전문인력 없음	2,754,523	1,642,653	
	전체	2,793,515	1,675,384	
연보수	전문인력 있음	3,029,992	1,445,143	2.280*
	전문인력 없음	2,602,988	1,353,590	
	전체	2,629,466	1,362,596	

**p<.01, *p<.05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다르게 요율이 책정된다. 2015년 시장형사업단의 배정일자리수 대비 연간 산재보험료 금액은 다음 〈표 4-48〉과 같으며, 일자리 1개당 평균 28,782원의 산재보험료를 지출하였다. 도소매업(17,500원), 숙박 및 음식점업(18,036원)은 다소 적은 산재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으며, 농림어업(42,432원), 운수업(39,088원),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3,336원), 폐기물, 환경복원업(33,159원)이 비교적 높은 산재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동일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장형 사업내에서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 지출에 차등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비인 산재보험료 지출액이 큰 사업단에 대한 예산 차등지원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4-48〉 업종별 일자리1개당 연간 산재보험료 지출액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업종	농림어업	42,432	34,642
	제조업	31,872	23,491
	폐기물, 환경복원	33,159	36,830
	도소매업	17,500	10,628
	운수업	39,088	45,533
	숙박 및 음식점업	18,036	17,902
	출판, 영상, 정보 등	29,505	-
	부동산, 임대	15,473	-
	사업시설, 사업지원	33,336	34,030
	교육서비스	33,054	-
	예술, 스포츠, 여가	34,212	16,733
	협회, 수리, 개인	30,719	21,700
계		28,782	28,170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배정일자리수 대비 연간 산재보험료 금액은

다음 <표 4-49>와 같으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의 산재보험료가 5만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한식음식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등의 세부 업종은 일자리수 1개당 산재보험료가 2만원 미만으로 적었다.

<표 4-49>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일자리1개당 연간 산재보험료 지출액

		(단위 :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51,310	44,250
	채소작물 재배업	32,934	16,277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3,107	13,420
	식물성 유지 제조업	23,330	24,328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34,217	23,559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9,237	14,089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31,769	16,099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8,163	21,163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33,159	36,830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6,875	8,178
	늘찬 배달업	39,555	45,836
	한식음식점업	18,558	21,586
	제과점업	24,325	22,960
	비알콜 음료점업	16,920	13,861
	건축물 일반 청소업	51,761	40,905
포장 및 충전업		26,102	21,689
계		28,068	28,136

7) 소결

업종별로 평균적인 배정일자리수 및 참여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일자리 수요충족을 위해 시장형의 사업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의거한다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단을 다수 늘리는 것보다는 중형규모 이상의 사업단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업종의 특성에 맞게 사업단 규모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업종별로 소규모 운영이 적합한 경우와 중형규모 이상의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매출액은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특히 운수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또 참여자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내에서 투입되는 원자재비가 매출액의 29.8%로 높은 규모이기 때문에 원

자재비 감소를 위한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매출액이 높다 하더라도 원자재비 규모가 크다면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적인 사업확대에 한계가 있다. 원자재비가 적게 발생하는 업종을 개발하거나, 그러한 업종을 확대해 나가는 것, 추가적 재원마련을 통해 원자재비를 확보하는 것이 참여자의 보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차가 증가할수록 초기투자비용 등에 수반되는 원자재비는 적어야 하나 실제 분석결과 원자재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료비가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업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규모가 클수록 교육, 홍보 등에 수반되는 사업운영경비도 증가하였다. 특히 1인당 사업운영경비는 업종별로 30만원선에서부터 250만원선까지 큰 폭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사업운영경비 역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매년 180~2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출액과 정부지원금에서 원자재비와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실수익이 낮은 업종들은 장기적 자립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업종별로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이 실수익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영연차가 길수록 실수익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장 연차가 짧고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자연히 실수익액도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영실적을 선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자가 받는 보수 역시 연차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원자재비는 점차 상승하는 업종, 지속적으로 높은 업종, 감소하는 업종, 지속적으로 낮은 업종 등으로 나뉘며, 사업운영경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업종과 감소 추세에 있는 업종 등으로 나뉜다. 이렇게 업종에 따른 연도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입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사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월별 매출액 및 참여자수 변화는 업종자체의 특성상 매출액의 등락이 심한 경우 및 수요를 사전예측할 수 없어 매출액의 등락이 심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월별 보수 변화는 보수수준 차이와 상관없이 등락이 심한 경우와 안정적인 경우로 나뉘어졌다. 업종별로 보수는 연도별로 대체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지원금이 연도별로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대폭 보수가 향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업종별, 연도별 실수익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채소작물 재배업은 연도별로

실수익이 감소추세이며 수준 자체도 낮고 변동폭도 심한 등 농림어업이 각종 분석지표에서 낮은 실적을 보여,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업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시장형 업종별 인터뷰 결과

새누리DB만으로는 시장형사업단의 운영결과를 좌우하는 사업운영상의 질적 특성들을 살펴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업종별로 사업운영과 관련된 질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5년 새누리DB 기준 실수익 및 보수 상위 50개 사업단 또는 2015년 성과진단 결과 40점 이상 45개 사업단 운영기관 중 업종별 분포를 고려하여 5개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단의 팀장 이상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각 면접시 약 9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주요 면접내용은 사업배경, 사업운영현황, 수익확보, 네트워킹, 확대 및 자립가능성 등이다. 우수업종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되, 방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사업에 대한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다.

〈표 5-1〉 시장형사업단 사례분석 기관 개요

	기관유형	지역유형	우수업종	기타 사업
A기관	기타	대도시	운수업(아파트택배)	공동작업장, 실버카페
B기관	대한노인회	대도시	운수업(아파트택배)	공동작업장
C기관	시니어클럽	중소도시	출판, 영상, 정보	-
D기관	시니어클럽	중소도시	한식음식점업(반찬제조판매)	공동작업장
E기관	시니어클럽	중소도시	비알콜 음료점업(실버카페)	-

1) 운수업(아파트택배)

A기관과 B기관은 아파트택배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 실수익 및 보수가 상위 50위 내 속해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A기관은 4년차 사업으로 가구수가 많은 2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1개 택배사의 물량에 대하여 거점 내 택배물품 배송 및 집하를 실시하고 있다. 택배사업은 초기 사업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운영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기관에서 판단하고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개 아파트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와의 회의를 통해 협의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인을 참여자로 채용할 것을 아파트측에 제안함을 통해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 택배물량의 집하를 위해서는 일정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기관은 1개 아파트 단지는 4평에 해당하

는 일부 공간을 무상임대하여 참여자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실 내 건물 일부분을 쓰고 있다. 거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초기비용이 발생하였다.

1개 택배사와 거래하다 보니 택배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직무교육은 택배사 측에서 직접 실시하는데, 사업초기 업체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2개월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4시간 가량 근무한다. 조장은 평소 관리만 실시하다가 참여자 중 1명이 부득이하게 출근이 힘들 경우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강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데, 20kg로 택배 중량을 제한하였음에도 김장철이나 수확철 등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높은 노동강도에 따라 다른 시장형 업종에 비해 수익이 높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택배사의 전물량 배송이 힘들어 택배사 측에서 일부를 나누어 배송하였으나, 현재는 1개 택배사의 전량을 소화가능한 상태로 숙련도가 향상되었으며 물량 자체도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 향상이 기대된다. 수익은 개별적으로 배달완료한 택배량과 관계없이 동일 단지 참여자의 경우 공동분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업종의 계절변동성이 적어 수익이 월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수익금 중 일부를 제하여 퇴직적립금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개 아파트단지를 추가로 협의하여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B기관의 경우,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아파트택배사업을 개발 후 보급하던 초창기인 2008년에 A,B 아파트 9,000세대의 입주시기와 맞물리면서 경로당과 협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택배사 입장에서 배송이 힘든 지역이어서 노인에게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였으며, 특히 신규 아파트 경로당은 젊은 인력들이 많아 이들을 참여자로 채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아파트 입주민인 참여자가 60%, 외부 참여자가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택배사의 물량을 받지만 전물량을 소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가는 회사별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초 거점이었던 경로당은 2층에 위치하여 배송 및 집하에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동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1층 사업소를 15평 가량 무상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하의 별도 공간 중 주차공간으로 쓸 수 없는 곳을 임대한 것이며, 천장공사 초기비용은 기관이 부담하였다. 거점이 지하이기 때문에 집하 및 배송이 매우 편리한

상태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투자비는 밀개, 작업복, 별도공간에 대한 사무설비 등이 소요되었으며 시장형 사업비를 활용하였다. 이후는 3년 단위로 밀개 교체 등의 비용 외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농협 등 외부 후원처를 발굴하여 일부 설비를 지원받았다.

현재 보조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높은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당초 수익금 공동분배에서 최근 높은 보수를 희망하는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로 나누어 물량을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택배사에서는 동별 전담 택배원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나, 단지별로 언덕이 심한 곳 등 근무환경 차이가 심하여 6개월마다 한번씩 담당동을 순환배치하고 있다. 택배량은 동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A기관과 마찬가지로 노동강도가 높으나 무게제한(20KG 미만), 크기제한(가로·세로 160cm 이하)을 두어 중도포기 노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재 외 병원비 등의 실비지원을 위하여 규정을 통하여 수익금을 일부 적립하고 있다.

B기관의 아파트택배 사업은 현재 수요 측면에서 확대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여력상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초창기에 아파트택배를 희망하는 타 단지도 개발했으나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관내 타기관으로 물량을 이관한 경험이 있다. 또한 택배사에서 50% 가량의 물량만을 받고 있어서 전량을 받는다면 참여자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나 기관 측의 행정관리가 어려운 상태이어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2) 한식음식점업(반찬제조판매)

D시니어클럽은 업종을 선정하기 전, 노인들의 역량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였으며, 철저한 시장조사를 사전 실시하여 맛별이부부 대상 반찬제조판매의 필요성을 착안하였다. 사업시작시 기관 단독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안정성 있는 공급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연계하여 여성가족부의 ‘일하는 여성 반찬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한식음식점업의 1개 사업단당 참여자수 평균은 16.9명으로 산출되었는데, D기관 역시 유사한 수준의 참여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제조판매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요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공영역의 보호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성공요인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동의 오후급식, 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매출이 안정적이고, 계절변동성도 적다.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가 소요되는데, 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하여 지역내 유희시설을 무상임대할 수 있을 경우 가장 좋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D기관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1층이 아닌 2층을 임대하여 월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

앞선 분석결과에서도 보듯이, 한식음식점업에서는 1인당 300만원 이상의 원자재비가 소요된다. 실수익 향상을 위해서는 원자재에 대한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D기관은 사업단 간 연계로 이를 절감하고 있다. 즉, 농작물을 재배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농장사업단을 함께 운영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러한 재료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식재료 일부를 경매를 통하여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으며, 재료수급조절 및 맛의 표준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인 조리장을 기용, 조미료까지 조리장이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기관의 담당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지자체 사회복무요원을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고, 방학기간에는 지자체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도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식품제조허가를 받아 학교급식에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반찬제조를 요청하는 학교는 있으나 사업단이 식품제조허가가 아닌 즉석제조허가만 있는 상태여서 학교급식을 선점할 수 없었다. 만약 식품제조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매출 및 고용 등에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3) 비알콜 음료점업(실버카페)

A기관과 E기관은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형태는 상이하다. 먼저 주력사업으로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E기관을 살펴보겠다.

E기관은 시니어클럽으로 실버카페 매장을 44개 운영하고 있어 노인일자리로 실버카페를 가장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E기관은 실버카페 운영을 위하여 기업체와 연계하여 초기투자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관내 기업의 펀드유치를 위해 기업 내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제안서를 다수 제출해 왔으며, 대기업 A사로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금융권 기업 3곳 이상도 기업 부지내 실버카페를 입점시켜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추가적인 기업들이 실버카페에 후원 의사가 있다고 밝혀 오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체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사업장 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는 모두 수익금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장이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으로 사업장 무상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주요 관공서 등 괜찮은 입지조건을 가진 부지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단, 금융기업 입점매장은 금융법상 부지 무상임대가 불가하여 매출의 5%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후원이 기업으로부터 지속되고 있다. E기관은 후원기업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현관, 간판, 컵홀더 등을 통해 기업의 후원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44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E기관은 카페전담 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을 확보하여 교육사업단을 시장형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강사 3명을 노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자체 매뉴얼을 제작, 보유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으로 매뉴얼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육장 내 모든 기계를 각 매장과 동일하게 배치하여 실제 근무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0시간 교육이수시에만 매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4개 매장 참여자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전담하다 보니 교육장은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매장이 오픈 계획이 잡히면 바로 신규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은 회당 16~18명, 최대 20명까지 실시하고 있다. 교육생에게는 전과정 교육비가 무료이며, 교육운영 경비는 참여자가 배치되는 각 매장의 수익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교육후 사업참여시 6개월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참여자는 사업단별로 5-6명(2인1조)에서 최대 16명(4인1조)까지 참여중이며, 선발 및 교육후 배치시 건강상 중도포기 등 개인적 사유 외에는 지속참여하고 있다. 기선발된 참여자의 계속참여율이 높고 이에 따라 숙련도 유지가 가능하다. 다수의 어르신이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도록 1인당 월59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참여자 역시 파트타임 근무로 인해 개별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참여자는 대부분 여성이나, 매장별로 1~2명씩 남성참여자가 배치되어 있다. 대기자는 3개 권역별로 100여명씩 존재하는 상태이다. 근로시간이 짧고, 특정시간에 고객이 몰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인원을 배치한 상태이므로 특별히 노동강도는 높지 않다.

실무자는 관 내 산재된 44개 매장을 동부, 남부, 서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실무자가 주 2-3회 각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참여자 중 1인을 점장으로 지정, 운영하되, 1~3개월간 활동 후 교대하여 전 참여자가 책임감 있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장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에서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여 전담인력과 동일하게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실버카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전문인력 등을 포함하여 약 10명 이상의 실무자와 관리자가 전담, 또는 겸직으로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카페프랜차이즈 매장도 본사에서 직영매장을 40여개씩 관리하는 경우는 없고 별도 점주를 통하여 관리하나, 현재 E기관은 직영매장으로 44개를 관리하다 보니 규모화에 따른 여러 장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장점으로서는 첫째, 원자재비 인하가 가능하다. 소규모 운영시 수요발생시마다 생두를 개별주문했기 때문에 비용이 보다 높았으나 로스팅업체와 원두 브랜드를 3년 동안 연구하여 생산하게 되면서 연단위로 생두를 구매·소비하기 때문에 초기에 비해 거의 절반 가량 생두 가격이 인하되었다. 둘째, 유통비가 인하되었으며 결제수단도 통일하여 관리가 용이하게 되었다. 셋째, 참여자수가 많아지면서 별도의 교육장을 조성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별도의 교육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을 만든 이후에야 참여자 선발, 교육 등이 실시되면서 오픈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교육장을 만들어 매장오픈 계획이 생기면 바로 참여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신규매장 인테리어 종료 후 바로 사업 시작이 가능한 상황이다. 넷째, 매장 오픈을 위한 각종 절차를 매뉴얼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매장오픈을 위한 준비작업(부지선정, 용도변경, 이해관계자 협의, 인테리어, 참여자 선발 및 교육 등)에 예전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대규모화된 이후에 이러한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게 되어 6개월이상 소요되던 것이 2~3개월 가량으로 단축되었다. 다섯째, 푸드트럭을 갖추면서 다양한 행사참여가 용이하게 되어 매출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한계점으로는 유통, 재료구입 등 실무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이 일부 존재한다.

카페업종은 여름에는 매출이 상승하고 겨울에는 매출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계절변동성이 존재한다. 여름에는 외부활동이 많고 각종행사, 더운 날씨 등으로 매출이 상승하는데, 성수기에 추가매출을 적립하여 비수기에도 참여자수 조정 없이 운영하고 있다. 보수는 매출상황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익금으로만 100%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재료비 및 공공요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최대한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전체 실버카페 참여자 중 약 90명, 즉 36% 가량은 보조금 지급 없이 고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별도의 퇴직금은 없으나 1년 참여한 이후 근속수당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매장오픈식이나 지자체 내 큰 행사시 참여하는 것 외에는 홍보활동이 거의 없으나 이미 입소문이 나 있고 관공서에 다수 입점해 있어 이용객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가의 원두 사용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

격대비 품질 보장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100개 카페 운영·전국화를 목표로 현재 계획된 매장오픈에 맞추어 참여자 교육중이며, 현재 확보(예정)된 부지에 대한 변동이 없을 경우 무리 없이 100개 매장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60개까지 매장오픈 계획이 있다. 카페사업과 연계된 로스팅 사업, 머신정비 사업, 유통사업 등 추가 시장형사업도 구상 중에 있으며, 교육사업단은 외부 출장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다.

다음으로, A기관은 아파트택배 사업과 함께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 144개의 실버카페가 있었으나 그 중 대학교 내 입점된 실버카페로는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이미 카페가 입점이 완료되었거나, 조합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입점이 어렵지만, 신규 대학교 부지가 확정되는 절차 중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여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협의를 매장인테리어에 대한 우려와, 노인 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대학교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1년여간 노력 결과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과 동행하여 총장 면담을 통해 최종 성사하였으며, 현재 4년차 사업이다.

A기관의 실버카페는 실무자가 투입되지 않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초기셋팅을 완료하였다. 참여자는 인근 타기관의 실버카페에서 바리스타과정을 이수하고, 사업참여 후에는 2015년까지는 전문인력인 전담매니저를 운영하여 교육하였으며, 현재는 팀장인 참여자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무자는 물품구매 정도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면서비스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기참여자라도 전원 재선발을 실시한다.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긴장감있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참여자중 재선발 과정에서 40%는 탈락하고 있다.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참여자의 숙련도가 지속 향상되고 있으며, 고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의 가격대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필요성이 있어 생두 로스팅을 직접하고, 추가이윤 창출을 위하여 과자를 구워서 교내에 판매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입점부지의 특성상 대학교이다 보니 방학기간은 수익이 낮고, 카페사업의 특성상 여름이 겨울보다 수익이 높은 편이어서 계절변동성은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또는 회사원도 많이 방문하여 저녁시간대나 방학에도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참여자에게 방학기간에 자율적으로 쉬고 싶은 의사를 물어 참여자의 30% 가량은 방학

기간동안 참여를 중단한다.

참여자 보수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적립금은 해당 대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비품구입을 위한 예비비 및 시설투자, 참여자 상여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버카페는 초기투자비가 다소 발생하는 사업이다. A기관은 지자체의 사업개발비를 확보하여 초기설비 및 인테리어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운영을 위한 매장 임대료는 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연간 150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향후 수익 향상방안으로는 주고객이 학생이다 보니 트렌드가 중요하여, 선진매장의 벤치마킹을 꾸준히 실시하여 신메뉴를 개발하고 친절교육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매장도 늘려나가기 위해 장소 확보에도 노력중에 있다.

4) 정보서비스업

C기관은 시니어클럽으로 시장형 사업 중 유일하게 정보서비스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자는 주로 포털사이트 등의 참고문헌 DB구축, 쇼핑모니터링, 쇼핑 이미지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수익, 보수 및 성과진단 결과 모두 상위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요처인 포털사이트 업체가 시니어 인력활용에 관심이 있어 타 시니어클럽과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었는데 쇼핑분야 자회사가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을 물색하고 있는 단계였다. 마침 C기관이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C기관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관심을 갖던 중 지자체의 협조로 2014년부터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관리인력이 수시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수요처 확보가 가능하였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개발된 업종이다.

사업시작 전에는 원래 중국 청년층이 수행하던 업무였다. 사업초기 청년층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노인층에게 준다는 비난도 존재하였으나 기업체에서는 국내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실시 결과, 중국 청년층의 업무성과와 노인의 업무성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검수는 청년보다 노인이 더 잘 수행하였다. 또한 참여기간이 증가하면서 숙련도가 향상되어 매년 수요처 계약시 월별, 일별 수행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요 업무 중 첫째, 참고문헌 DB구축 업무는 논문검색시 참고문헌 목록의 이탈자

를 관리하는 업무이고, 쇼핑모니터링은 인터넷쇼핑몰 상품이 위법사항 또는 유해상품 인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이며, 쇼핑이미지 편집은 모바일쇼핑에 최적화된 사진크기와 이미지로 편집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업무이다.

참여노인 선발은 컴퓨터 활용가능여부(문서작업, 검색능력 등)에 대해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제한시간 내에 틀린부분을 찾아내는 능력 등도 판별한다. 선발된 참여노인은 근무전 수요처로부터 일정 시간 직무교육을 제공받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수습기간 중에도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된다. 참여자 평균연령은 60대 중반으로 연소노인이 대부분이며, 남녀 성별은 비슷하다. 전직은 공무원 등 사무직이 많고, 전업주부였다가 컴퓨터활용교육을 받은 후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자의 중도포기율은 적은 편이며 대기자는 많은 편이다.

참여자는 주5일, 일일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업무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팀별 물량에 맞추어 수행하고 있으며 월별, 일별로 거의 동일물량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의 계절변동성은 적다. 단순업무이나 피로도가 높은 업무로, 참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규정을 통하여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및 체조나 운동 등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되며 업무성과가 많은 경우 수요처로부터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민간기업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자의 생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C기관과 수요처가 함께 분기별, 월별 근태 및 업무능력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계속고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차리율을 줄이기 위한 정확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실무자는 주로 참여자 대상 소양교육 등을 진행하며, 주2-3회 현장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수요처와의 소통 등을 담당한다. 또한 참여자 동아리활동 등 복리후생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우수사례로 대외에 다수 소개되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언론에서 취재가 많고, 홍보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대기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연계형 사업단으로서 기업의 예산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확대 계획 수립이 쉽지는 않으나 수요처 확대를 통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 참여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 사업장 공간 부족 문제가 있어 사업장 추가 확보를 통하여 참여자

확대를 논의중에 있다. 보조금의존도를 낮추고 사업의 자립을 위하여 배정인원을 점차 축소하고 있는 단계이다.

5) 공동작업장

A기관과 B기관, D기관에서는 우수사업과 함께 공동작업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기관은 2개 공동작업장을 8년째 운영하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마스크팩, 쇼핑백이 있으며, 자동차부품은 연소노인이, 쇼핑백은 고령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자는 보조금과 수익금을 합산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공동작업장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은 높은 편인데, 지속참여자 증가로 참여노인의 숙련도가 향상되어 소득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보수 향상을 위하여 업체와 단가 인상 협의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품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공동작업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첫째, 일감확보이다. 일감은 일정한 양이 고정적으로 연간 납품될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A기관은 수요처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계절변동성이 거의 없는 일감으로 확보된 상태다. 처음 일감확보를 위하여 실무자가 온라인 검색 및 주변 중소기업에 발품을 팔아 확보하였다. 특히, 자동차부품조립은 옥외광고를 보고 방문하여 일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감확보는 주로 지역인근의 업체들을 조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일감에 대한 단가는 수행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한데, 노인인력 활용시 젊은 노동력에 비해 생산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으나 노인공동작업장의 경우 한번에 노인인력을 다수 투입할 수 있으므로 강점이 있다. 즉, 젊은인력 대상 몇 군데로 작업장을 나누어 일감을 배송하는 것보다 노인인력이 다수 모여 있는 작업장에 일감을 배송하면 업체 측에서도 설비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비용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공동작업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둘째, 작업장 근로환경이다. A기관의 사업장은 전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납품업체도 일정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설비 일부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였다. 작업장 환경 중 에어컨 등 기본설비와 소모품은 A기관에서 부담하였다. 참여자가 원하는 아이템, 좌식/입식 선호도, 작업장 입지 등에 따라 다양한 작업환경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 교체가 많지 않다.

향후 지속적으로 작업장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작업장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며, 작업물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B기관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로, 관할 경로당의 부업으로 수행하던 사업을 2008년부터 시장형사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작업장은 경로당 1개소, 일감제공 업체에서 제공한 장소 1개소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일감확보를 위하여 하청업체가 아닌 본청업체를 찾아가 해당 업체의 물품만 취급 하겠다는 것과 젊은 층처럼 단가에 따라 일감을 옮겨다니는 일은 없이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설득하여 일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쇼팽백, 볼트/너트조립 등의 일감이 있으며 일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 관리중에 있으나, 쇼팽백 제작의 경우 등 계절변동성이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참여자자는 거의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연차가 길어짐에 따라 참여자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참여자 중 반장을 선임하여, 출퇴근관리, 업무량 관리, 개인별 수익정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 보수는 업무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공동분배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D기관은 현재 15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공동작업장을 동시 운영하는 데에는 지자체에서 동별로 작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D기관은 일감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도 강하면서 관내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한 편이다. 2015년부터 지자체 단위의 규모있는 추진을 위해 ‘일감은행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시니어클럽,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역자활센터, 다문화센터, 시행복 나눔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 6개소가 함께 자체 작업 및 기관별 일감 배분 등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감이 들어오기도 한다. 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초기자본은 시에서 지원하였으며, 일감을 주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인센티브, 즉 세제혜택 등을 논의 중에 있다.

매출상승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만으로는 납기일을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어 10~20%(작업장별 1~2명)는 젊은 취약계층(장애인, 경단여)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노인 일자리수 실적과는 무관), 이에 따라 거래처의 욕구를 맞출 수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또한 권역별로 멘토를 1명씩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3개 권역별로 멘토가 납기일 준수를 위해 그 지역의 작업장별 작업량과 인원수 등을 조절하는 방식 역시 안정적 거래처 확보에 기여한 점이다.

D기관이 속해 있는 지역은 공단이 일부 있어 일자리센터나 기업인협의회 등과 지속 네트워킹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홍보하지 않아도 일감이 들어오고 있다.

지자체에서 동별로 작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동별 유희공간(노인정) 개발 및 작업장 보유 업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소결

앞서 데이터분석시 활용했던 업종별 분석기준에 비추어 업종별 면접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운수업의 아파트택배사업은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사업량 확대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면접을 실시한 A, B기관 모두 전 택배사의 전 물량을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대단지 신규아파트 입주시부터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아파트 인근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아파트 거주노인 중심으로 신규일 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수익이 높게 창출될 수 있다. 초기 거점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밀개 등 물품, 작업복 등에 대한 초기비용 위주로 재원이 필요하며, 특히 거점 마련 비용은 아파트측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거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경우 원자재비가 거의 불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수익은 결국 물량 소화능력과 연결되는데, 택배물량이 확대 추세에 있고 사업연차가 쌓이면 참여자 숙련도가 향상되어 물량소화능력이 향상, 결국 실수익이 향상될 수 있으며 월별 계절변동성도 적어 안정적인 수익과 보수를 창출할 수 있다. 단, 노동강도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남성 연소노인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높은 노동강도에 따른 중도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참여자 복리후생 강화, 안전수칙 마련,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택배사와의 협의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아파트택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사업시작 전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와의 협의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A, B 두 기관이 활용한 방법은 아파트 입주민을 참여자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택배물품의 배송과 집하에 필요한 거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역시 아파트측과 협의가 필요하며 가능한 아파트 내 유희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비용을 감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체를 상대해야 하는 업종이다 보니 기업체의 욕구에 맞는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로부터 초기 직무교육을 제공받는 A기관의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참여자의 소득은 개별분배방식과 공동분배방식 모두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업량 확대가 결국 실무자의 업무과중과 연결된다면 수행기관에서는 사업량을 확대할 수 없으므로, 수행기관의 실무자 노력투입이 최소화된 모델로 셋팅을 완료한다면 사업량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찬제조판매의 한식음식점업은 고용창출효과는 보통 수준이지만 안정적인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실수익과 보수를 높일 수 있다. D기관은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동 급식,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급식 등 공공영역에서의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여 월별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지역내 기존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영역 급식 등 제조한 음식의 고정된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문고객보다는 고정된 수요처로의 배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2층에 입점하여 낮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데이터분석 결과에서도 보듯이 한식음식점업은 1인당 소요되는 원자재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수요의 사전예측은 계획성 있는 재료 구매를 가능케 하여 원재료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농장사업단을 함께 운영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식재료로 활용하는 사업단 간 연계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동일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역내 수행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이러한 연계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재료 일부를 경매를 통하여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과 함께, 재료수급조절 및 맛의 표준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인 조리장을 고용하여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실버카페의 비알콜음료점업은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어서 1개 사업단당 창출되는 일자리수는 많지 않다. 그러나 E기관처럼 사업단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는 일자리수가 늘어날 수 있다. 실버카페는 매장 인테리어, 장비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과 함께 지속적으로 재료구입비 등이 발생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원자재비를 절감하여 실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E기관과 A기관은 공통적으로 민간기업 또는 지자체를 통하여 초기투자비 재원을 마련하였다. 특히 E기관은 관내 대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기업연계의 모범사례로 꼽혀 왔으며 오히려 현재 기업들이 실버카페 후원의사를 역으로 밝혀 오는 상황이다. 매장운영사업이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중요한데, E기관은 주요 관공서와 후원기업 내,

A기관은 대학내에 위치함으로써 수익창출이 가능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가격을 낮추어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E기관이 카페업종 전문 대규모 운영으로 원재료, 유통, 참여자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보인 만큼, 비단 한 기관의 사례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버카페 전체에서 이러한 규모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활 분야에서도 ‘사회적 프랜차이즈⁶⁾’ 개념을 활용한 자활기업의 규모화 전략과 관련되어 논의가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김정원·김병인, 2013).

연도별 매출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비록 월별 매출액의 차이가 있어 계절변동성은 존재하나 성수기의 추가매출을 적립하여 비수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매출과 상관없이 시급제로 운영하는 것이 참여자의 안정적 보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성공요인 중 하나로 E기관에서 직무교육을 하나의 사업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매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교육장을 조성하고 참여노인 맞춤형 매뉴얼을 구축하여 수백명의 참여노인과 신규오픈 매장의 참여예정노인들을 상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장기적으로 사업규모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체에 적용한다면 동일업종 참여노인들이 지역별로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 내 정보서비스업을 유일하게 운영하는 C기관의 사례는 안정적인 고용창출 효과와 향후 사업량 확대가능성, 안정적인 실수익과 보수 등의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나 보수가 월별로 안정적이고 노동강도가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능력을 갖춘 연소노인이 참여하기에 적당한 업종으로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과 맞물려 확대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 하겠다. 사업량 확대는 결국 이러한 민간기업을 얼마나 확보, 설득하느냐에 집중될 것이며, 중앙단위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개발하여 시범추진한 후, 성과를 증명하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사회적 프랜차이즈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의 복제(replication)전략의 일환으로 제3섹터에서 만들어낸 창조적 방안들을 더 큰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규모화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김정원·김병인 2013, 재인용)

공동작업장은 시장형 내 높은 비율 운영되고 있으며 다루는 공정 또는 생산품이 다양하고 특히 고령 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가 많이 들지는 않으나 단가 자체가 매우 낮아 실수익이나 보수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면접결과 공동작업장 중 단가가 높은 제품을 제조 또는 포장할 경우, 또한 숙련도에 따라 높은 수익과 보수가 창출가능하며 월별로 계절변동성이 없는 생산품을 확보한다면 고령노인의 소득보전에 적합한 업종의 하나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고령노인들이 주로 참여하기에 거주지와 인접하면서 고령노인이 근로하기 적합한 작업장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일감 확보 과정에서 개별 수행기관이 인근 기업체와 협약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역내 수행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감을 확보하는 D기관의 사례를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인력이 다수 투입될 경우 업체측에서도 비용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감을 확보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일감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공동작업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기관의 사례처럼 사업장이 많아질 경우 전문인력을 활용한 작업물량 배분 및 수급, 비노인 취약계층 활용 등의 다양한 전략이 수반될 수 있다.

6. 맺음말

1) 맺음말

앞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장형사업단의 업종별 운영실적을 다음 <표 6-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농림어업은 1개 사업단당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가 적게 드는 장점은 있으나 연매출액, 월실수익 등 매출 관련 지표와 보수 등이 낮은 수준이고, 연도별 실수익이나 보수의 변화수준이 긍정적이지 못하며, 산재보험료도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은 1개 사업단당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1인당 월실수익이나 연보수 등은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월별로 인당 매출액이나 보수가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폐기물, 환경복원업은 고용창출효과도 높으면서 매출액, 월실수익과 보수 등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소매업은 연매출액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낮고 연간 원자재비나 1인당 사업운영경비, 월실수익, 1인당 보수 등 여러 지표에서 부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운수업은 연도별 연간 원자재비 지표가 다소 부정적이고 산재보험료가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면서 사업단당 고용창출효과는 낮은 편이지만, 1인당 월실수익이나 보수 등이 긍정적인 수준이며, 연도별·월별 매출액이나 보수 등의 수치들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많은 지표들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1〉 시장형 업종별 운영실적 분석결과 요약

업종	고용창출 효과	연매출액	연간 원자재비	1인당 사업운영 경비	1인당 월실수익	1인당 연보수	연도별 연간 원자재비
(단위)	(개)	(천원)	(천원)	(원)	(원)	(원)	(천원)
농림어업	○	××	○	◎	×	×	×
제조업	○	×	○	○	×	×	×
폐기물, 환경복원	○	○	◎	○	○	○	○
도소매업	×	○	×	×	×	×	×
운수업	○	○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출판, 영상, 정보 등	○	◎	◎	××	◎	◎	○
부동산, 임대	×	××	◎	◎	×	×	○
사업시설, 사업지원	○	○	◎	○	○	○	×
교육서비스	○	○	◎	×	○	○	○
예술, 스포츠, 여가	○	×	××	×	××	×	×
협회, 수리, 개인	×	××	◎	○	○	×	×
평균	18.9	52,535	15,657	952,170	519,253	3,352,076	'11: 15,188 '15: 15,657

업종	연도별 연간사업 운영경비	연도별 1인당 실수익	월별 1인당 매출액	연도별 1인당 연보수	월별 1인당 보수	산재 보험료
(단위)	(천원)	(천원)	(원)	(천원)	(원)	(원)
농림어업	○	×	×	×	×	×
제조업	×	×	○	×	○	×
폐기물, 환경복원	×	×	○	×	○	×
도소매업	××	○	×	○	○	○
운수업	○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출판, 영상, 정보 등	×	○	○	○	×	×
부동산, 임대	×	○	○	○	×	○
사업시설, 사업지원	×	○	○	○	○	×
교육서비스	××	○	×	○	×	×
예술, 스포츠, 여가	○	×	×	○	○	×
협회, 수리, 개인	×	○	○	○	○	×
평균	'11: 6,045 '15: 12,623	'11: 2,058 '15: 2,794	360,584	'11: 1,939 '15: 2,629	310,424	28,782

주1) ◎ : 평균2배이상, ○ : 평균이상, × : 평균미만, ×× : 평균2배미만

주2) 원자재비와 사업운영경비, 산재보험료에 한하여 ◎ : 평균2배미만, ○ : 평균미만, × : 평균이상, ×× : 평균2배이상 으로 표기

주3) 연도별 자료는 해당 업종의 2011년 자료와 2015년 자료를 대조하여 산출함(단, 출판, 영상, 정보 등 업종은 2014년 최초 실시로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대조하여 산출함)

주4) 연도별 1인당 실수익 및 보수는 정부보조금 증가로 인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11년도 지원액인 130만원과 2015년도 지원액인 180-200만원(평균 190만원)을 적용하여 차액인 60만원을 제외한 후의 증감액으로 산출

주5) 월별 1인당 매출액 및 보수는 월별평균과 매월중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차이가 10만원이상인 경우 ×, 10만원 미만인 경우 ○로 표기

20개 이상 운영되는 세부업종별 운영실적 분석결과는 다음 <표 6-2>와 같다. 농림어업에 속하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과 채소작물 재배업은 원자재비와 사업운영경비는 적게 소요되지만 대부분의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지만 식물성 유지 제조업이나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등의 제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낮다. 1인당 월실수익이나 연보수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은 그렇지 않았으며, 연도별 1인당 실수익과 보수는 식물성 유지 제조업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은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이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그렇지 않았다. 월별 보수는 대체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연도별 지표와 산재보험료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늘찬 배달업은 연도별 원자재비 변화와 산재보험료 지표를 제외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단,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택배사 및 아파트측과의 협의를 통한 단가조정, 거점 무상임대, 높은 노동강도에 따른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대비한 참여자 복리후생 강화, 안전수칙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한식음식점업은 원자재비와 사업운영경비 지표에서 매우 부정적이지만 1인당 월실수익과 연보수 등에서 긍정적이며, 연도별 원자재비도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공공영역에서의 안정적 수요확보 및 수요사전예측을 통한 원자재비 절감 등이 필요하다. 제과점업은 월실수익이나 보수가 그다지 좋은 실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비알콜 음료점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비알콜음료점업은 초기투자비 및 재료비 등 원자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중요하며, 수요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포장 및 충전업은 원자재비나 사업운영경비가 적게 소요됨에도 실수익이나 보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2〉 시장형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세부 업종별 운영실적 분석결과 요약

업종	고용창출 효과	연매출액	연간 원자재비	1인당 사업운영 경비	1인당 월실수익	1인당 연보수	연도별 연간 원자재비
(단위)	(개)	(천원)	(천원)	(원)	(원)	(원)	(천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	◎	◎	×	×	×
채소작물 재배업	×	××	◎	○	×	×	○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	×	×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	××	××	×	×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	×	○	○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	◎	◎	×	×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	×	×	×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	◎	◎	×	○	×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	○	◎	○	○	○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	×	×	×	×	○
늘찬 배달업	○	○	◎	○	○	○	××
한식음식점업	×	○	××	××	○	○	○
제과점업	×	○	×	×	×	×	○
비알콜 음료점업	×	×	×	○	×	×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	◎	×	○	○	×
포장 및 충전업	○	×	◎	◎	×	×	×
평균	19.9	56,015	16,234	957,719	526,149	3,443,117	'11: 16,004 '15: 16,234
업종	연도별 연간사업 운영경비	연도별 1인당 실수익	월별 1인당 매출액	연도별 1인당 연보수	월별 1인당 보수	산재 보험료	
(단위)	(천원)	(천원)	(원)	(천원)	(원)	(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	×	×	×	×	
채소작물 재배업	○	×	×	×	×	×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	○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	×	○	×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	○	○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	○	×	○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	○	×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	○	×	○	×	
지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	×	○	×	○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	×	○	○	○	
늘찬 배달업	○	○	○	○	○	×	
한식음식점업	×	○	×	○	○	○	
제과점업	○	○	×	○	○	○	
비알콜 음료점업	×	○	○	○	○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	×	○	○	×	
포장 및 충전업	×	×	○	×	○	○	
평균	'11: 10,363 '15: 13,016	'11: 2,121 '15: 2,868	367,413	'11: 2,009 '15: 2,682	318,102	28,068	

주) 지면관계상 <표 6-1>의 주1)~주5)와 주석내용 동일하여 생략함.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제언해 본다.

첫째, 노인적합 업종 개발이 필요하다. 시장형의 특성에 맞게 노인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시장형 업종의 추가개발이 필요하다. 아파트택배 등 운영실적이 뛰어난 업종의 확대 전략과 함께, 사례분석 대상이었던 정보서비스업과 같이 시장형 내 소수업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난 업종들에 대한 분석 및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개발이 필요한데, 생산품이 발생하는 계절에만 소득이 증가하는 한계에 대응하여 계절성이 적은 업종을 개발하거나 여러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생산품이 발생하여 수익이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수산물과 관련된 업종개발시 음식점업이나 소매업과 같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의 시장형사업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의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형사업단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사업단당 참여노인 1인기준 180~200만원의 예산 지원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탈피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1)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의 경우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예산을 축소하여 자립하는 방식, 2) 노인적합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환경개선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방식, 3) 매년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해주는 방식, 4)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전환 등의 자립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을 인정해 주는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은 초기비용 투입량이 많은 경우 실수익이나 보수 등의 실적이 낮을 것이므로 사업연차별로도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방식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업종별로 활용가능한 기업 사회공헌기금 확보를 위해 중앙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노인일자리 기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재원마련뿐만 아니라 시장형 사업의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실질적 사업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셋째, 시장형사업단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16년부터 전문서비스형의 시장형 편입으로 일선 수행기관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예를 들어, '16년에는 동일한 업종이 수행주체에 따라 공익활동으로 편제되기도 하고 시장형으로 편제되기도 하였는데, 전문서비스형이 시장형으로 편입된 것은 주로 노인일자리의 '근로자성' 이슈 발생 및 시장형 사업의 확대 정책방향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수요나 서비스 성장성을 고려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분류체계이며, 서비스 질에 대한 표준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익 창출이 보다 어려울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의 개념을 상기해 보면,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형사업단의 개념 내에서 전문서비스형에 대한 로드맵을 재설계해 보면, 1) 전문서비스형 중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주차차 계도 등은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활동으로 재편하거나, 시장형에 그대로 편재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전문직종으로서의 공익서비스 성격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CCTV관제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의 경우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일부 수익이 발생하도록 예산 책정을 중앙 차원에서 협의하며, 3)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나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은 기존 시장형 업종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기존 시장형 업종들과 통합하고, 4) 이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을 지속 개발하여 편재해야 할 것이다.

전문서비스형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형사업단의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 시장형에서 출발한 고령자친화기업이 모기업 연계형 고령자친화기업보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인일자리 내 자립 모델인 고령자친화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형사업단의 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고령자친화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설립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운영실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업종별 분과를 편성하여 기존 시장형사업단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표준매뉴얼 제작, 컨설팅 실시, 기금 마련 및 지원, 사업장 인증 및 작업장 근로환경 검증, 동일업종간 네트워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시장형의 고령자친화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립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을 인정해 주는 방식 등 지원체계를 사전 강구하여 일선 기관들이 사업단 ‘유지’ 보다는 ‘발전’과 ‘순환’을 택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립구조 조성을 위하여 전체 사업량 중 일부(약 10%내외)를 수행주체를 다양화하여 비즈니스모델로 시범 운영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노인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달체계라도 노인일자리 수행주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지원단을 통하여 자립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시장형 모델의 발전가능성, 자립가능성과 비교해 보면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단이 자립모델로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건

비, 사업비 지원을 통해 일정 정도 수익이 안정적인 사업단은 유지하면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최대 5년 이상 성과가 미미한(원자재액이나 사업운영경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업종은 시장형 참여를 제한하여 새로운 업종들이 시장형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업종별 참여제한은 지역별 산업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프랜차이즈’ 등 규모화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수행기관에 의해 다양한 지역특성을 가진 사업단이 운영되어 성과를 집약하여 최대화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요 업종별 규모화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프랜차이즈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의 복제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확산의 규모화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개념인데, 이는 시장형사업의 영세성을 줄여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표준화된 품질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규모화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기관특성 및 지역특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단, 실제 많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사회적 프랜차이즈를 시도하고 있으나 우수사례로 드러난 것이 많지 않으므로 심도 있는 분석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실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아파트택배 등의 업종은 매뉴얼화하고 수행기관이 신규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 공동작업장 등의 업종은 단가 높은 일감 연계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협의를 통한 일감 개발 및 후원처 개발이 필요하며, 수행기관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지역인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가 필요하다. 즉, 수익 및 보수의 연도별 및 월별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화(서비스)의 고정적 공공구매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시장형사업단 중 고정적으로 공공구매 실적이 있는 사업단들을 추적하여 주요한 공공구매 유형을 분석, 이를 공식적으로 중앙단위의 협의 및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등과 같은 인증절차 및 제도적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시장형사업단 인력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즉, 참여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동일업종에 대해 동일한 교육과정 및 매뉴얼 마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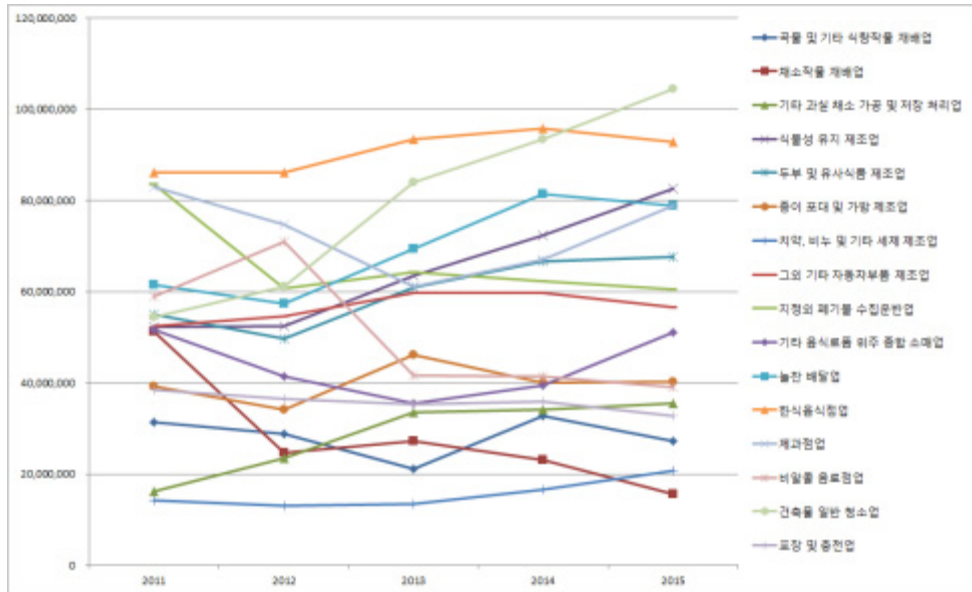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비노인 인력 활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실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 또는 타부처·지자체 지원인력을 최대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좋으나 행정적 칸막이를 사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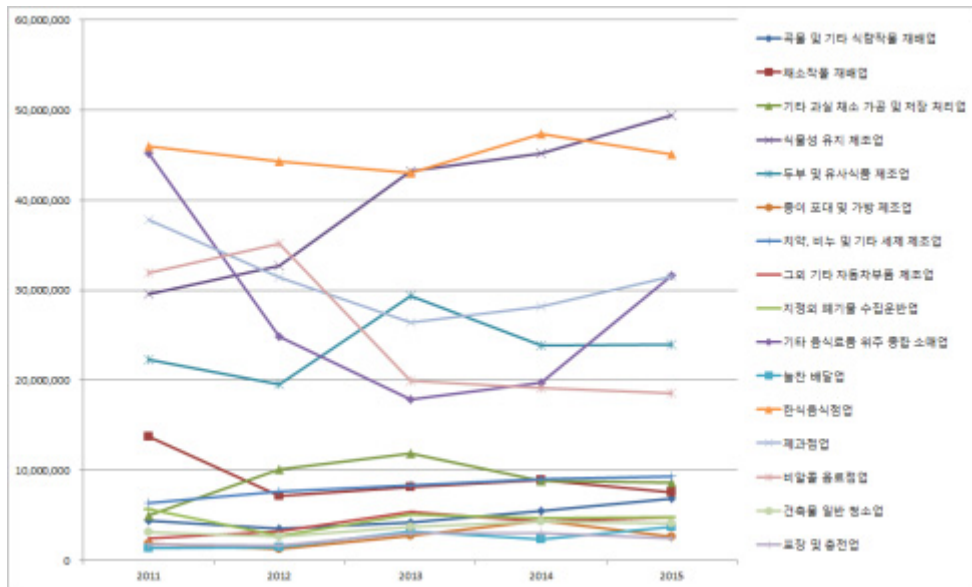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시장형 사업의 운영실적을 업종별로 최초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로, 새누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운영의 다양한 질적 환경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적차이를 분석해내지 못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몇 가지 업종에 한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운영의 질적 특성과 운영실적을 연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새누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만을 활용하여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실적 분석기준 틀 역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둘째, 개별 사업단의 운영실적의 추이를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단의 생성과 유지, 발전과 소멸 등 사업단의 운영주기별 실적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 역시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강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형사업단의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소 미흡하지만 이는 본 연구결과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다. 시장형사업단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정책결정자 및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및 유관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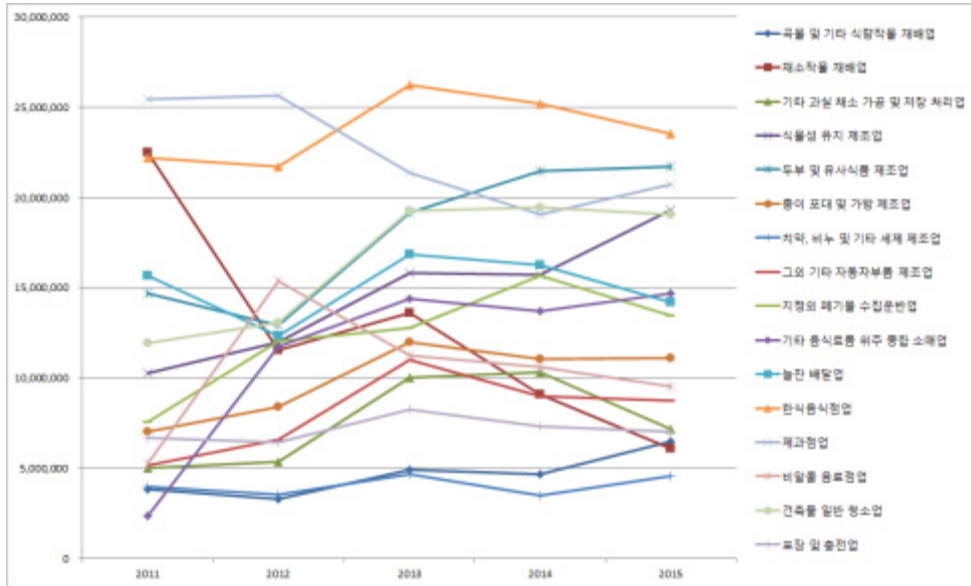
- 김경휘(2011).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향상 방안. 노인인력개발포럼 6호, pp.46~62.
- 김정원·김병인(2013). 사회적프랜차이징을 통한 자활기업의 규모화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 남기철(2010).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편과제. 노인인력개발포럼 4호, pp.32~53.
- 남기철(2009). 노인일자리사업 1기의 쟁점과 2기의 과제. 노인인력개발포럼 2호, pp.5~38.
- 박경하(2013).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과제. 노인인력개발포럼 10호, pp.21~48.
- 박경하, 남기철, 이소정, 이시균, 이승호, 이현미(2013).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경하(2012). 노인일자리사업 전환기의 전개에 대한 평가. 노인인력개발포럼 9호, pp. 5~30.
- 보건복지부(20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
- 이지은(2006). 2006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중앙대·중소기업연구원(2011). 시니어창업 유망업종 01~20. 소상공인진흥원.
- 통계청(2016).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 정은하(2013). 고령자 고용 확산을 위한 서울시 어르신 적합직종 연구. 서울시·서울시 복지재단.
- 하세윤·이현미(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5). 2014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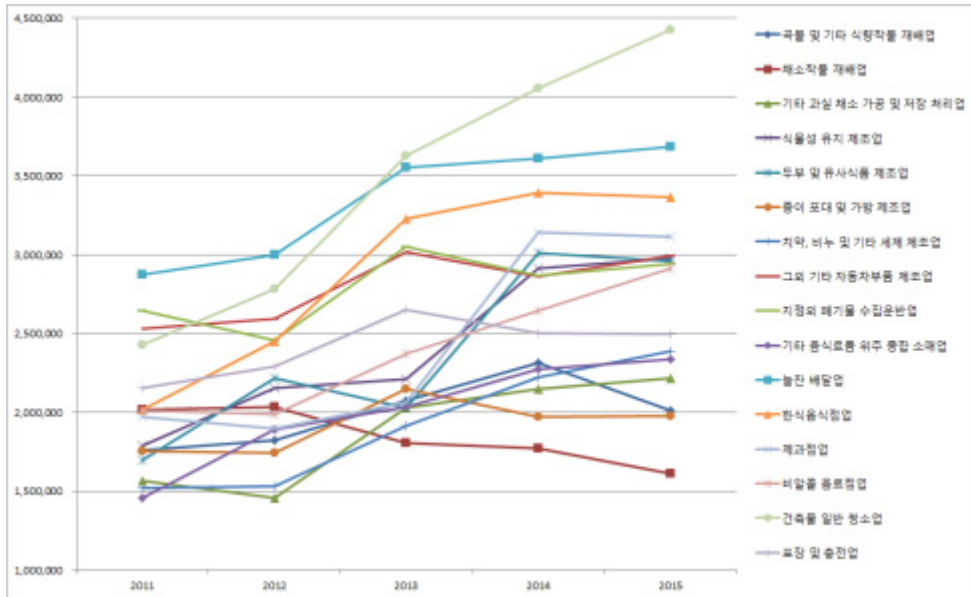
[그림 1]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연매출액 연도별 변화(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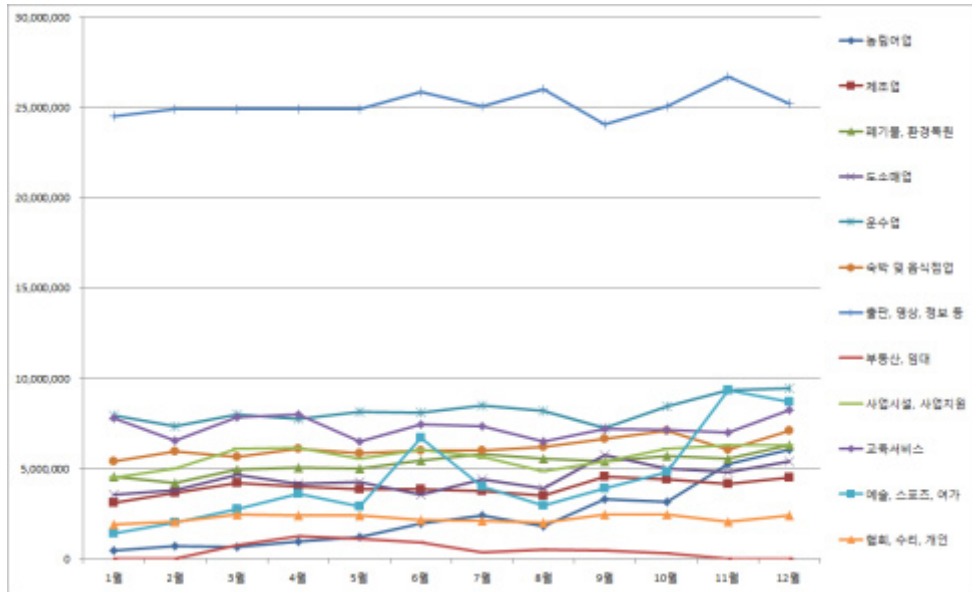
[그림 2]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원자재비 연도별 변화(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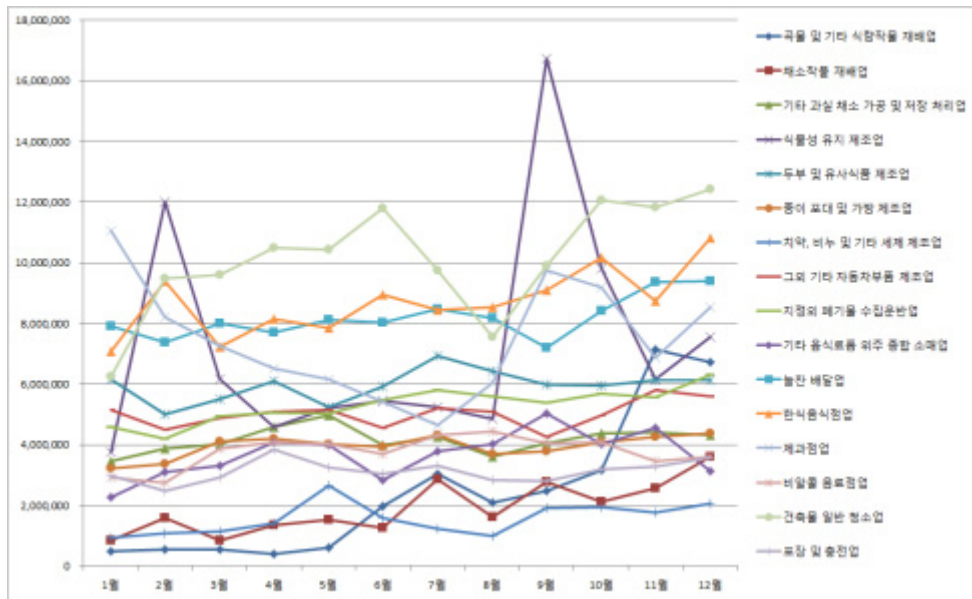
[그림 3]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사업운영경비 연도별 변화(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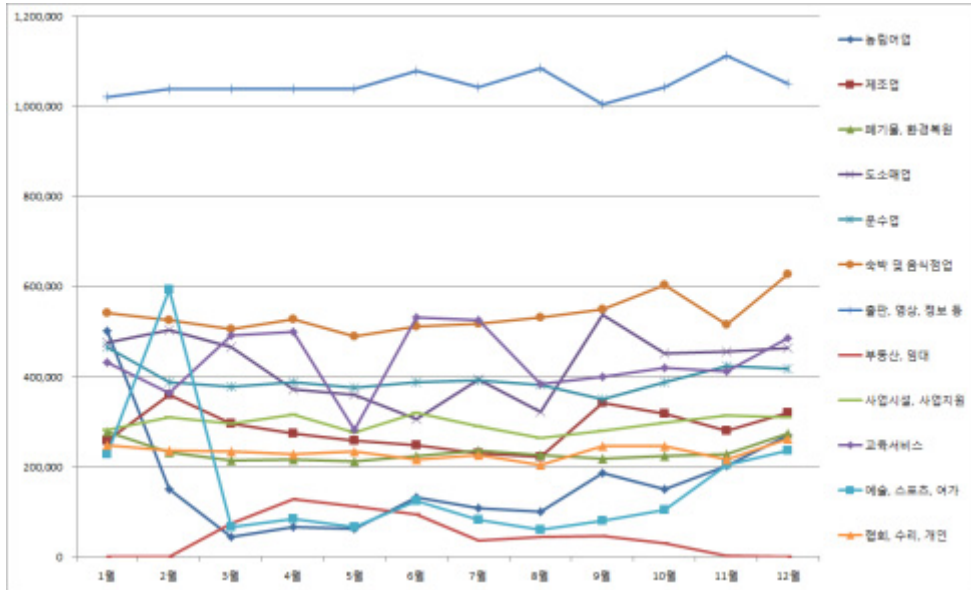
[그림 4]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실수의 연도별 변화(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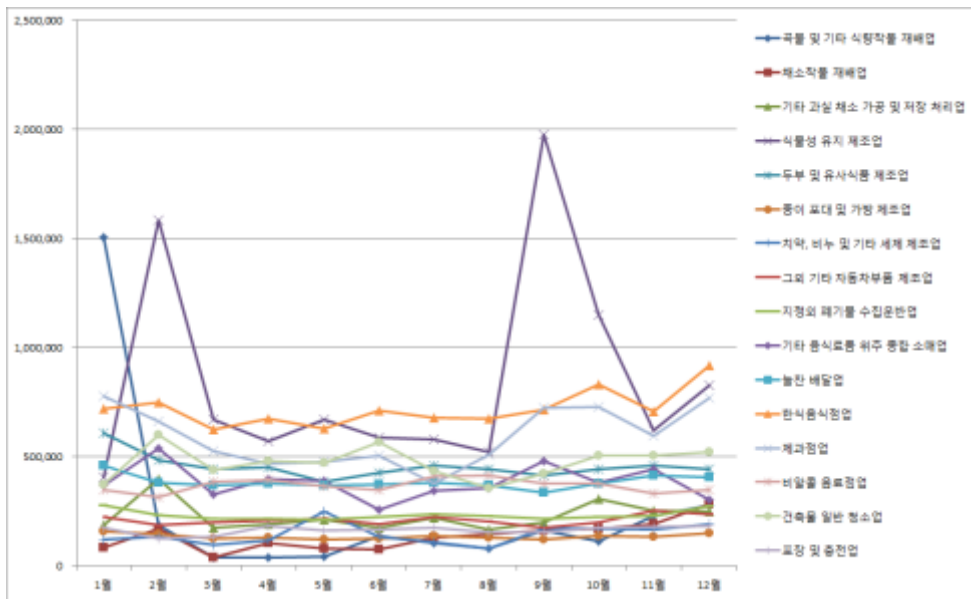
[그림 5] 업종별 월별 매출액 변화(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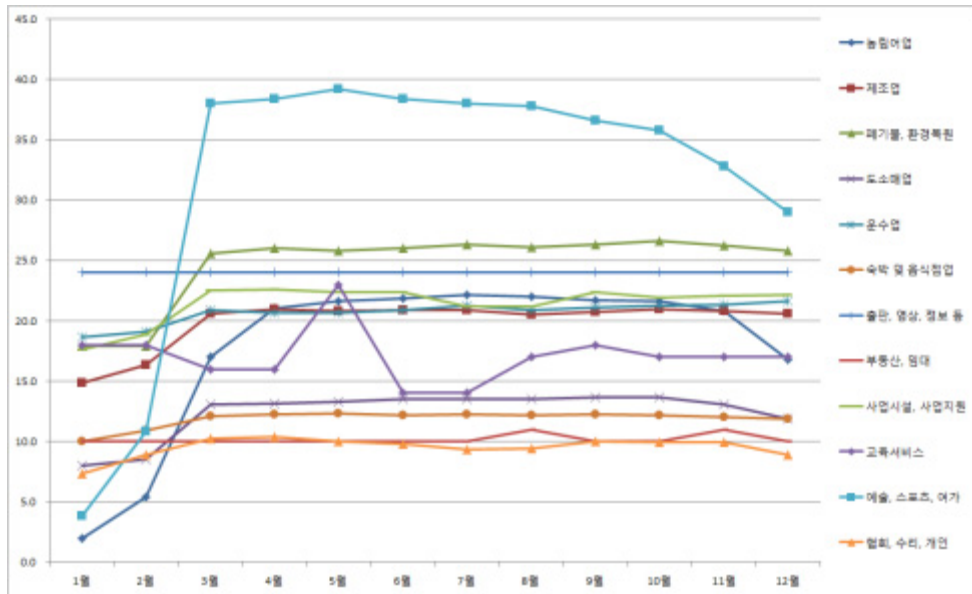
[그림 6]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월별 매출액 변화(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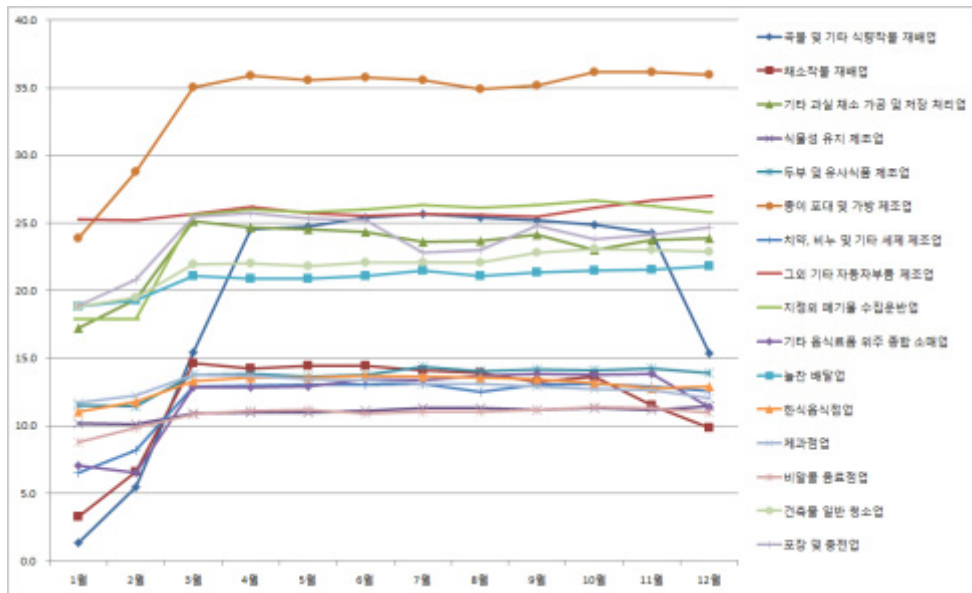
[그림 7] 업종별 월별 인당 매출액 변화(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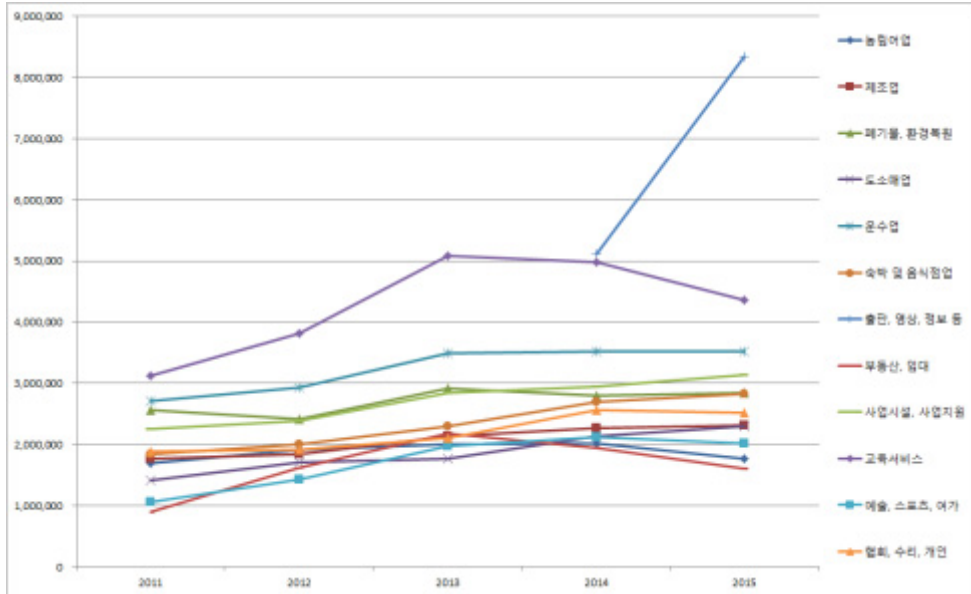
[그림 8]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월별 인당 매출액 변화(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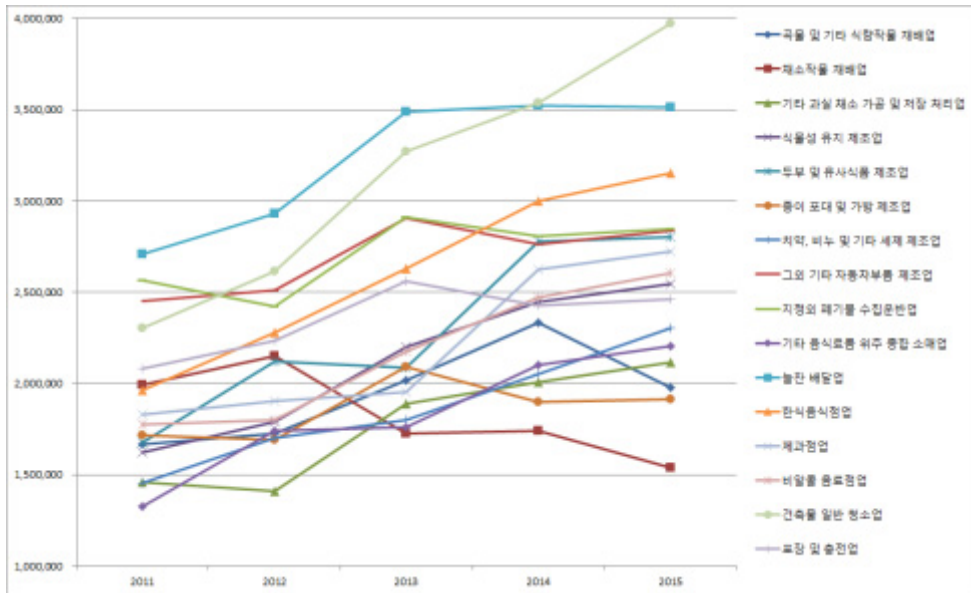
[그림 9] 업종별 월별 참여자수 변화(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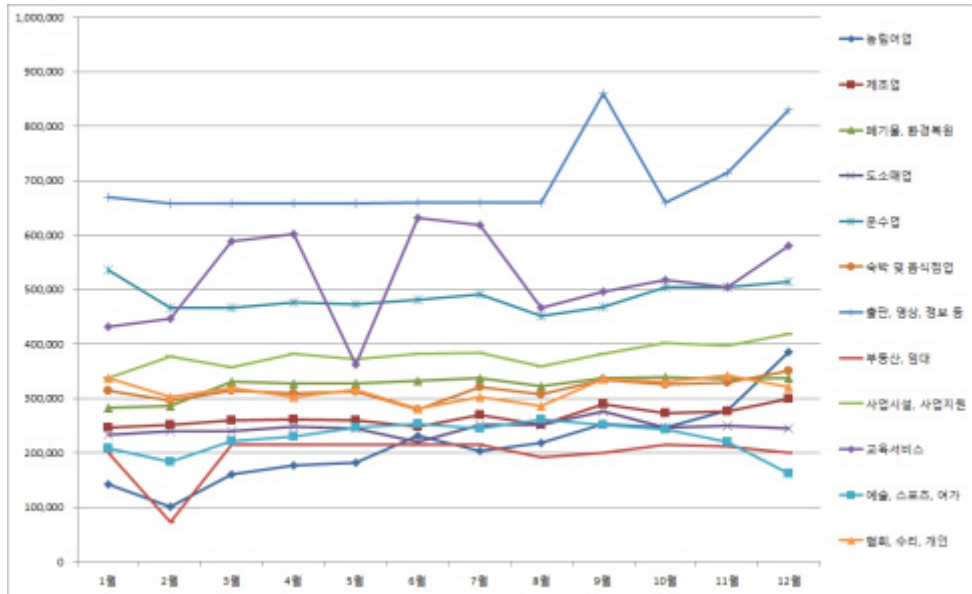
[그림 10]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월별 참여자수 변화(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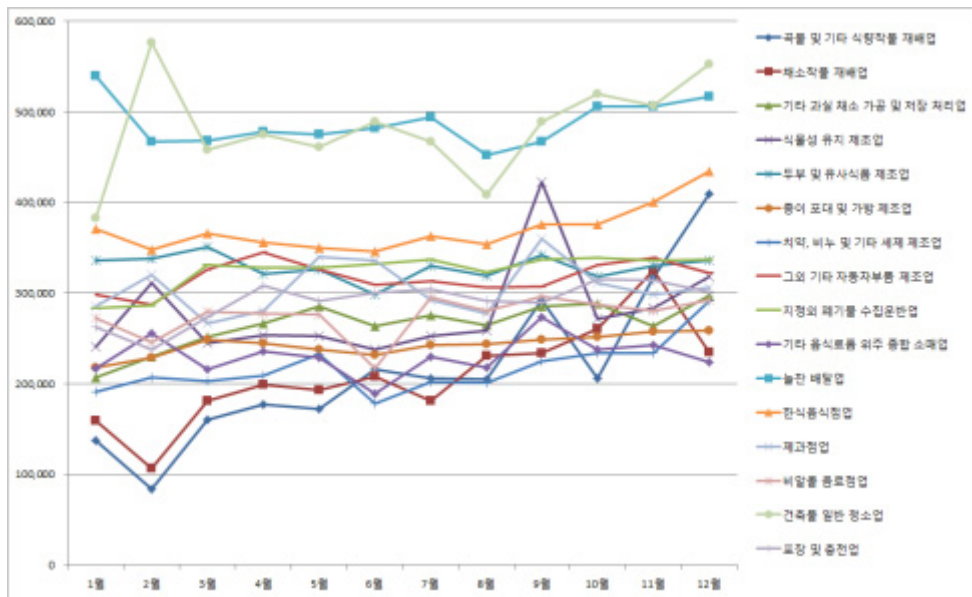
[그림 11] 업종별 1인당 연보수 연도별 변화(단위: 원)



[그림 12]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1인당 연보수 연도별 변화(단위: 원)



[그림 13] 업종별 월별 1인당 보수 변화(단위: 원)



[그림 14] 20개 이상 운영되는 사업단 업종별 월별 1인당 보수 변화(단위: 원)

▣ 저자소개

■ 이현미(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업종별 분석

발 행 ■ 2016년 10월

발 행 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소 ■ 10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전화번호 ■ 031) 8035-7500 Fax. 031) 819-0790

인 쇄 처 ■ 동진문화사 02) 2268-5805

